

#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오성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강태중(중앙대학교 · 교수)

정유성(서강대학교 · 교수)

이부미(경기대학교 · 교수)

조정아(통일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이하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서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사회로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자들의 취업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북한이탈자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정책적인 진단이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사회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해야 하는 주체이며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이들에게 적합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종전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접근은 임시방편적으로 진학 또는 일자리에의 연계 등에 급급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나 직업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임.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육기회 구조와 취업기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 2. 연구 내용

-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및 제도 분석
  -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 및 진학 실태 및 요구 분석
  - 남한에서 청소년기를 지낸 북한이탈자들의 청소년기 진로 경험에 대한 회고적 분석

- 독일, 노르웨이, 호주, 대만 등의 이주 난민 청소년 정책 사례 분석
-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 제언

-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및 제도 분석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및 제도의 변화과정과 현행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및 제도의 수행단계 및 실태 분석,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및 제도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음.
-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 및 진학 실태 파악을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300명과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진)학 및 취업 현황, 진로결정요인, 진로태도, 진로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하였음.
- 남한에서 청소년기를 지낸 북한이탈자들을 통하여 청소년기 진로 경험을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취학 및 진학 경험에 기초한 진로 정책 방안 모색하였음.
- 독일의 동독 출신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원 사례, 노르웨이의 이주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원 사례, 호주 이주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 사례, 대만 이주 청소년들의 진로 지원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의 방향,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지원 체계 구축,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 3. 정책 제언

●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단계**

- 심리적 치유를 위한 지원
- 학교 교육 지속을 위한 지원

◎ **학교 취학 후 지원**

- 학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보충학습 기회 지속적으로 지원
- 진로 지도 체계화와 타당화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보조교사’ (para-educator) 양성 배치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과정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학교 설립 운영

◎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지원
- 무연고 청소년, 단독세대 청소년을 위한 결연 또는 후원 입양 주선
-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토탈(total) 민원 창구’ 운영

◎ **미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예방**

- 북한이탈 청소년 또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기회 확대
- 저학년 아동들의 교육 지원.

◎ **일반 학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일반 학교 사회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 해소
- 서클 활동을 통한 다문화적 이해 증진 도모
- 교원 양성 과정에 다문화적 시각 반영

◎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 새터민 정부 정책의 총괄 지휘 기구 설치
-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민관 조직과 기구의 연대 구축
- 서비스의 관료성이나 형식성 완화

◎ **‘보호’ 기간 또는 ‘청소년’ 시혜 시한 후의 지원**

- 추수(follow-up) 지원 체제
- ‘청소년’에 대한 법제적 연령 규정의 유연한 적용



## 목 차

I. 서론	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7
3. 연구의 방법	8
1) 문헌연구	8
2) 설문조사	8
3) 심층면접조사	9
4) 협동연구 실시	13
5) 전문가 자문, 워크숍 및 국제포럼 개최	13
II.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및 정책·제도	17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17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및 거주 현황	17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학 현황	20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 현황	23
2.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 및 제도 현황	25
1) 교육지원과 학력 인정	25
2)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35
3) 관련 법령 현황	37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의 실행과정 및 문제점	44
1) 정부 내 북한이탈 청소년 업무 관련 조직체계	44
2) 초기(하나원 입소기) 진로 지원	49
3) 학력인정과 학교 배치	53
4) 학교 적응 지원과 진로 지도	56
5) 중도탈락 학생 대책	60
6) 대학 특례 입학	62
7) 취업 진로지도 및 지원	64

8)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	68
9) 북한이탈 청소년 사후관리 및 지역연계체제 구축 .....	71
<b>III.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와 개선사항 .....</b>	<b>77</b>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77
1) 북한이탈 청소년 .....	77
2) 현장전문가 .....	84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의식 .....	86
1) 진로관련 자기이해 .....	86
2) 진로목표 설정 정도 .....	88
3) 진로확신 정도 .....	89
4) 진로준비 정도 .....	90
5) 진로자신감 정도 .....	91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 및 욕구 .....	93
1) 학업경험 및 진학욕구 .....	93
2) 일자리경험 및 욕구 .....	99
3)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 .....	105
4.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학업문제와 필요한 지원 .....	110
1) 학교 및 학업 적응 .....	110
2) 학교생활 및 학업개선 지원 .....	112
5.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	114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	114
2)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14
3) 진로지도 시 가장 큰 문제 .....	116
4) 진로 문제 해결 및 진로지도 시 필요한 사항 .....	117
5)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	118
6.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	119
1) 취업정보 제공 .....	119
2) 취업 시 필요한 사항 .....	121
7. 소결 .....	123

IV. 북한이탈 청년의 학교 및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회고적 분석	127
1. 남한 사회에서 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	130
1) 유예된 청소년과 먼저 온 청년의 결합: “몸은 어른이었고 머리는 애 였어요”	133
2) 학교를 선택한 배경과 목적	134
3) 학교를 들어가기까지의 혼돈	135
4) 첫 적응의 시발점이자 또래관계 형성의 계기: 싸움	139
5) 친구관계	145
6) 교사와 통하는 관계 :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153
7) 학업성취의 가능성과 한계: “쇠귀에 경 읽기”→“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159
8) 학교 공부의 의미	163
2. 직장생활 경험	169
1)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170
2) 대학교 졸업 후 취업	180
3)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찾아서 대학으로 진학	185
4) 꿈을 향한 완만한 상승	188
3. 북한이탈 청년들의 학교·직업생활 경험에서 발견한 학습의 의미	192
1) 자기학습과 깨달음의 과	193
2) 남한사회에 대한 참여적 학습: 관찰과 모방학습, 그리고 비판적 해석	198
3) 북한이탈 청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체성들	203
V. 외국 사례 분석	219
1. 대규모 산업사회 모델: 독일	221
1) 배경 및 특성	221
2) 정책 및 문제점	222

2. 소규모 복지사회 모델: 노르웨이 및 덴마크 .....	226
1) 배경 및 특징 .....	226
2) 정책 및 문제점 .....	227
3. 전통적 이민사회 모델: 호주 .....	229
1) 배경 및 특징 .....	229
2) 정책 및 문제점 .....	230
4. 소규모 특정 이민사회 모델: 대만 .....	233
1) 배경 및 특징 .....	233
2) 정책 및 문제점 .....	234
5. 결론 .....	236
<b>VI. 정책 방안 .....</b>	<b>241</b>
1.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단계 .....	241
1) 심리적 치유를 위한 지원 .....	242
2) 학교 교육 지속을 위한 지원 .....	243
2. 학교 취학 후 지원 .....	245
1) 학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보충학습 기회 지속적으로 지원 .....	246
2) 진로 지도 체계화와 타당화 .....	247
3)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보조교사’(para-educator) 양성 배치 .....	248
4)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과정 지원. ....	248
5)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학교 설립 운영 .....	249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	250
1)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지원 .....	250
2) 무연고 청소년, 단독세대 청소년 등을 위한 결연 또는 후원 입양 주선 .....	250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토탈(total) 민원 창구’ 운영 .....	251
4. 미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예방 .....	251

1) 북한이탈 청소년 또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기회 확대 .....	252
2) 저학년 아동들의 교육 지원 .....	253
5. 일반 학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	252
1) 일반 학교 사회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 해소 .....	253
2) 서클 활동을 통한 다문화적 이해 증진 도모 .....	253
3) 교원 양성 과정에 다문화적 시각 반영 .....	253
6.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	254
1) 새터민 정부 정책의 총괄 지휘 기구 설치 .....	254
2)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민관 조직과 기구의 연대 구축 .....	254
3) 서비스의 관료성이나 형식성 완화 .....	255
7. ‘보호’ 기간 또는 ‘청소년’ 시혜 시한 후의 지원 .....	255
1) 추수(follow-up) 지원 체제 .....	256
2) ‘청소년’에 대한 법제적 연령 규정의 유연한 적용 .....	256
참 고 문 헌 .....	259
부 록 .....	275
1. 청소년용 설문지 .....	277
2. 현장전문가용 설문지 .....	289

##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 대상자 .....	9
<표 I-2> 회고적 심층면접 대상의 특성 .....	10
<표 II-1> 연령별 입국 현황 .....	17
<표 II-2> 청소년 연령별 입국 현황 .....	18
<표 II-3> 학령기별·성별 인원 현황 .....	19
<표 II-4> 지역별 거주 현황 .....	20
<표 II-5>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학교 취학 현황 .....	21
<표 II-6> 북한이탈 청소년(7세~24세)의 정규학교 재학 현황 .....	22
<표 II-7> 민간시설 보호·교육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	22
<표 II-8>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실업률 .....	23
<표 II-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형태 .....	23
<표 II-10> 하나원 교육 내용 개요 .....	27
<표 II-11>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현황 .....	34
<표 II-12> 장려금 지급 기준 .....	37
<표 II-13> 학력인정 관련 법령 .....	38
<표 II-14> 청소년 관련 법령 .....	41
<표 II-15>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	60
<표 II-16>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북한 출신 대학생 재학 현황 .....	63
<표 II-17> 북한이탈 청소년 직종별 직업훈련 현황 .....	66
<표 III-1>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별·학교별 분포 .....	77
<표 III-2>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분포 .....	78
<표 III-3>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 및 입국시기 .....	78
<표 III-4> 북한이탈 청소년의 거주지 .....	79
<표 III-5>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부모의 학력 .....	80
<표 III-6>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의 현재 직업 .....	81
<표 III-7>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의 북한에서의 직업 .....	82
<표 III-8>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서와 현재 동거인(중복응답) .....	83
<표 III-9>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가정의 월 평균 소득 .....	83
<표 III-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 있을 때 가정의 경제수준 .....	84

<표Ⅲ-11> 현장전문가의 성별·기관·지역별 분포 .....	84
<표Ⅲ-12> 현장전문가의 연령 분포 .....	85
<표Ⅲ-13> 현장전문가들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 경력 .....	85
<표Ⅲ-14> 현장전문가들의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 경험 .....	86
<표Ⅲ-1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기이해 정도 .....	87
<표Ⅲ-16>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에 따른 진로관련 자기이해 .....	87
<표Ⅲ-17>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 .....	88
<표Ⅲ-18> 학교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 .....	89
<표Ⅲ-19>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확신 정도 .....	89
<표Ⅲ-20>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 .....	90
<표Ⅲ-21> 학교별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 .....	91
<표Ⅲ-2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자신감 정도 .....	92
<표Ⅲ-23>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에 따른 진로자신감 정도 .....	92
<표Ⅲ-2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 .....	93
<표Ⅲ-25>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재학 중인 학교(교육기관)에서 의 평균성적 .....	94
<표Ⅲ-26> 학생 구성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선호도 .....	95
<표Ⅲ-27>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학교 입학 시 학년 결정기준에 대한 선호도 .....	96
<표Ⅲ-28>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포부수준 .....	97
<표Ⅲ-29> 북한이탈 청소년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	97
<표Ⅲ-30>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학에서 희망 전공 .....	98
<표Ⅲ-3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 간 유급 일자리 경험 여부 .....	99
<표Ⅲ-32>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일의 종류 .....	100
<표Ⅲ-33>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한 이유 .....	101
<표Ⅲ-3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한 기간 .....	101
<표Ⅲ-3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은 경로 .....	102
<표Ⅲ-36>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 둔 이유 .....	102
<표Ⅲ-37>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 체류 시 희망직업 .....	103
<표Ⅲ-38>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에 온 이후 희망직업 .....	104
<표Ⅲ-39>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시 고려하는 요인 .....	105

<표Ⅲ-4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인식한 진로정보 보유 정도	106
<표Ⅲ-41>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	107
<표Ⅲ-4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108
<표Ⅲ-43>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제공 주체(기관)	108
<표Ⅲ-4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만족도	109
<표Ⅲ-4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109
<표Ⅲ-46>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110
<표Ⅲ-47>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혹은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견해	111
<표Ⅲ-48>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혹은 학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111
<표Ⅲ-49>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에 차이 여부	112
<표Ⅲ-50>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에 차이 이유	112
<표Ⅲ-51>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113
<표Ⅲ-52>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113
<표Ⅲ-53>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114
<표Ⅲ-54>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운영 여부	114
<표Ⅲ-55>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다중응답)	115
<표Ⅲ-56>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115
<표Ⅲ-57>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 시 문제	116
<표Ⅲ-58>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관련한 현장전문가들의 어려움	116
<표Ⅲ-59>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해결	

을 위한 개선사항 .....	117
<표Ⅲ-60>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개선 사항 .....	118
<표Ⅲ-6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	118
<표Ⅲ-62>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 여부 .....	119
<표Ⅲ-63>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 .....	120
<표Ⅲ-64>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시 발생하는 문제 .....	120
<표Ⅲ-65>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에 적합한 기관 .....	121
<표Ⅲ-66>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필요 사항 .....	122
<표Ⅲ-67>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능력 .....	122

## 그림 목차

<그림 I-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4
<그림 II-1> 연령별 입국 현황 .....	18
<그림 II-2> 청소년 연령별 입국 현황 .....	19
<그림 II-3>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학교 취학 현황(입학) .....	21
<그림 II-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흐름도 .....	26
<그림 II-5> 학력인정 절차 .....	30
<그림 II-6>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47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주민들(이하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1990년 초반에 집계된 북한이탈주민은 10명 내외에 그쳤으나 2007년 3월에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된 북한이탈주민은 총 1만 여 명에 이른다(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7). 그 양상을 보면 1990년 중반까지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가족을 동반하거나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비율도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를 어느 연령층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2005년에 총 380명, 2006년에는 총 469명이 입국하였다. 2007년 3월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20세 미만의 북한이탈 아동 및 청소년은 모두 1,615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최근 5년 동안 입국한 평균 북한이탈 주민의 약 17%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중 6세 이상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1,047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무연고 청소년들의 입국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5명에 불과하다가 2007년 6월에는 2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일부, 2007).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들의 사회 적응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은 물질적인 측면<sup>1)</sup>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sup>2)</sup>에서의 지원을 동시에 필요로 한

1) 남한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 기술, 직업 등을 획득하는 것

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정착금, 주거, 취업, 자격인정,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등의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백혜정 외, 2006:69).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전환하고 지원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입국자 7,700여 명 중 구직을 등록한 이는 2,013명이고,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는 310명으로 전체의 4%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률은 구직자 1,809명 중 취업자 169명으로, 9.3%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06년 13%에 비해 떨어진 수치이며 일반 구직자 취업률 25.3%에도 크게 못 미친다(한반도평화연구원 정착지원센터, 2007).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취업률의 저조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단순노동자 또는 무직자 출신으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업 또는 저임금 취업 등 취업상황의 어려움은 곧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저소득계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 청소년으로서 갖게 되는 지위에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초기 남한사회에 대한 희망은 자신이 빈곤의 되물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사회 동료 청소년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나 선배 북한이탈주민들의 사례는 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청소년 문제 행동의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의 목적이 남한사회의 저소득계

---

2) 남한사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층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탈주민들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하여 정책적인 진단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사회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해야 하는 주체이며,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기회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미래 통일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접근은 임시방편적으로 학교 진학 또는 일자리 연계 등에 급급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나 직업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취업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다양성을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를 총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방 이전에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진로 실태란 학교 교육에의 적응을 통한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적인 관심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주로 정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길은배, 문성호, 2003; 정진경 외, 2005), 취업이나 진학을 고려한 포괄적인 진로 실태의 견지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학교교육 적응이나 학습에서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정병호 외, 2007).

요컨대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육기회 구조와 취업기회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과 같은 난민 청소년의 진로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북유럽, 호주, 대만 등의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이 연구는 협동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의 속성상 해당 기관에서 공개 및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만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조사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협동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새로운 진로 접근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접근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과 달라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진로 접근방법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협동연구의 수행은 이러한 접근방법의 모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셋째, 협동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취업, 진학,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취업적인 측면에서는 직업 훈련,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학업적 측면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연계 역시 필요하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협동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연구 기관 간 유기적인 역량 강화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현황 및 정책·제도 분석,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 및 진학 실태 분석, 성인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기 진로 경험 분석, 외국의 이주 청소년 진로 지원 사례 분석,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현황 및 정책·제도 분석은 현재까지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학 및 취학상황과 초기적응교육, 학력인정 및 취학지원, 학교적응지원 등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을 정부 내 북한이탈청소년 업무 관련 조직체계, 초기(하나원 입소기) 진로 지원, 학력인정과 학교 배치, 학교 적응 지원과 진로지도, 중도탈락 학생, 대학특례입학, 취업진로지도 및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둘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 및 진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목표 설정, 진로확신, 진로준비, 진로자신감 등의 진로의식과 학업경험 및 진학욕구, 일자리 경험 및 욕구,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 등의 진로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학업 문제, 진로문제, 취업문제 등에 관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남한에서 청소년기를 지낸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하여 청소년기 진로 경험을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취학 및 진학 경험에 기초한 진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한사회에서의 학교 선택하게 된 과정과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교사관계, 학교공부의 경험,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후의 직장생활 경험, 학교 직업생활 경험에서 발견한 학습의 의미 등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과 배경이나 맥락이 유사한 독일, 복지사회 모델로서 모범적인 이민사회 정책을 펴고 있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대표적인 이민국가의 하나인 오

스트레일리아, 한국과 또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해 양상이 유사한 대만의 사례를 대규모 산업사회 유형, 소규모 복지사회 유형, 대규모 본질적 이민사회 유형, 소규모 선택적 이민사회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지원 체계 구축 문제와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의 방법

#### 1) 문헌연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의 파악과 정책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구, 진학 및 취업 상황 등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근 생산되고 있는 북한이탈 청년들의 자기 경험과 삶을 회고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자서전 등을 검토하여 이들이 자기 경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북한이탈 청년의 사회 및 직장생활을 다룬 연구물과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 2) 설문조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학 및 취업 실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진로 주체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들의 진로상황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

하였다. 청소년들의 경우, 조사는 정규학교,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학생을 모집단에 비례해서 300명을 표집하였다. 현장전문가의 경우, 정규학교, 한겨레학교, 대안학교 이외에 복지관, NGO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한 업무 중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100명을 임의로 할당 표집하였다. [표 I-1 참조]

<표 I-1> 설문조사 대상자

구 분		모 집 단	표 본(청소년)	표 본 (현장전문가)
정규 학교	중· 고	352명	100명	40명
	대	355명	100명	10명
한겨레학교		119명	50명	10명
대안학교		102명	50명	15명
복지관		-	-	10명
NGO		-	-	15명
		928명	300명	100명

### 3) 심층면접조사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일부, 하나원, 보건복지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교육부, 교육청 등 20명 내외의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내용과 그것의 실제 작동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사회에서 청소년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진학 및 취업 경험을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형성과정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대상은 우리사회에서 5년 이상 생활한 북한이탈 청년(25세-35세)으로 남한사회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다니고 현재 그 이후의 진로를 거쳐 직업을 가진 청년세대들이다.<sup>3)</sup> 회고적 심층면접 대상의 특성은 <표 I-2>과 같다.

3)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집단적으로 구성하여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표 1 -2> 회고적 심층면접 대상의 특성

구분	남자(6명)	여자(4명)
1.연령	25~28세	22~39세
2.북한 첫 탈출연령	15~17세	10, 18, 22, 29세
3.중국거주기간	3~5년	4년:2명, 1년 이하:2명
4.남한입국시기	2001~2003년	2002~2005년
5.한국생활경력	6년차:2명, 7년차:3명, 8년차:1명	7년차 3명, 3년차 1명
6.북한에서의 수학	인민고등학교 중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민초등학교 졸업 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민고등중학교 졸업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치의대 중퇴 1명
7.남한에서의 수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고등학교 졸업 5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등검정고시 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6명 중 대학진학 3명 (2명 재학中, 1명 졸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초등검정고시 패스 1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등학교 졸업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총 4명 중 대학경험 3명 (1명 졸업, 2명 재학中)
8.현재 가족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연고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가족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가족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가족 2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부가족 2명
9.현재 직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케이블방송국AD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요식업소 및 건설업 (현재 실직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통회사 직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이면서 요리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이면서 경호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치원교사 - 북한이탈청소년센터 지원교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정규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학생(2명)
10.주거지역	서울 3명, 경기도 2명, 충남 1명	서울 3명, 경북 1명

연구대상자 접촉에 있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어려웠던 이유로 인하여 여성의 경우, 연령의 폭이 크고 대학생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37세의 한국생활 10년차인 남자를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사람의 경우, 남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재학 중이며 현재 임시직 공무원이다. 회고적 심층면담은 내러티브 인터뷰 방식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내러티브 인터뷰 (Narrative Interview)

면담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잘 알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접촉하였다. 이 시민 활동가들은 연구자가 예전에 약 3년 동안 북한이탈 유아, 청소년, 부모들을 연구할 때 인연을 맺었던 분들로 연구자와는 지속적인 신뢰관계가 있었던 분들이다. 연구 참여자 중 1-2명은 연구자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

면담질문은 공통된 요소를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작성하였다. 공통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월경계기, 중국에서의 생활, 남한사회 입국 초기 생활(하나원), 거주지에서의 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 대해 질문하되 각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특히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질문을 하였다. 처음 한두 명과의 면담 시에는 시기별 시간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은 결과, 초반부(북한과 중국에서의 생활) 생활이 구체적이고 이후 남한에서의 학교와 직장생활이 덜 구체적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기부터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변화의 계기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각 시기마다 본인이 무엇을 경험했고 학습했는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유인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질문은 반구조적이어서 참여자(면담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 갔으며 그 결과 상호 대화적인 이야기가 생성되게 하였다. 대화 중 참여자(면담 대상자)가 제기한 또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질문들을 생성해가며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몇 년 전, 3년 동안 북한이탈 유아, 부모, 청소년들을 연구한 경험과 그 시기에 북한이탈 아동을 위한 공부방에서 수학 자원봉사 교사로 일한 경험을 활용하여 면담 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객관적 청자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청자의 역할을 하였다. 적극적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그들의 삶에 근접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회고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또한 그들과 함께, 다시 이야기 되는 삶에 ‘해석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면담 기법은 내러티브 탐구 기법을 연구자가 활용한 것으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고(story telling) 이를 다시 이야기함으로써(retelling story) 경험에 대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단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기술하려는 차원을 넘어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뜻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면담을 수행할 때 보조 연구자와 함께 했는데, 보조 연구자 역시 북한이탈유아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고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교사 경험 6개월, 북한이탈 아동을 위한 초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지도교사 3년 경험이 있는 자로 연구자와 오래 같이 일해 온 사람이다. 보조 연구자도 필요에 따라 격의 없이 대화에 참여하였는데, 보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을 연구자보다 잘 알고 있어 회상 및 기억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보다 상호적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였다.<sup>4)</sup> 한 연구자당 면담 소요 시간은 2-3시간이 걸렸고, 면담 후 식사시간 까지 합치면 4-5시간 정도 시간을 함께 보냈다. 면담내용은 사전에 허락을 얻어, MP3로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단 한 명의 경우만 녹음을 거절하여 필드노트에 기록하였다.

## (2)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인당 면담이 1회라는 한계와 연구방법 상 심층면담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이미 면담을 실시한 사람들 중에서 경험이 다양한 세 사람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의 대표적 연구방법인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에서 얻기 어려운 자료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관점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심층인터뷰와 연결하여 활용할 경우, 개인 인터뷰 자료로부터 분석된 자료를 다양한 관점으로 명료화할 수가 있다(Morgan, 1988).

4)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이민어린이들을 대상으로 4년 후 시점에서 회고적 연구를 한 Igoa(1995)는 자신이 활용한 dual dialogic retrospection 연구방법에서, 자신의 기억을 참여자가 연결하여 회고하여 이야기 하고 또 참여자의 기억을 단서로 자신이 이야기를 연결하여 함께 협력, 참여 하는 연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는 세 명으로 학업진로와 직업경험이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했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 A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아는 관계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다시 말해, A와 B가 알고 B와 C는 아는데, A와 C는 모르는 사이였다. 인터뷰는 A의 집에서 약 3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서로 다른 시각이 드러나고, 참여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논의가 심화되었다. 연구자는 개인별 인터뷰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한 후 자료들로부터 공통되게 도출되는 주제들에 대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심화된 논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협동연구 실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학 및 취업기회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분석을 위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 한양대학교 다문화센터 등과의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 진학과 취업에 관한 연구제안서를 접수받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수행여부를 결정하였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별책 보고서 참조). 한양대학교 다문화센터는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실태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별책 보고서 참조). 협동연구는 실행계획서 제출 후 6개월간 동안 수행되었으며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 5) 전문가 자문, 워크숍 및 국제포럼 개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실태 조사에 관한 설문지 작성과 조사결과 분석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관련 전문가 15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회를 2~3회 실시하였다. 이주가정 청소년의 진

로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무지개청소년센터, 국제이주기구와 함께 호주, 독일, 북유럽, 대만 등 해외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6월 중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Ⅱ.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 및 정책·제도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2.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 및 제도 현황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의 실행과정  
및 문제점



## II.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및 정책·제도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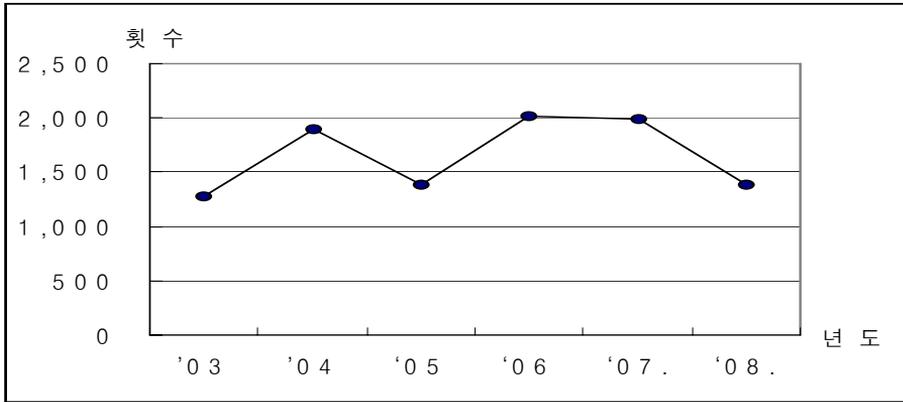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및 거주 현황

2007년 10월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국 현황을 보면, 10세 444명, 10-19세 1,511명으로 총 1,955명이 입국하였다. 20-29세까지를 포함하면, 청소년 입국자는 총 5,21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입국자 11,696명 중 10-19세의 경우에는 16.7%, 10-29세의 경우에는 44.6%에 해당한다. [표 II-1 참조]

<표II-1> 연령별 입국 현황

(단위: 명)

구 분	10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계
'02까지	145	436	1,004	933	330	162	119	3,12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	69	247	493	644	260	85	96	1,894
'05	40	184	374	475	187	53	70	1,383
'06	84	259	527	688	258	73	130	2,019
'07.10	60	224	514	707	327	73	85	1,990
'08.3	47	126	366	461	258	55	70	1,383
누계	491	1,637	3,623	4,355	1,780	558	635	13,079



<그림 II-1> 연령별 입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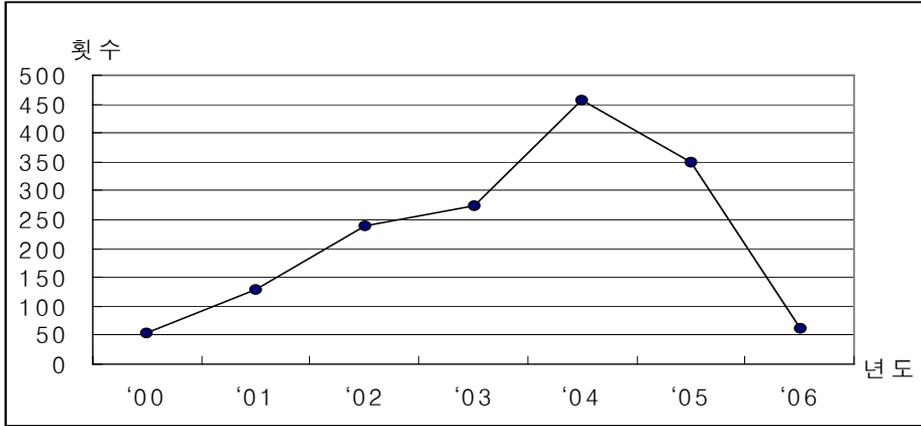
2006년까지 북한이탈 25세 이하 청소년 입국자는 총 1,6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19세 이하의 남자 448명, 여자 439명으로 총 887명이 입국하였으며, 20-25세는 남자 354명, 여자 374명으로 총 728명이 입국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 와 같다.

<표 II-2> 청소년 연령별 입국 현황

(단위: 명)

구 분		'99 이전	'00	'01	'02	'03	'04	'05	'06	계
19세 이하	남	22	11	33	72	71	121	102	16	448
	여	16	13	36	62	68	126	98	20	439
20~25세	남	8	14	39	61	68	110	48	6	354
	여	4	16	22	44	68	99	102	19	374
계		50	54	130	239	275	456	350	61	1,615

\* 출처: 통일부



<그림 II-2> 청소년 연령별 입국 현황

청소년 입국자를 학령기별·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1,615명 중 0-6세는 남자 36명, 여자 46명으로 총 82명, 7-13세는 남자 145명, 여자 135명으로 총 280명, 14-20세는 남자 314명, 여자 321명으로 총 635명, 21-24세는 남자 307명, 여자 311명으로 총 618명을 나타냈다. [표 II-3참조]

<표 II-3> 학령기별 · 성별 인원 현황

(단위: 명)

연령 성별	0~6	7~13	14~20	21~24	계
남	36	145	314	307	802
여	46	135	321	311	813
계	82	280	635	618	1,615

\* 출처: 통일부(2006).

북한이탈 입국자의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0월, 총 10,828명 중 서울 36.3%(3,933명), 경기(23.5%), 인천(8.9%) 등으로 6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4> 와 같다.

<표 II-4> 지역별 거주 현황

(2007년 10월,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원	3,933	2,543	962	335	234	359	142	550	208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280	306	278	293	166	184	55	10,828명	

\* 위 통계는 사망·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2008년 3월 중순,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강원
인원(명)	4,454 (35%)	2,939 (23%)	1,159 (9%)	373	280	377	161	603	263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343	387	337	365	191	242	78	12,55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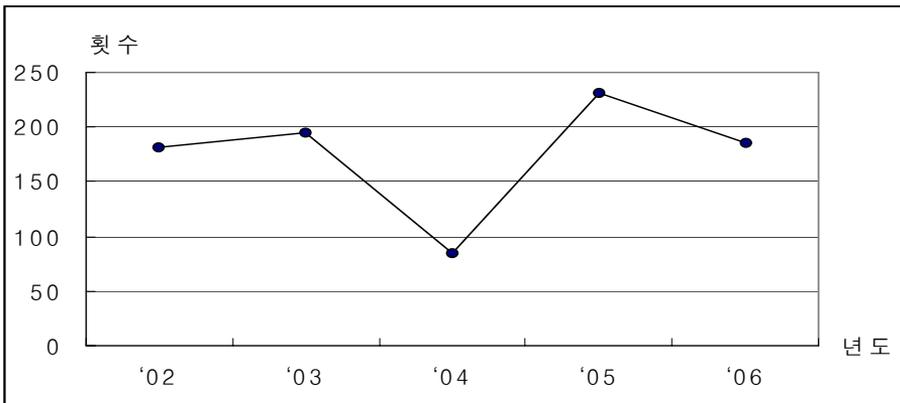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학 현황

최근 5년간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학교 취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3년 초등학교 입학자는 148명이었던데 비해, 2006년에는 7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입학자의 경우에는 2002년 21명에서 2006년에는 7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입학자는 2002년 18명에서 2006년에는 10명으로 감소했다가 그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31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참조]

<표 II-5>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학교 취학 현황

구 분	'02		'03		'04		'05		'06	
	입학	퇴학								
초등학교	143	-	148	1	25	-	136	1	79	3
중학교	21	4	37	5	36	2	71	17	76	5
고등학교	18	2	10	3	24	-	24	5	31	2
계	182	6	195	9	85	2	231	23	186	10

\* 출처: 교육부.



<그림 II-3> 북한이탈 청소년의 국내 학교 취학 현황(입학)

중도탈락자의 경우에는 특히 2005년에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도에는 10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 현재 중도 탈락생은 7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도탈락자의 경우에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검정고시, 질병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규학교 재학률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초등학교 93.8%, 중고등학교 49.3%, 전문대이상 58.1%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대부분 초등학교에는 다니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6> 와 같다.

<표 II-6> 북한이탈 청소년(7세~24세)의 정규학교 재학 현황

(2006년 7월)

학교급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한겨레 49명	초중고	전문대이상	계
재학생수	270명	303명	573	355명	1,501
교육지원대상	288명	615명	903	611명	2,417
재학률	93.8%	49.3%	63.5%	58.1%	60.7%

\* 출처: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4월)

구분	한겨레학교	일반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민간단체	합계
		초	중	고		
인원(명)	85	341	181	80	328	1,015
		602				
교육분담율(%)	8.4	59.3			32.3	100
교육기관 수	2	113	91	52	18	276
		25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민간시설에서 보호·교육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을 살펴보면, 2006년 7월 15개 민간단체에서 261명을 보호·교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방·아동센터·생활공동체 등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안학교·대안교육이 105명, 야학 30명, 특성화고 5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7 참조]

<표 II-7> 민간시설 보호·교육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대안학교/ 대안교육	공부방/아동센터 /생활공동체	특성화고	야학	직업훈련 시설	계
시설수	5	7	1	1	1	15
인원	105	119	5	30	2	261

\*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표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7년~2004년 사이의 입국자 중에서 취업률은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면 70.3%,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85.3%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8> 와 같다.

<표 II-8>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실업률

조사년도	주관 단체	조사 대상 (경제활동인구)	취업률	실업률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	'97~'04년 국내입국자	70.3%	29.7%
2005	통일연구원	'97~'04년 국내입국자	85.3%	14.7%

국내 입국자의 약 57% 이상이 최근 3년 이내 입국하여 현재 직업훈련중이거나 구직중인 사람이 많으며, 남북 간 체제 격차로 인하여 국내 입국 초기 우리 사회 적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형태를 보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2005년 고용형태에 대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정규직이 24.5%, 비정규직이 27.9%, 일용직이 47.6%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9 참조]

<표 II-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형태

항목			성별		계
			남	여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73	41	114
		성별내(%)	34.3%	16.2%	24.5%
	비정규직	빈도	64	66	130
		성별내(%)	30.0%	26.1%	27.9%
	일용근로자	빈도	76	146	222
		성별내(%)	35.7%	57.7%	47.6%
계	빈도	213	253	466	
	성별내(%)	100.0%	100.0%	100.0%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취업 및 그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진경 외, 2005).

자격증과 관련하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격인증에 필요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통일부, 2006). 직업 훈련 및 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거주지역’인근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며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06).

북한이탈 청소년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새터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직업훈련기관을 알선 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통일부, 2006). 그러나 직업훈련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길은배·문성호, 2003).

그 밖에도 2000년부터는 새터민 및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반(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북한이탈 성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이 제도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력이 낮을 뿐더

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 조항 때문이다(길은배 · 문성호, 2003).

## 2.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 및 제도 현황

### 1) 교육지원과 학력 인정

#### (1) 초기 적응교육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하여 5개 기관의 합동조사를 마친 후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하나원에서 8주간의 적응교육을 마친 후에 주거지에 정착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해서 거주지에 편입하기까지 다음 <그림 II-4>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표 II-10>과 같이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현재 입국자의 80%를 차지하는 여성의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의 도덕관 확립 교육을 강화하며,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sup>5)</sup>

5)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2009년도 하나원 교육운영계획 검토(안)” (2008.6.27)

### 【입국지원 단계】

#### 북한이탈주민 발생 (해외·국내)

- 재외공관 및 관련기관에 보호신청



#### 조사 (정부합동기관)

- 정부합동 조사 (조사종료 후 관련기관에서 통일부에 보호 요청)



### 【시설보호 단계】

#### 보호결정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



#### 사회적응교육 (통일부)

- 「하나원」에 입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각종 사회적응교육 실시(8주)



### 【거주지보호 단계】

#### 사회편입 (통일부·노동부·지자체·경찰청) & 민간단체의 지원

- 자립·자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정착지원제도 적용)  
: 정착금, 주거, 교육, 취업, 사회보장(생계급여, 의료), 정착도우미
- 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 담당관 지정
-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전국 16개지역)
- 정착도우미제 실시(대한적십자사, 지역복지관)
- 지역단위별 및 범지역별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정착지원 전반 및 특성화된 영역별 지원) - 60여개 민간단체가 활동

#### <그림 11-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흐름도

\* 출처: 김선화(2007).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 및 지원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새터민·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초급) 교재』, p.39

<표 II-10> 하나원 교육 내용 개요

(2007년 5월)

항목 구분	세부내용
<p><b>정서안정 · 건강증진</b> (27시간/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의 이해</li> <li>- 마음가꾸기 1·2·3 (자기이해 및 수용, 소그룹 집단상담,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li> <li>- 심리검사 해석상담</li> <li>- 상담시설 이용 안내</li> <li>- 보건진료</li> <li>- 건강관리법</li> <li>- 새천년건강체조</li> </ul>
<p><b>우리사회 이해증진</b> (89시간/3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의 권리 및 의무</li> <li>- 한국정치와 민주주의</li> <li>- 시장경제의 이해 1·2·3</li> <li>- 한국사 1·2·3</li> <li>- 관련국가의 역사 이해</li> <li>- 통일노력과 통일한국의 미래</li> <li>-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이해</li> <li>- 새터민 지원에 대한 이해</li> <li>- 한국문화의 이해 1·2</li> <li>- 생활정보찾기</li> <li>- 성교육 및 이성, 결혼, 가족</li> <li>- 생활법률 1·2·3·4</li> <li>- 지리 및 지역사회 이해</li> <li>- 남북한 언어 비교</li> <li>- 표준발음 연습</li> <li>- 외래어</li> <li>- 기초영어</li> <li>- 상용한자</li> <li>- 역사현장 탐방</li> <li>- 구매 체험학습</li> <li>- 남한가정 탐방/사찰생활 체험</li> <li>- 도시생활 체험학습</li> <li>- 봉사활동</li> </ul>

항목 구분	세부내용
<b>진로지도 · 기초직업훈련</b> (130시간/ 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적성·흥미 이해 1·2</li> <li>- 직업훈련·취업보호제도 이해</li> <li>- 취업관련법 이해</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해</li> <li>- 교육지원제도의 이해</li> <li>- 직업의 이해</li> <li>- 직종설명회</li> <li>- 직업가치관과 직업적응</li> <li>- 진로 희망 찾기 1·2</li> <li>- 정보화(컴퓨터)</li> <li>- 산업안전보건·교통안전</li> <li>- 직종별 직업훈련</li> <li>- 전문상담</li> <li>- 직업관련 현장 체험</li> </ul>
<b>초기정착지원</b> (34시간/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지원담당자 특강 1·2·3</li> <li>- 정착사례 특강</li> <li>- 수료후 안내 교육</li> <li>- 민간지원 내용 안내</li> <li>- 의료지원제도 이해</li> <li>- 원장과의 대화</li> <li>- 생활 안내</li> <li>- 교육훈련 안내</li> <li>- 입교식, 수료식</li> <li>- 호적, 정착금, 주민등록 안내</li> <li>- 입교 및 수료 설문, 수료 준비, 기초소양평가</li> </ul>
<b>자율, 보충 프로그램</b> (6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화 특강</li> <li>- 자동차 운전</li> <li>- 영어특강</li> <li>- 정착제도, 전담관 대화</li> </ul>

\* 출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2009년도 하나원 교육운영계획 검토(안)  
(2008.6.27)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거주지에 정착하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기별로 편차가 있지만 한 기에 대략 20-50명 정도의 초·중등학교 취학기 청소년들이 하나원에 입소한다. 하나원에 입소한 만 7-12세 연령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기별로 10명 이내이다. 만 12세를 초과한 청소년이라도 본인의 희망과 학력을 고려하여 입학 및 학년배치를 의뢰하고 있다. 이들은 삼죽 초등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오전에는 해당 학년에서 삼죽 초등학교의 남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며, 오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구성된 특별학급에서 별도 개발된 교재로 수업을 실시한다. 2008년 4월 25일에 하나원과 무지개센터 간 MOU를 체결하여 하나원에서도 자체적인 방과 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방과 후 교육과정의 경우 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프로그램 진행에 드는 예산은 하나원에서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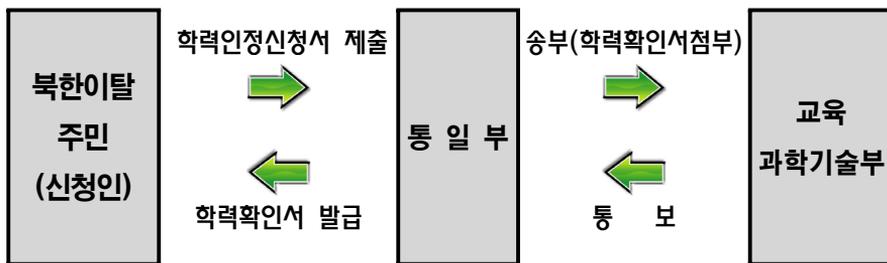
중등학교 취학기의 청소년들은 2006년 4월까지 하나원에서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2005년의 경우에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94시간, 기초학습 및 사회생활의 이해 155시간, 우리사회 적응력 배양 118시간, 초기정착지원 53시간 등 4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안성시 죽사면 칠장리 소재)가 개교함에 따라 2006년 5월부터는 하나원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는 “예비학교”라는 교육과정으로 하나원에서 위탁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초기 적응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예비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마음과 몸을 건강히 하고,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뿌리내릴 근본적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세부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주력한다. 둘째, 남한의 청소년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 기초 다지기에 주력한다. 넷째,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예비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국민공통 기본 교과와 사회적응 위주의 체험학습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하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첫째 주, 마지막 주에 진로상담, 정착지원제도 안내, 대안학교 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통학식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2) 학력인정 및 취학 지원

학령기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 초기 적응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인근의 학교에 배정된다.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는다.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학력인정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학력인정 절차

초·중등학교 학력 인정 및 취학 시 학년 배정은 2008년 5월 26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 97, 98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개정 이전에는 북한에서의 교육연한에 따라 학력 인정과 학년 배정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부분 장단기 학습공백을 경험함으로써 수학

연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자신의 연령보다 2-3세 아래 학년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하여 또래집단과 교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 북한에서의 교육연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일관된 원칙이 없이 이루어졌던 학력 인정을 북한에서의 교육연한, 수학 능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게끔 제도화한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배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학력인정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에 취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 제도에 의한 교육 실시, 고등학교와 국공립대학교는 교육비 전액 면제, 사립 대학교는 입학, 편입학 당시 35세 미만으로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한 지 5년 이내에 진학한 자에 대해 정부가 공납금의 반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지원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으며, 입학·편입 학기간은 사립대학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 제한은 2007년에 도입되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단,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단, 출석률이 80% 이상 등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3) 학교 적응 지원

학교에 취학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북

한이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지역 내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북한이탈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습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30만원/1년)을 지급하여 학업 보충의 기회 제공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북한이탈 학생 밀집지역에서 교원 등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도록 하는 교육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하였다. 교육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교육활동 지원, 상담, 지역교육청과 협의 및 보고, 제도 개선 협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 4월에 초중고 교사 250명으로 새터민 학생 교육지원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과 인성교육,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도교육청도 2007년 도내의 북한이탈 청소년 5명과 교사 간 1대1 결연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재 전국에서 5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새터민학생 교육지원 정책학교들은 특별교부금 1,0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도 2007년부터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2007년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현장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19개 연구회에 3억 가량을 제공하여 2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4)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지원

정부는 학력격차가 커서 일반학교 취학이 어려운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특성화학교로 한겨레중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2004년 7월 교육부가 “한겨레학교 설립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특성화학교 설립을 추진한 결과, 2006년 3월 1일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정원 140명 규모의 7개 학급(중학교 3개 학급, 고등학교 3개 학급, 취업 1개 학급)으로 만 13세부터 만 19세까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겨레학교를 임시 개교하였다. 한겨레학교는 1년 3학기제로 운영되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수개월에서 최장 2년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에 일반학교로 편입학하게 하는 디딤돌학교의 위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한겨레학교는 2007년에 정식 개교하여 2008년 3월 현재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68명, 총 119명 재학, 교사 19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통일부 하나원의 수용능력 부족과 교사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하나원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을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원에 입소한 청소년의 위탁교육도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교 밖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진로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현황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이들 민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1개 민간단체에 3억 원 가량을 지원하였다.

<표 II-11>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현황

번호	기관명	성격	위치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공부방	서울 노원구
2	한빛복지관	방과후공부방	서울 양천구
3	남북문화통합교육원 한누리학교	방과후공부방	영등포 양천구
4	다리공동체	그룹홈	경기 안산
5	꿈사리	그룹홈	서울 양천구
6	북한인권시민연합	프로그램형	서울 서대문
7	셋넷학교	대안학교	서울 영등포
8	여명학교	대안학교	서울 중구
9	지구촌고등학교	기숙형학교 학력인정	부산
10	하늘꿈학교	기숙형학교	천안
11	한꿈학교	기숙형학교	남양주
12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멘토링	서울 강서구
13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법정법인단체	서울 서초구
14	한겨레중고등학교	기숙형대안학교 학력인정	경기 안성
15	무지개청소년센터	프로그램형	서울 종로구

## (5) 지역사회 연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이 하나원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한 후에 이들을 지역사회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6년 4월에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인권과 지역에 기반을 둔 이주청소년 정착·통합 지원, 청소년 일반의 다문화 역량 강화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주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차원의 종합지원체제 구축과 확대, 이주청소년 및 다문화 관련 포털 사이트 운영,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한 인력 풀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등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는 통일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내의 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 2)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초기 직업 진로지도는 하나원의 자체교육 프로그램과 중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위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겨레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위탁교육은 교육의 전 과정이 한겨레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원에서는 별도의 직업진로지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겨레학교 예비교육과정에서는 “교육제도의 이해와 진로교육”이라는 과목명으로 주당 1시간씩 총 7시간의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전체 교육시간 294시간 중 2% 정도만이 진로직업교육에 할애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앞의 <표 II-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교육시간 중 46.4%의 교육시간이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에 할당된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 진로지도, 기초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인의 적성,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취업상담 및 취업정보제공, 직업훈련 지원, 취업지원(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새터민고용장려금 등)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훈련 및 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동부 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 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며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서울남부, 서울북부 등 새터민 밀집거주지역 관할 센터에서는 새터민 취업보호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하며, 직업훈련기관에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편입 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 전담인력의 지도 아래 총 3회 동안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때 다음 <표 II-12>와 같이 직업훈련에 따르는 훈련비와 각종 훈련수당이 지원된다.

2005년을 기점으로 통일부는 정착지원제도의 효율성과 노동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제도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05년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정착금을 기본금과 장려금(직업훈련, 자격취득, 장기취업)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정착의지에 따른 인센티브형 지원체도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취업장려금을 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3년차 400만원에서 각각 450, 500, 550만원으로 증액·조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장려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지급기준	금액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 ~ 12개월	개월×20	
	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6개월 이상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 직종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 (최고액) 2,140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및 15세 이상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반(70만원 이내)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지원기간을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학연령기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3) 관련 법령 현황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해 별도로 규정해 놓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법령에서는 원칙과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각 부문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학력인정 문제는 다음 <표 II-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표 II-13> 학력인정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98조의 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8조의3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 제1항 제2호,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70조 (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육성, 복지, 보호, 인권보장 등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책임은 청소년 본인,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단체가 지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할 때, 북한이탈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북한 출신으로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차별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은 “특별청소년”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의 근거를 제시한다. 청소년복지법이 규정하는 특별청소년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이 법률은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이 종료된 북한이탈 청소년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기초적인 성장과 사회·경제적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II-14 참조]

---

## 청소년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 (청소년의 인권보장) ①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③ 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보호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법령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 별도의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법의 체계 내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일반법의 체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일반화’는 이들의 사회적응 실패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지원제도를 통해 집중 지원하여 안정적 적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up>6)</sup>

한편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령은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만

---

6)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 11: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정책제안서”, 2008.6.25.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는 현재 총 66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분과, 지역복지분과, 정착지원분과, 해외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분과에는 공릉복지관, 꿈사리공동체,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대구KYC, 여명학교, 자유터학교, 셋넷학교, 우양재단, 한꿈학교, 우리집, 북한인권시민연합, 지구촌고등학교, 하늘꿈학교, 열린사회양천시민연합,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다.

20세 이상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그룹홈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등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한 각종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탈북 기간에서의 학습공백과 심리적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사회적 독립이 쉽지 않은 무연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를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3.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정책의 실행과정 및 문제점

#### 1) 정부 내 북한이탈 청소년 업무 관련 조직체계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원 업무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4개 부처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각 부처간의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교육 및 진학과 관련된 업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 조직 개편 이전에 청소년위원회가 담당했던 북한이탈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노동부는 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이다. 정착지원과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하나원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교육기획과, 교육훈련1과, 교육훈련2과, 관리후생과의 4개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정착하기 이전 2개월간의 기초교육과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정착지원과나 하나원에서 성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실지로 하나원 내에서 청소년 지원 업무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여,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있지만 이 담당자 역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의 전담자가 아니라 여러 업무 중 일부로 이를 다루고 있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sup>7)</sup> 이에 필요시에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타 부처의 북한이탈 청소년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과 사업을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예산, 인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지방에 별도의 실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로 배치된 이후에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접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을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급증하는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통일부에 편성된 예산의 증가율을 미미하여 지원 사업의 확대나 개선에 근본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직업교육국 잠재인력정책과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를 담당한다. 조직개편 이전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지원 업무는 교육복지정책과에서 담당했으나, 교육복지와 관련된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과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복지정책과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재인력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sup>8)</sup> 현재 이 과는 여성교육정책(양성 평등, 여성 관련 지원 업무), 지역인적자원개발(시·도지사제 인적자원 개발 지원), 교육 복지 쪽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지원 업무, 취업 복지 지원 업무, 군 인적자원개발 지원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sup>9)</sup> 실질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7) 통일부 간담회, 2008.4.21.

8) 교육부 담당자 5.8 간담회.

9)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잠재인력개발과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인재개발 정책 수립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공간 협력사업 조정·지원, 시·도 인재개발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시·도의 지역인재개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지역단위 학습·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역단위 인재개발 협력에

2007년까지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 지원 정책 수립과 운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일부와 협의하여 주도해나갔다면 2008년부터는 전반적인 교육의 자율화와 분권화 추세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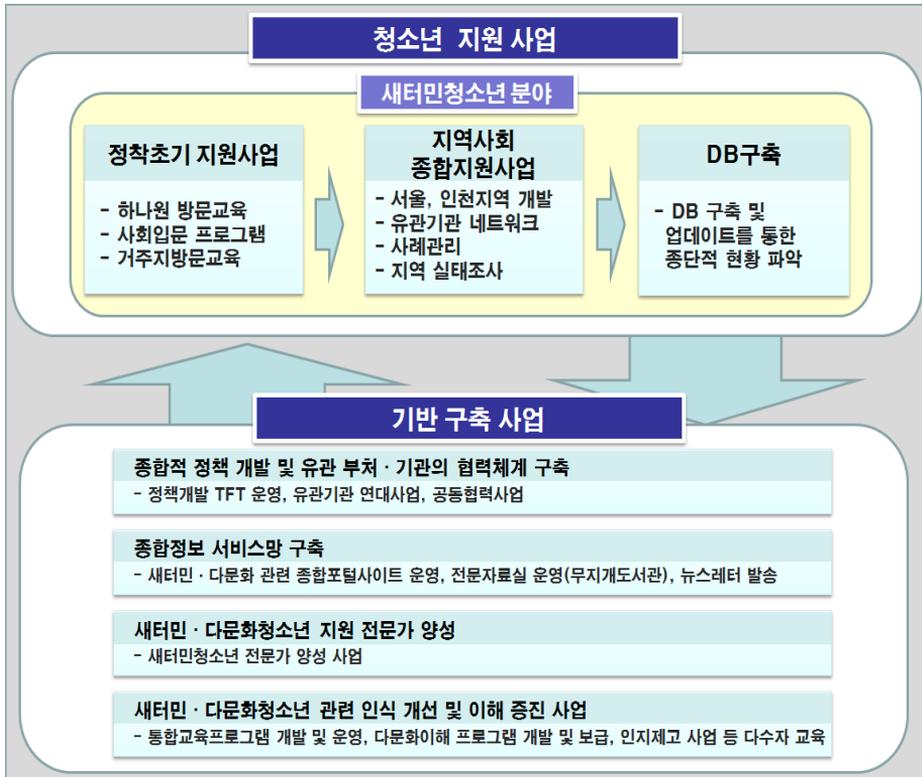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담당 직원이 청소년상담원 관련 업무, 상담자 자격검정 및 연수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없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중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다.<sup>10)</sup> 보건복지부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는 2006년 4월에 청소년위원회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주로 담당한다. 무지개청소년센터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큰 틀에서 이주 청소년의 일부로 보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종합지원사업, 정보서비스 사업, 북한이탈 청소년 지역사회지원망 모델 연구 등 정책 개발 및 연대사업, 초기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가 양성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의 [그림 II-3]과 같다.

---

관한 사항, 지역단위 인재개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별 인재개발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무형문화재·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그 밖에 지역단위 인재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http://www.mest.go.kr/ms\\_kor/chember/life/intro/index.jsp?ifrmUrl=http://www.mest.go.kr/cms\\_main.jsp?idx=0408010101&mode=included&select\\_flag=1341047&depth=3](http://www.mest.go.kr/ms_kor/chember/life/intro/index.jsp?ifrmUrl=http://www.mest.go.kr/cms_main.jsp?idx=0408010101&mode=included&select_flag=1341047&depth=3))

10) 보건복지가족부 간담회, 2008.4.25일



<그림 II-6>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실 직업능력개발지원과와 고용서비스지원과에서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진로지원 업무가 별도로 분화되어 있지는 않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지원과 관련된 기본 정책 개발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고,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지원 실행 업무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처에서도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사업을 중심에 두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간의 상시적인 협의 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인 북

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로 통일부 산하에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탈북자대책협의회가 있으나, 법규나 제도 개선과 같은 당면 안건이 있을 때만 가동되고 있다. 2008년 8월에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연구원 등 관련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소속 단체들의 토론회가 통일부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민관 연계체계가 제도화되어 운영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민간과 정부와의 협동적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거버넌스 상의 실패라고 보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한 정책협의체 강화를 넘어 정책개발, 관련부처의 정책조율, 민간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의 정립, 이해관계의 조정, 정책,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의 체계화를 수행하는 별도의 통합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11)</sup>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내에서도 담당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문제로 관련 부서를 접촉하는 학부모와 담당 교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다. 한 학부모는 “북한 사람이 어디 맥줏집 간판도 아니고” “어느 날은 누가 맡았다가, 어느 날은 누가 맡았다가 정신이 없었다”면서 자녀의 교육 문제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sup>12)</sup>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관련 부처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책임감 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sup>13)</sup>

- 
- 11)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앞의 글.
  - 12) 학부모 1 사례(2000년 입국, 자녀 2명은 입국 후 각각 서울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 13) 교사 1 사례(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학교에 북한이탈 청소년 약 40명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나도 모른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열가지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일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업무가 짧게는 6개월, 길어봤자 2년이거든요. … 새터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자체에 있어서도 책임감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연락하면 자기는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정관료적인 언어소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제도가 집행 과정에서의 관료적 행정의 문제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사들은 멘토링제도를 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5월 9일에 200여명의 지원을 받아 ‘새터민학생 교육지원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멘토링 관계를 맺고 활동을 시작했으나 여러 달째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고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서 활동이 중단된 학교들도 있었다고 한다.<sup>14)</sup>

## 2) 초기(하나원 입소기) 진로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 진로지도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원의 수용능력 및 교육여건 등의 문제로 인해 중등학교 학령기의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 적응 및 진로지원은 한겨레학교가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거주지 배치 이전의 전 기간을 한겨레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하나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진로 관리 및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통일부가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초기 적응 기간 중 청소년들의 진로 지도는 물론 거주지 배치 이후의 진로연계도 한겨레학교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렇지만 한겨레학교가 북한이탈 청소년 위탁 교육에 관해 통일부에 보고하거나 통일

14) 교사 1 사례, 교사 2 사례(서울지역 사립중학교 교사, 학교에 북한이탈 청소년 약 5명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부의 평가를 받을 의무는 없다. 통일부에서는 한겨레학교에 위탁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한겨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진로지도에 대해 개입할 권한은 없는 상태이다.

중등교육 학령기 북한이탈 청소년의 전원 위탁교육은 한편으로 한겨레학교에 운영에도 부담을 초래한다. 현재 위탁인원은 130명 정도인데, 통일부는 위탁인원의 식비와 교육재료비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겨레학교가 “희생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맡고 있는 상황을 통일부는 고마워해야 할 상태”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한겨레학교에도 학생들의 진로상담을 담당할 전문 상담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의 진로관련 측정과 진로상담, 진로지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한겨레학교 측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입국 증가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재검토, 정부의 학교설립 기본계획 불이행으로 인한 학교 운영 차질에 대한 대책 강구, 교사 업무과중 해소 및 생활안정, 교사 직무연수기회 확대, 학생 기초학습부진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한겨레학교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 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또한 한겨레학교의 위상과 지향성의 문제를 초래한다. 한겨레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제도권 안의 특성화 학교, 전환기 학교의 위상으로 출발하였다. 즉 연령차이나 학력차이가 커서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이나 무연고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맞춤형으로 교육하여 거주지 내의 일반학교에 취학하거나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하나원의 교육 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중등학령기 청소년이 전원 한겨레학교에 위탁되면서 현재는 위탁·정규교육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가 디딤돌 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거주지 정착 이후에 교육을 받을 지역의 학교 및 교육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학생들의 교육 및

15) 한겨레중고등학교, 『학교운영현황』, 2008.3.

정서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진로지도 관련 내용들이 이후 단계의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등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 여기서 공부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문화의 다양한 경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16)</sup>. 한겨레학교는 통합교육 취지 실현을 위해 일정기간 적응교육 후 일반학교 편입학을 지향하는 디딤돌학교 모델로 무연고 청소년과 중도탈락자 대상의 교육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자는 취지였으나 위탁교육 종료 후의 진로지도 과정에서 대다수가 일반학교보다 한겨레학교에 남기를 희망하고, 일단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한겨레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 초기의 위상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탁교육이 하나원 재원 시 다른 교육지원 단체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들 간의 경쟁 상황 속에서 한겨레학교가 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타성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을 하는 다른 교육기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겨레학교의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관한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은 전원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가능한 대안은 하나원에서 주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거주지 배치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진로연계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 통일부는 그 과도기적 조치로 2009년 한겨레중고등학교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탁하되 부분적으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면서 관련 단체와 연계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한 가지 방안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경험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교육을

16) 조영아(2008). “새터민청소년 교육방향모색”, 『이명박정부의 새터민정책방향 모색』, 제8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pp.21-32.

의뢰하되 한 기관이 아닌 여러 기관을 선정하여 분산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실질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학교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선정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하나원 내에서 이를 전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내 북한이탈 청소년 전담인력이 보강되어야 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 원활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팀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하나원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민간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인근 지자체에서 위탁교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기간 중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기관의 종교적 편향성 역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초기 정착 교육은 교육인프라의 전체 틀 속에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기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수행해야 할 심리적 안정, 남한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주소지 학교 배정 시 학년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기초자료의 생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소지 배정 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최근에는 부모가 먼저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하나원을 거치지 않거나 조기 퇴소하여 바로 지역사회와 학교에 편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원에서 초기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 재학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기퇴소 청소년이나 비보호 청소년들에 대한 기초적응 프로그램은 전무한 형편이다.

17) 이향규(2008).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 교육.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15.

### 3) 학력인정과 학교 배치

북한이탈 청소년 학력인정 기준에 관해서는 크게 보아 연령과 학력 또는 수학능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점에서 상반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한 가지 입장은 연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연령 차이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부적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연령을 고려하여 지역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학교에서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내면화하고 기초문제능력을 갖는 것이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sup>18)</sup>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만 기초학력 위주의 학급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나고,<sup>19)</sup> 실지로 난민 아동 청소년들에게 본국에서 받은 학교교육 연한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면, 새로운 사회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는 매우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식전달만이 아닌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화 기능 역시 학교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수한 보호기관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주류사회의 일반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일반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반 지원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 된다.

또 다른 입장은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학력과 수학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학년 배치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학력차이로 인하여 학습동기가 상실되어 오히려 새터민 전체 학생들을 교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염려”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지원 없이 준비가 안 된 남한의 교

18) 이향규(2008). 위의 글, p.13.

19) 이수정(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지정토론편.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65.

육현장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sup>20)</sup>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재 남한의 일반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합교육은 원칙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만을 강조할 경우 이것이 오히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학력’을 인정해 줄 뿐 ‘학습능력’을 고취시킬 대안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남한 땅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민간의 북한이탈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학년과정을 캐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이외에도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하는 문제, 대안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관을 인정하는 문제, 학생 본인의 의지나 적성을 고려하는 문제 등도 학력인정에 있어 쟁점이 될 수 있다. 학교급과 학년 결정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 하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학력심의 위원회에서 학교급을 결정하고 해당 학년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담당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안과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과 학년을 모두 결정하여 기준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안이 있을 수 있다.<sup>22)</sup>

2008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연한만을 기준으로 학년을 배정할 때 발생하는 남한 학생들과의 연령차이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방안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학력, 연령, 수학능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학력 인정이 이전과 큰 차별성 없이 실행될 가능성

20) 조명숙(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지정토론문.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48.

21)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앞의 글.

22) 박찬석(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의 쟁점과 방향”.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25.

도 있으며, 16개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각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도교육청 장학사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역시 다양한 업무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는 한 시·도에서 어떠한 판례를 보일 경우, 그 판례가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거주지역이나 진로와 관계없이 학력인정이 용이한 지역이나 학교에 지원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23)</sup>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준을 결정하여 각 지역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행정 수행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배치가 될 경우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각 학교 및 지역 단위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력인정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로 진학과 연결되지 않은 학력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력 인정의 경우 학력인정의 법적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 학년 배정은 하면서 학력 인정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진학이 아닌 자격증 취득

23) 박찬석은 학력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박찬석(2008). 위의 글, p.25.)

배점 기준	위원회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수학 기관에서의 수학 기간</li> <li>☑️ 현재의 연령</li> <li>☑️ 제3국에서의 수학기간</li> <li>☑️ 한국의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기간</li> <li>☑️ 개인의 능력, 희망, 의지</li> </ul>	<p>학력심의회위원회는 배점 기준을 정하여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인정과 인정보류, 불인정을 정할 수 있음.</p>

이나 취업의 조건으로서 학력 인정을 받으려 할 때, 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한 공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시험응시자격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누가 인정하느냐가 논란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들의 학력 인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력 인정 심사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북한의 초·중등교육기관 졸업 시 남한의 초·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수한 교육연한만큼만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4) 학교 적응 지원과 진로 지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역의 학교에 편입되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는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기 정체성의 공개 문제는 이후 학교생활에서 교우 관계나 사회문화적 적응, 자기긍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학부모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맡겨지거나 학교장, 담임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많이 재학하고 학교 전체 분위기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학교는 북한 출신임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남한 학생들의 따돌림을 우려하여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학부모는 2000년 입국하여 당시 만11세였던 자녀를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여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한 학기 간 다니도록 한 후 언어와 문화적 면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거주지 학교로 전학을 시켰다고 한다. 이는 전학 간 학교에서 자녀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sup>24)</sup>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임을 밝히는 것이 학생 자신과 부모에게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북한출신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교 적응과 적극적인 진로 모색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북한이탈 청소년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이다. 북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6년제로 운영되며 중등교육 수준에서 인문계열과 실업계열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 학생을 제외하면 중등학교 수준까지는 진로를 결정해야 할 일이 없다. 대학 진학도 10% 이내의 학생들만이 중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진학 시에도 원하는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추천권이 학교별로 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희망이 반영되는 폭이 좁다. 중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에도 원하는 직장을 선택해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체제 하에서 생활해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이 학업 및 직업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로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학특례입학 제도는 이들이 자신의 장기적인 진로희망이나 학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24) 학부모 2 사례(2000년 입국, 자녀 1명은 입국 후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배정).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한 중학교 교사는 진로선택과 관련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sup>25)</sup>

진로지도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대학가고, 잘 졸업하고 취직하면 된다는 쉬운 생각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보다 백배, 천배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아이들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냥 정부에서 해주겠지라는 측면이 있고, 그런 잘못된 사고가 부모님들도 있어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아이들보다 우리는 대학가기 쉬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고, 학부모들도 전문계 고등학교를 권유할 경우에 “왜 선생님이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이끄냐고 하고 역정을 낸다”는 것이다. 반면 먼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한 선배 청소년이나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은 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눈을 뜨”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26)</sup>

대부분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개인에게 맡겨지는데 이들에게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와 관련된 정보나 교육과정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에 대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들의 경우에는 “공식적 업무 이외에 봉사적으로, 희생적으로” 지도를 하지만, 일반적인 교사들은 “특별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sup>27)</sup>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교사 개인의 열성과 헌신에 기대지 말고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공식적인 업무

25) 교사 2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26) 교사 3(경기도 지역 중학교 교사, 학교에 북한이탈 청소년 약 5명 재학)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27) 교사 1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 학부모 3 사례(2003년 입국, 자녀 1명은 입국 후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배정).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로서 인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은 현재는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에 헌신적인 교사가 전근을 가면 그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계인데,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 업무를 학교의 공식적 업무로 보고 전담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도화한다면 해당 학교 내에서는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28)</sup>

북한이탈 청소년이 배치된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밀집 지역의 학교에는 일정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리적 불안정과 육체적 건강상태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 청소년 실태를 감안하여 심리적 안정과 상담, 진로지도 등과 같이 개별 학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의 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학력 보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바우처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그런데 문화체험이나 행사 참여와 같은 경우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들끼리만 특정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형태보다는 일반 학생들과 함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또한 또래 학생들과 체험활동을 함께하면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도 더욱 크다. 그런데 북한이탈 청소년의 숫자에 따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지원 제도로는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들과 일반학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통합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연구학교에 근무했던 어느 교사는 전체 교사수가 90명이 넘는에도 북한이탈 청소년이 18명이어서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18명분을 받았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안 받았을 때는 이게 어떤 가치적인 일로서 다 같이 동참하자는 게 통하는데, 가치적인 것이 통하

28)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더라도 현실적으로 너는 받고 나는 안 받는 상황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sup>29)</sup>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은 그들 개개인이 남한의 학교 체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남한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총체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 5) 중도탈락 학생 대책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에 비해 낮은 취학률과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화된다. 2007년 4월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102.3%, 중학교 68.7%, 고등학교 58.0%이다.<sup>30)</sup>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학교 중퇴 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는 검정고시 및 학원(73.7%), 취업(10.5%), 기타 (15.8%) 등으로 나타났다.<sup>31)</sup>

<표 II-15> 북한이탈 청소년의 중도탈락률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6학년도 (06.3.1~07.2.28)	2.8%	10.1%	12.8%
2007학년도 (07.3.1~08.2.28)	3.5%	12.9%	28.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미취학 및 중도탈락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생점이 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위탁교육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일반학

29)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30) 학교급별 취학적령 기준 새터민 수와 학교급에 관계없이 재학중인 새터민 수의 비율임. (<http://saetermin.moe.go.kr>)

31) 정진경·정병호·양계민,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웰컴투 코리아』, 2006.

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 청소년 중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적(學籍)은 원래 학교에 두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교육기관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탁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민간 차원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sup>32)</sup>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교육은 학사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매우 복잡한데, 적은 인적 자원과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들은 현실적으로 복잡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업무가 간소화되거나 이를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위탁교육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지역 내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소수인 지방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다수가 재학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교육적 지원이나 주변의 지지가 적어 위탁교육에 보내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일반학교의 부응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위탁교육을 받고자 해도 적절한 위탁교육을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타 지역의 학생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위탁 교육기관 지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 등을 비롯하여 위탁교육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경험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노하우를 살리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해서도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국한되어 있다. 민간교육기관이나 학교는 예

32) 조영아. 앞의 글, pp.21-32.

산 지원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결과 여러 단체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개발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산발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에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단위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실행하는 데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쟁점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의 학력인정 여부이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중 학력이 인정되는 곳은 한겨레중고등학교 뿐이다. 이를 제외하면 다른 대안교육기관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안학교가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력인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는 모두 학력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 안정적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대안학교 학력인정 관련 법규와 연계되기 때문에 대안학교 학력인정 관련 법규 전반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이에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단체들은 한겨레중고등학교 설립 시 적용했던 디딤돌학교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도입하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학력인정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3)</sup>

## 6) 대학 특례 입학

특례 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북한이탈 청소년 중의 상당수가 성적미달 등의 학업문제를 겪고 있으며 약 30%가 휴학·자퇴 등 심각한 상태이다.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북한 출신 대학생 재학 현황은 다음 <표 II-16>과 같다.

33) 조명숙(2008). 앞의 글, p.48.

<표II-16>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북한 출신 대학생 재학 현황

구분	연세대		서강대		외국어대		합계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입학생 수	43	52	21	36	52	59	116	147
재학생 수	16	28	13	23	26	30	55	83
휴학생 수	10	7	3	6	15	14	28	27
제적생 수	17	17	5	7	11	15	33	39
재학율	31.2	53.8	61.9	63.9	50.0	50.8	47.7	56.5

\* 출처: 하늘샘터(2006), 「탈북대학생 민간지지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의 탐색」 제3회 탈북포럼자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낮은 재학율은 합리적인 대학수학능력 평가와 입학기준의 부재, 북한출신 청소년의 고학력선호 현상 및 입학 전 진로상담 부재, 대학 내 학업지원 시스템 부재 등에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생존해 나가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 남한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경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남한 사회에서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교육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는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응시자 전원을 수용해왔으나, 2002학년도부터 자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재외국민 특별 입학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문제점으로 가장 지적되는 점은 대학 진학 및 진로설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지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남한 교육 수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학교와 학과 선택에서 혼란스러움과 난감함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지연, 혈연이 없기 때문에 학연이라도 맺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특별전형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한 경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학과 실질적인 학과 선택에 대한 진로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sup>34)</sup>

대학 본 과정 이수 이전에 예비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의 수강을 위한 기초 능력(특히 영어, 컴퓨터, 리포트 작성법 등)을 배양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대학입학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진로상담을 통하여 진학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본인의 학력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7) 취업 진로지도 및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과 관련된 진로지도와 지원은 특히 취약한 부분이다.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는 대부분 진학이나 학력 취득과 관련된 것이 많다. 중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자체가 취업보다는 진학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대학진학 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제도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원은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학원과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를 오가며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학업 및 직업 경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직업진로지원 프로그램인 Youth Employment Service,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Job-School,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이 직업진로의 탐색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실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터민취업보호담당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이나 진

34) 김지수 외(2008), 『새터민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로계획에 입각하여 직업훈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려금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한다. 새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새터민취업보호담당관 등으로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상담의 실효성은 낮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새터민취업보호전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훈련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내가 훈련을 받아서 취업으로 연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업훈련 장려금 때문에 오시는 거죠. ... 그 분들이 상담을 하고 하면 좋죠. 안 하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 받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고 하면 자기는 그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쪽으로 취업을 하겠대. ... 그렇다고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해서 그분들한테 100%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꼭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 저희가 상담을 한들 당시 그쪽으로 취업을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저희에게 표명하면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sup>35)</sup>

지속적인 직업진로 상담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직업능력 획득 이전에 긍정적인 자존감, 진로개발에 대한 동기 유발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진로개발이나 진로상담 프로그램 이수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진로상담이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업훈련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조율되고 편성되어 있지 않다”<sup>36)</sup>는 점 또한 직업훈련과 진로의 연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참가 현황을 보면 특정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Ⅱ-17>은 노동부의 2005년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직업훈련 현황 중 만 24세 이하의 직업훈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sup>37)</sup>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은 사무지원, 전기공사, 음식서비스, 미용서비

35) 고용지원센터 새터민취업보호전담관 면담, 2008.7.31.

36) 직업훈련·취업 분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 면담, 2008.7.15.

스, 정보통신응용 등의 직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7 참조]

<표 II-17> 북한이탈 청소년 직종별 직업훈련 현황

직종	전체 실시 현황		24세 이하	
	인원	%	인원	%
섬유가공	1	0.13	0	0
의복제조	3	0.39	0	0
봉제	74	9.74	1	1.04
위험물·가스취급	3	0.39	0	0
기계가공조립	2	0.26	2	2.08
설계제도	2	0.26	1	1.04
기계장비정비	14	1.84	4	4.17
기계장비운전	15	1.97	1	1.04
용접판금배관	46	6.05	5	5.21
건축	64	8.42	0	0
전기공사	64	8.42	11	11.49
전자설비제어	3	0.39	1	1.04
전자조립수리	17	2.24	4	4.17
통신설비운용	22	2.89	2	2.08
프로그래밍	6	0.79	1	1.04
데이터베이스	4	0.53	0	0
정보통신응용	27	3.55	7	7.29
디자인개발	1	0.13	1	1.04
산업응용	1	0.13	0	0
귀금속공예	1	0.13	0	0
음식서비스	111	14.61	8	8.33
관광숙박서비스	1	0.13	0	0
미용서비스	50	6.58	8	8.33
재무및경영	30	3.95	3	3.13
판매사무	25	3.29	5	5.21
사무지원	163	21.44	30	31.25
의료보조	10	1.32	1	1.04
계	760	100	96	100

37) 강일규·김종우(2006), 『새터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52.의 표를 재구성.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장기적이 진로계획을 통해 직업 경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 일자리를 선호하게 하는 지원제도의 허점도 존재한다. 소득이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에 의한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서 자금 지원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수급자격, 급여내용, 급여기간 등에서 더 나은 혜택이 주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서 1인을 추가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으며, 월 지급액에서도 1인 추가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 기간으로 정해진 남한사회 편입 후 5년간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적용대상자 선정 시 소득산정액상의 더 나은 기준을 적용받으며 선정된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모두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

그런데 취업 시에는 생계비와 의료혜택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을 안 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기보다는 5년간 지원되는 지원금과 비정규적인 수입에 의존하여 지내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교통비에 식대 떼고 나서 백만 원 남짓 받는 것보다 앉아서 놀면서 백만 원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한다.<sup>38)</sup> 이를 한 연구자는 ‘임시적 의존’, ‘생존 전략적 의존’이라 명명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노동시장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제도화된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받으려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일컫는 것이다.<sup>39)</sup>

38) 조정아 외(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p.102.

39) 이기영(2005). “소수자로서의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 제 9권 제2호, p.180.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적응 초기에 직장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 이직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과 선호하는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진학을 선택하거나, 생계보조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을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 직업훈련을 받고 특정한 직업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업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상봉동 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주 모(여, 22세)씨는 2006년 11월 한국에 첫발을 디딘 후 최근 5개월 만에 미용사자격 1차 시험에 합격했고 내달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주씨가 취직을 망설이는 이유는 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던 1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중단되는 탓이다. 만일 그가 취직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급여 80만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포기해야 한다. 한성미용직업전문학교 한영애 교장은 “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한 뒤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인근 한 IT 직업전문학교도 같은 이유로 새터민 강좌를 폐강했다”고 말했다.<sup>40)</sup>

## 8)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인들이 남한생활 적응에 있어서 자녀의 학교생활, 학업, 진로 등 자녀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1)</sup> 취학기의 자녀나 초·중등학교에 편입해야 할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들은 기본적인 관련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한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 열풍에 매우 당혹스러워한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바빠 자녀교육에 할애할만한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녀 교육과 자녀들

40) 내일신문 2007.7.24

41)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p.155.

의 진로 지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접근도 쉽지 않다.<sup>42)</sup>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녀의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주로 신변보호담당관, 자녀의 담임교사, 직장이나 교회의 친지 등으로부터 얻는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로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고, 자녀 진로지도 문제에 부딪혀 상담을 하려고 해도 “종합적인 기구가 없이 어중이 떠중이 여기 묻고 저기 묻고” 하게 되기 일쑤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성향, 머리, 성격” 등을 다 알고 “주거지 왔을 때 애들이 어느 학년에 갔으면 좋겠다, 과거에 어떤 교육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관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상담을 해주는 한 사람의 진실한 상담자가 아쉽다.<sup>43)</sup>

더군다나 북한이탈주민인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 경력을 쌓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탐색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80%”라고 한다.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 자녀는 “중학교까지는 다니지만 고등학교는 분명 자퇴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엄마들이 생계가 더 중요하지, 자식은 학교에서 어렵히 키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들은 전문적인 진로 안내와 학원비 보조 등의 실질적인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하는 학교 교사들도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일차적으로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과 기대가 일반적인 학부모들과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의 다음과 같은 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교교육에 대해 갖는 기대와 우리 교육의 현실 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42) 조정아 외(2006), 앞의 글, pp.61-65.

43)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진짜 교육자는 교육자여야 되는데, 자본주의 학교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개념이 더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애가 잘 하길 바라지 지도를 안 해. 학생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부모가 찾아가니 애 잘못된 것만 막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부감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이걸 아니다. ... 애가 가뜩이나 학교도 재미가 없고 가기도 싫은데 이 선생이 맡으니까 무슨 학교를 가고 싶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학교에 가게 되면 안 가르쳐요. 차라리 사교육이 10%이고 공교육이 70-80%이면, 공교육에서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현재 제가 본 한국 사회는 지금 사교육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구나를 많이 실감하거든요.”<sup>44)</sup>

이와 같은 학교교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남한의 공교육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 교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못한 것은 집에 가서 해 오라는 것부터 불만”을 갖고 체험학습이나 수업 준비물 등을 개인적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사와 학부모간에 갈등이 생기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생각이나 정서, 표현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교사들이 보기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들은 남한 사회에서 학교교육이나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 일들을 요구하고 교사의 불성실함을 원망하며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학부모들의 의사소통 방식도 교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 청소년의 지도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할 교사와 학부모들은 “서로 다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쉽다.<sup>45)</sup>

북한이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남한의 공교육이 운영되는 방식과 자녀 지도에 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찾기 어렵다. 하나원의 초기 정착교육 단계에서 기초적인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져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자녀지도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숙박식 위탁교

44) 학부모 2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45) 교사 1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교사 간담회, 2008.7.15.

육을 하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삼죽초등학생에 통학하는 초등학생의 학부모들도 “통학버스로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데려왔기 때문에 학교 실정을 전혀 알 수 없고” “학교생활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말한다.<sup>46)</sup>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남한의 교육 제도, 교육 내용 및 방법, 학교의 문화와 관행, 학습 분위기, 부모의 역할, 학교생활 및 진로 지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들의 학업 수행 및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 초기 정착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심화된 남한의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와 부모 역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지도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보다 긴밀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신뢰와 협조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남한의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만나는 교사들 역시 북한에서 온 학부모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9) 북한이탈 청소년 사후관리 및 지역연계체제 구축

거주지 배치 이후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진로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역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하나원과 한겨레중고등학교 위탁교육 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 관련 기초검사와 진로상담의 결과가 이후 거주지의 학교와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기관에 효과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관리 및 진로지도 측면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6) 학부모 2 사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부모 간담회, 2008.7.8.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 재단법인인 무지개센터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인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 취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실태 파악 및 지속적인 진로 지도를 추진할 수 있겠으나 학교의 안팎을 넘나드는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은 쉽지 않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진로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개개인의 실태에 대한 종단적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 이러한 작업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 25개 청소년 복지기관과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10월 9일에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지원 협의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2007년에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차원의 협의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여러 지원 기관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는 실제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문화체험 등의 지원은 지나치게 공급이 과다하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담 등의 지원은 현격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원 기관을 순회하는 형태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간이 단축되고 궁극적으로 지원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정부 영역과 민간 영역 간의 공식적인 교류 및 업무를 위한 논의 및 협의 기구의 부재,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영역에서의 사전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의 절차 부족, 각 주체들 간의 논의 구조 없는 서비스의 제공, 공급 과잉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관간의 업무 중복현상 또는 지원 누락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47)</sup>

47)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2007) 『노원구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이러한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부와 다양한 민간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의 양과 다양성에 비해 각 지원 주체들 간의 연계성과 필요한 지원 부문 간의 균형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와 개선사항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인식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 및 욕구
4.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학업 문제와 필요한 지원
5.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6.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7. 소결



### Ⅲ.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실태와 개선사항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와 욕구, 그리고 향후 진로문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과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진로의식, 진로실태 및 욕구를 조사하였으며, 현장전문가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학업문제와 필요한 지원,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1) 북한이탈 청소년

###### (1) 성별, 학교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49.1%, 여자가 50.9%로 남녀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교별로는 일반 중·고등학교가 27.1%, 대학교가 35.7%, 한겨레학교가 17.9%, 대안학교가 19.3%로 나타났다. [표 Ⅲ-1 참조]

<표Ⅲ-1> 북한이탈 청소년의 성별·학교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279)	남자	137	49.1
	여자	142	50.9
	전체	279	100.0
학교별 (N=280)	중·고등학교	76	27.1
	대학교	100	35.7
	한겨레학교	50	17.9
	대안학교	54	19.3
	전체	280	100.0

(2) 연령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30.1%, 20대가 60.9%로, 20대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III-2> 북한이탈 청소년의 연령 분포

(단위: 빈도(%))

구분	10대	20대	전체
연령 전체 (N=258)	101 (30.1)	157 (60.9)	258 (100.0)

(3) 탈북 및 입국시기

탈북시기와 입국시기를 살펴보면, 탈북시기는 7년 이상이 45.5%로 가장 많았고, 5~6년이 16.5%로, 60% 이상이 탈북한 지 5년 이상 되었으며, 3~4년은 22.5%, 2년 이하는 16.0%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국시기는 2년 이하가 39.6%로 가장 많고, 3~4년이 36.3%로, 75.9%가 입국한 지 4년 미만이었다. 따라서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탈북 이후 상당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와 같다.

<표III-3>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 및 입국시기

(단위: 빈도(%))

구분	2년 이하	3~4년	5~6년	7년 이상	전체
탈북시기 전체 (N=275)	44 (16.0)	62 (22.5)	44 (16.0)	125 (45.5)	275 (100.0)
입국시기 전체 (N=278)	10 (39.6)	101 (36.3)	55 (19.8)	12 (4.3)	278 (100.0)

(4) 거주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서울이 68.4%로 가장 많고, 경기(17.0%), 인천(5.1%), 부산(1.8%), 충북(1.8%)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함경북도가 6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함경북도(11.9%), 평안남도(5.6%), 양강도(5.2%)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참조]

<표 III-4> 북한이탈 청소년의 거주지

(단위: 빈도(%))

북한에 있을 때		현재	
양강도	14(5.2)	서울특별시	188(68.4)
강원도	6(2.2)	부산광역시	5(1.8)
함경북도	184(68.1)	대구광역시	1(0.4)
함경남도	32(11.9)	인천광역시	14(5.1)
평양	4(1.5)	광주광역시	2(0.7)
평안남도	15(5.6)	대전광역시	1(0.4)
평안북도	4(1.5)	경기도	47(17.0)
황해남도	5(1.9)	강원도	1(0.4)
황해북도	2(0.7)	충청북도	5(1.8)
청진	4(1.5)	충청남도	2(0.7)
전체	270(100.0)	전라북도	2(0.7)
		전라남도	1(0.4)
		경상남도	2(0.7)
		제주도	4(1.5)
		전체	275(100.0)

(5)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부모의 학력

북한에 있을 때의 북한이탈 청소년과 그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등중학교(중학교) 중퇴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중학교(중학교) 졸업이 13.8%로, 과반수 정도가 고등중학교(중학교) 중퇴나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과반수 정도(아버지 49.6%, 어머니 51.9%)가 고등중학교(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20% 이상(아버지 27.1%, 어머니 20.8%) 되어, 부모들이 비교

적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와 같다.

<표III-5>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부모의 학력

(단위: 빈도(%))

구분	본인학력	아버지	어머니
인민학교(소학교) 중퇴	36(13.1)	1(0.4)	3(1.1)
인민학교(소학교) 졸업	18(6.5)	7(2.7)	7(2.7)
고등중학교(중학교) 중퇴	107(38.9)	11(4.2)	14(5.3)
고등중학교(중학교) 졸업	38(13.8)	130(49.6)	137(51.9)
대학교 중퇴	10(3.6)	11(4.2)	15(5.7)
대학교 졸업	3(1.1)	71(27.1)	55(20.8)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23(8.4)	0(0.0)	2(0.8)
잘 모르겠음	40(14.5)	31(11.8)	31(11.7)
전체	275(100.0)	262(100.0)	264(100.0)

#### (6) 부모 직업

북한이탈 청소년의 부모의 현재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직(22.1%)과 노동자(20.9%), 그리고 운송·교통업(10.5%) 등에 종사하고 있었고, 19.8%가 무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서비스직(19.0%), 사무직(13.9%), 자영업자(8.8%), 노동자(7.3%)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가 43.8%로 나타났다. [표III-6 참조]

<표Ⅲ-6>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의 현재 직업

(단위: 빈도(%))

구분	아버지	어머니
1. 노동자	18(20.9)	10(7.3)
2. 사교육 관련업종	0(0.0)	1(0.7)
3. 기술자	1(1.2)	0(0.0)
4. 농축수산업자	1(1.2)	0(0.0)
5. 공무원	0(0.0)	1(0.7)
6. 자영업자	7(8.1)	12(8.8)
7. NGO 활동가	0(0.0)	1(0.7)
8. 서비스직	0(0.0)	26(19.0)
9. 기자	1(1.2)	0(0.0)
10. 사무직	19(22.1)	19(13.9)
11. 운송, 교통업	9(10.5)	0(0.0)
12. 학생	2(2.3)	4(2.9)
13. 관리직	0(0.0)	1(0.7)
14. 예술인	0(0.0)	1(0.7)
15. 모름	1(0.4)	1(0.7)
16. 없음(주부포함)	17(19.8)	60(43.8)
전체	86(100.0)	137(100.0)

한편, 북한에 있었을 때의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과반수 정도(46.0%)가 노동자였으며, 이 밖에 군인(9.4%), 기술자(8.5%), 공무원(6.4%), 사무직(6.0%), 농축수산업자(5.5%) 등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1.4%에 불과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16.5%로 가장 많았고, 농축수산업자(9.3%), 자영업자(4.2%) 등이었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과반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7> 와 같다.

<표Ⅲ-7> 북한이탈 청소년 부모의 북한에서의 직업

(단위: 빈도(%))

구분	아버지	어머니
1. 노동자	108(46.0)	39(16.5)
2. 기술자	20(8.5)	8(3.4)
3. 농축수산업자	13(5.5)	22(9.3)
4. 공무원	15(6.4)	5(2.1)
5. 고급공무원(공산당간부, 외교관)	2(0.9)	1(0.4)
6. 요리사	0(0.0)	1(0.4)
7. 연구원	3(1.3)	0(0.0)
8. 전문직(판사, 변호사, 회계사 등)	6(2.6)	2(0.8)
9. 교사	7(3.0)	8(3.4)
10. 자영업자	1(0.4)	10(4.2)
11. 군인	22(9.4)	0(0.0)
12. 서비스직	1(0.4)	5(2.1)
13. 사무직	14(6.0)	10(4.2)
14. 운송, 교통업	13(5.5)	0(0.0)
15. 방송인(아나운서, PD)	3(1.3)	2(0.8)
16. 학생	2(0.9)	0(0.0)
17. 관리직	1(0.4)	0(0.0)
18. 교수	0(0.0)	2(0.8)
19. 예술인	0(0.0)	2(0.8)
20. 없음(주부포함)	4(1.4)	119(50.4)
전체	235(100.0)	236(100.0)

(7) 동거 형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동거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어머니(35.7%)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자형제(15.6%), 아버지(14.5%), 남자형제(9.7%), 새아버지(5.2%), 친척(4.5%)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을 때 보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적었으나, 새아버지나 새어머니, 여자형제, 친척, 친구 등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북한에 있었을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8 참조]

<표Ⅲ-8>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서와 현재 동거인(중복응답)

(단위: 빈도(%))

	아버지	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	배우자	할아버지	할머니
현재 동거인	67 (14.5)	165 (35.7)	24 (5.2)	6 (1.3)	10 (2.2)	6 (1.3)	14 (3.0)
	남자형제	여자형제	친척	남자친구	이성친구	기타	전체
	45 (9.7)	72 (15.6)	21 (4.5)	5 (1.1)	6 (1.3)	21 (4.5)	462 (100.0)
	아버지	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	배우자	할아버지	할머니
북한에서 의 동거인	206 (25.0)	232 (85.0)	6 (0.7)	10 (1.2)	2 (0.2)	49 (5.9)	76 (9.2)
	남자형제	여자형제	친척	남자친구	이성친구	기타	전체
	88 (10.7)	114 (13.8)	30 (3.6)	1 (0.1)	1 (0.1)	9 (1.1)	824 (100.0)

(8) 가정의 경제수준

북한이탈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가정이 59.1%로 반수를 조금 넘었으며, 100~149만원이 24.4%, 150~199만원이 10.3%로, 90% 이상의 대부분의 가정이 월 평균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9> 와 같다.

<표Ⅲ-9>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단위: 빈도(%))

99만 원 이하	100~149 만원	150~199 만원	200~249 만원	250~299 만원	300만원 이상	전체
143(59.1)	59(24.4)	25(10.3)	10(4.1)	1(0.4)	4(1.7)	242(100.0)

하지만 북한에 있을 때의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면, 경제수준이 중인 가정이 35.5%, 중상이 21.2%, 상이 6.2%로, 반수 이상이 경제수준 중 이상인 가정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Ⅲ-10 참조]

<표Ⅲ-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에 있을 때 가정의 경제수준

(단위: 빈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전체
17(6.2)	58(21.2)	97(35.5)	61(22.3)	40(14.7)	273(100.0)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있을 때와 현재의 북한이탈 청소년 가정의 경제수준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남한에서 보다 낮은 계층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 2) 현장전문가

### (1) 성별 · 기관별 ·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자의 성별 · 기관별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 61.7%, 남자 38.3%로 여자 전문가가 많았다. 기관별로는 정규학교 53.2%, 대안학교 18.5%, 한겨레학교 12.3%, NGO단체 3.7%, 사회복지관 12.3%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72.2%, 중소도시 21.5%, 농어촌 6.3%로,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1>에 제시하였다.

<표Ⅲ-11> 현장전문가의 성별 · 기관 ·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81)	남자	31	38.3
	여자	50	61.7
	전체	81	100.0
기관별 (N=81)	정규학교(중~대)	43	53.2
	대안학교	15	18.5
	한겨레학교	10	12.3
	NGO단체	3	3.7
	사회복지관	10	12.3
	전체	81	100.0
지역별 (N=79)	대도시	57	72.2
	중 · 소도시	17	21.5
	농어촌	5	6.3
	전체	79	100.0

(2) 연령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40.7%, 40대가 40.7%로, 30~40대(81.4%)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가 9.9%, 50대 이상이 8.6%로 나타났다. [표Ⅲ-12 참조]

<표Ⅲ-12> 현장전문가의 연령 분포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전체 (N=81)	8(9.9)	33(40.7)	33(40.7)	7(8.6)	81(100.0)

(3) 지도경력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한 경력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22.2%), 3년 이상~4년 미만(21.0%) 등으로, 1년 이상~4년 미만이 67.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3>과 같다.

<표Ⅲ-13> 현장전문가들의 북한이탈 청소년 지도 경력

(단위 :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11	13.6
1년 이상~2년 미만	18	22.2
2년 이상~3년 미만	20	24.7
3년 이상~4년 미만	17	21.0
4년 이상	15	18.5
전체	81	100.0

#### (4) 진로지도 경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서 진로지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전문가는 61.3%였으며, 38.8%의 현장전문가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4> 와 같다.

<표III-14> 현장전문가들의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 경험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49(61.3)	31(38.8)	80(100.0)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의식

북한이탈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목표 설정 정도, 진로확신 정도, 진로준비 정도, 진로자신감 정도를 조사하였다.

### 1) 진로관련 자기이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학 혹은 취업 시 자신에게 부족한 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직업결정에서 중요시 하는 것, 직업을 얻기 위해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할 것, 자신의 직업능력 수준 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각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기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학 혹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 미만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참조]

<표Ⅲ-15>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자기이해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진학 또는 취업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안다	2 (0.7)	13 (4.6)	83 (29.6)	119 (42.5)	63 (22.5)	280 (100.0)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4 (1.4)	37 (13.2)	108 (39.8)	92 (32.9)	39 (13.9)	280 (100.0)
나는 직업을 결정하는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다	3 (1.1)	26 (9.3)	88 (31.4)	108 (38.6)	55 (19.6)	280 (100.0)
나는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4 (1.4)	21 (8.9)	105 (37.5)	103 (36.8)	47 (16.8)	280 (100.0)
나는 나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	2 (0.7)	24 (8.6)	111 (39.6)	98 (35.0)	45 (16.1)	280 (100.0)

진로관련 자기이해는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 정도와 관계가 있었는데,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 정도가 높은 경우(18.89점)가 낮은 경우(17.05점)보다, 그리고 중간집단(18.43점)이 낮은 집단(17.05점)보다 진로관련 자기이해가 높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6> 와 같다.

<표Ⅲ-16>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에 따른 진로관련 자기이해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높음1) (n=90)	18.89	3.670	8.166***	-	-	**
중간2) (n=90)	18.43	3.043		-	-	*
낮음3) (n=96)	17.05	2.978		**	*	-

\*p<0.05, \*\*p<0.01, \*\*\*p<0.001

## 2) 진로목표 설정 정도

진로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장래에 해야 할 일,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졸업 후의 진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경우는 56.1%로 절반 이상이었으나, 장래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은 36.4%,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막막하지 않다는 응답은 42.5%,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는 응답은 38.9%,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다고 한 응답은 32.9%로, 약 30~40%의 청소년들만이 진로가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는 목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참조]

<표III-17>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13 (4.6)	77 (27.5)	88 (31.4)	65 (23.2)	37 (13.2)	280 (100.0)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2 (18.6)	105 (37.5)	70 (25.0)	41 (14.6)	12 (4.3)	280 (100.0)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34 (12.1)	85 (30.4)	88 (31.4)	57 (20.4)	16 (5.7)	280 (100.0)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35 (12.5)	74 (26.4)	91 (32.5)	68 (24.3)	12 (4.3)	280 (100.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24 (8.6)	68 (24.3)	84 (30.0)	75 (26.8)	29 (10.4)	280 (100.0)

진로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학생과 한겨레학교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15.04점)에 비해서 한겨레학교 학생들(17.86점)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8>과 같다.

<표III-18> 학교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중·고등학교1) (n=76)	16.03	3.888	5.768**	-	-	-	-
대학교2) (n=100)	15.04	3.728		-	-	**	-
한겨레학교3) (n=50)	17.86	4.458		-	**	-	-
대안학교4) (n=54)	16.00	3.752		-	-	-	-

\*\*p<0.01

### 3) 진로확신 정도

진로확신과 관련해서는 진로 불안, 일에 대한 자신감, 성공에 대한 의심,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정, 자기 노력에 따른 구직확신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절반 정도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에 대한 불안(진로 불안 49.6%, 직업 불안 46.0%)을 느끼고 있었고,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에 대한 의심도 어느 정도(30.0%) 있었으나, 선택한 일에 대한 자신감(64.3%)과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58.2%)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참조]

<표III-19>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확신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8 (2.9)	55 (19.6)	78 (27.9)	97 (34.6)	42 (15.0)	280 (100.0)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0 (0.0)	14 (5.0)	86 (30.7)	127 (45.4)	53 (18.9)	280 (100.0)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8 (2.9)	75 (26.8)	113 (40.4)	67 (23.9)	17 (6.1)	280 (100.0)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받을 자신이 있다	1 (0.4)	11 (3.9)	105 (37.5)	117 (41.8)	46 (16.4)	280 (100.0)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9 (3.2)	33 (11.8)	109 (38.9)	102 (36.4)	27 (9.6)	280 (100.0)

#### 4) 진로준비 정도

진로준비와 관련해서는 미래의 직장생활, 유망직업, 진로 관련 자료수집, 직업세계에서 성공한 사례, 원하는 직업세계의 사람과의 대화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준비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 응답자는 64.3%,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0.4%, 진로 관련 자료수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53.2%, 책이나 신문 등에서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2.1%, 원하는 직업세계의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72.9%로, 많은 청소년들이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0>과 같다.

<표 III-20>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5 (1.8)	20 (7.1)	75 (26.8)	110 (39.3)	70 (25.0)	280 (100.0)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관심이 많다	3 (1.1)	15 (5.4)	93 (33.2)	98 (35.0)	71 (25.4)	280 (100.0)
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4 (1.4)	22 (7.9)	105 (37.5)	103 (36.8)	46 (16.4)	280 (100.0)
나는 책이나 신문 등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본다	4 (1.4)	24 (8.6)	78 (27.9)	97 (34.6)	77 (27.5)	280 (100.0)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	1 (0.4)	15 (5.4)	60 (21.4)	89 (31.8)	115 (41.1)	280 (100.0)

진로준비 정도를 평균비교를 통하여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17.97)에 비해서 대학생(19.47점)의 진로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참조]

<표Ⅲ-21> 학교별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준비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4)
중·고등학교1) (n=76)	17.97	3.607	3.714*	-	*	-	-
대학교2) (n=100)	19.47	3.255		*	-	-	-
한겨레학교3) (n=50)	19.58	3.078		-	-	-	-
대안학교4) (n=54)	19.13	3.003		-	-	-	-

\*p<0.05

### 5) 진로자신감 정도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은 희망직업의 연봉 확인,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 선택,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도서관) 정보 찾기,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5년간 전망, 자신에 맞는 직업 찾기, 관심분야의 직업인과의 대화, 이상적인 직업 찾기 등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취학,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5년간의 전망을 찾아낼 자신감(35.7%)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자신감(49.6%),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인터넷(도서관) 정보를 찾아낼 자신감(63.5%), 관심분야의 직업인과의 대화를 할 자신감(62.1%) 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22>와 같다.

<표Ⅲ-22>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자신감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희망하는 직업의 연봉을 알아낼 자신이 있다	3 (1.1)	71 (25.4)	110 (39.3)	67 (23.9)	29 (10.4)	280 (100.0)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자신이 있다	5 (1.8)	34 (12.1)	102 (36.4)	93 (33.2)	46 (16.4)	280 (100.0)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	1 (0.4)	16 (5.7)	85 (30.4)	116 (41.4)	62 (22.1)	280 (100.0)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5년간 전망에 대해 찾아낼 자신이 있다	4 (1.4)	37 (13.2)	139 (49.6)	75 (26.8)	25 (8.9)	280 (100.0)
관심 있는 직업들 중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낼 자신이 있다	5 (1.8)	21 (7.5)	121 (43.2)	87 (31.1)	46 (16.4)	280 (100.0)
관심분야의 직업인과 이야기를 나눌 자신이 있다	2 (0.7)	18 (6.4)	86 (30.7)	119 (42.5)	55 (19.6)	280 (100.0)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낼 자신이 있다	4 (1.4)	22 (7.9)	118 (42.1)	92 (32.9)	44 (15.7)	280 (100.0)

진로에 대한 자신감은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남한청소년과 동질성이 높은 경우(26.07점)가 낮은 경우(23.07점)보다 진로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참조]

<표Ⅲ-23>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에 따른 진로자신감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사후검증		
				1)	2)	3)
높음1) (n=90)	26.07	5.179	10.440***	-	-	***
중간2) (n=90)	24.56	4.550		-	-	-
낮음3) (n=96)	23.07	3.575		***	-	-

\*p<0.05, \*\*p<0.01, \*\*\*p<0.001

### 3.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 및 욕구

#### 1) 학업경험 및 진학욕구

##### (1) 학업 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29.9%)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28.4%), 경제적인 어려움(26.9%)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은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학업의 가장 큰 어려움(46.5%)으로 응답한데 비해, 대학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46.3%)을, 그리고 한겨레학교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한겨레학교 학생 60.0%, 대안학교 학생 48.1%)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학교 유형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4>와 같다.

<표III-2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

(단위:%, N=268)

구분	배우는 내용이 어려움	같은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	북한출신이 알려지는게 싫다	경제적인 어려움	졸업후 무엇을 할지 고민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29.9	2.6	7.5	26.9	28.4	4.9	100.0		
성별	남자	29.5	2.3	6.2	31.0	24.8	6.2	100.0	χ <sup>2</sup> = 4.573 df=5
	여자	30.4	2.9	8.7	22.5	31.9	3.6	100.0	
학교 구분	중·고등 학교	46.5	2.8	7.0	16.9	16.9	9.9	100.0	χ <sup>2</sup> = 82.839 *** df=15
	대학교	28.4	4.2	10.5	46.3	9.5	1.1	100.0	
	한겨레학교	18.0	0.0	6.0	12.0	60.0	4.0	100.0	
	대안학교	21.2	1.9	3.8	19.2	48.1	5.8	100.0	

\*\*\*p<0.001

실제로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성적을 살펴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업 수행능력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평균성적은 70~79점(C학점)이

36.3%로 가장 많고, 60~69점(D학점)이 25.0%, 59점 이하(F학점)가 14.5%로, 70% 이상이 70~79점(C학점) 이하의 성적을 받고 있었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60~69점(D학점)이 44.4%, 59점 이하(F학점)가 20.4%로 다른 학교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B학점 이상이 31.0%로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C학점이 45.0%, D학점이 16.0%, F학점이 7.0%로, 우리나라 대학의 학점 평균을 생각할 때, 다른 남한의 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학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무시험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있지만, 약 30%정도의 대학생들만이 어느 정도 학업을 따라가고 있을 뿐, 7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3.0%(D학점과 F학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낙오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5 참조]

<표 III-25>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재학 중인 학교(교육기관)에서의 평균성적  
(단위:%, N=276)

구분	59점이하 (F학점)	60~69점 (D학점)	70~79점 (C학점)	80~89점 (B학점)	90점이상 (A학점)	전체	통계치	
전체	14.5	25.0	36.2	17.8	6.5	100.0		
성 별	남자	14.9	23.1	39.5	17.2	5.2	100.0	χ <sup>2</sup> =2.606 df=5
	여자	14.2	27.0	32.6	18.4	7.8	100.0	
학 교 급 별	중·고등학교	18.1	20.8	44.4	13.9	2.8	100.0	χ <sup>2</sup> =44.89 6 *** df=15
	대학교	7.0	16.0	45.0	26.0	5.0	100.0	
	한겨레학교	18.0	28.0	26.0	14.0	14.0	100.0	
	대안학교	20.4	44.4	16.7	11.1	7.4	100.0	

\*\*\*p<0.001

## (2) 진학 욕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학교 유형을 희망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한학생과 특별한 차이 없이 함께 다니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68.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처음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17.3%), 북한출신끼리 공부하는 학교(7.4%), 검정고시 학원(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이유는 남한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학업의 가장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에서 능력이 허락되면 하루 빨리 남한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차선책으로는 일시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공부한 후에 어느 정도 적응되면 남한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별로는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57.3%)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처음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만 다니는 학교에 다니다가 나중에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26.7%)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 다른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남한학생들과 부딪히는 문제를 보다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6> 와 같다.

<표 III-26> 학생 구성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선호도

(단위:%, N=272)

구분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검정고시 학원	북한출신끼리 공부하는 학교	처음에는 우리끼리 나중엔 남한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전체	통계치
전체		68.8	6.6	7.4	17.3	100.0	
성별	남자	68.4	6.0	7.5	18.0	100.0	$\chi^2=0.245$ df=3
	여자	69.1	7.2	7.2	16.5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57.3	9.3	6.7	26.7	100.0	$\chi^2=17.373^*$ df=9
	대학교	75.0	9.4	8.3	7.3	100.0	
	한겨레학교	72.9	2.1	6.3	18.8	100.0	
	대안학교	69.8	1.9	7.5	20.8	100.0	

\*p<0.0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음 남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학년에 대해서는 실력(51.3%)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나이(36.0%), 북한에서 다녔던 학년(7.6%)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 학년에 대해서는 변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이도 40%가 선호하고 있어서 실력과 함께 나이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참조]

<표 III-27>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학교 입학 시 학년 결정기준에 대한 선호도  
(단위:%, N=275)

구분		나이에 맞는 학년	실력에 맞는 학년	북한에서 다녔던 학년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36.0	51.3	7.6	5.1	100.0	
성 별	남자	37.3	50.0	8.2	4.5	100.0	χ <sup>2</sup> =0.469 df=3
	여자	35.0	52.1	7.1	5.7	100.0	
학 교 급 별	중·고등학교	40.0	46.7	6.7	6.7	100.0	χ <sup>2</sup> =9.007 df=9
	대학교	30.9	50.5	12.4	6.2	100.0	
	한겨레학교	42.0	52.0	4.0	2.0	100.0	
	대안학교	34.0	58.5	3.8	3.8	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6년제 대학 졸업(44.9%)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업 이상(31.0%), 2~3년제 대학 졸업(13.1%) 등으로,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4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을 원하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4~6년제 대학졸업이 43.2%, 대학원졸업이상이 45.3% 등으로,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대학원졸업이상을 희망하는 경우가 10.0%로 낮은 반면, 2~3년제 대학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8>과 같다.

<표Ⅲ-28> 북한이탈 청소년의 교육포부수준

(단위:%, N=274)

구분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졸업	4~6년제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이상	잘 모르겠다	전체	통계치	
전체	2.6	13.1	44.9	31.0	8.4	100.0		
성별	남자	3.0	9.0	47.8	32.1	8.2	100.0	$\chi^2=4.272$ df=4
	여자	2.1	17.1	42.1	30.0	8.6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2.6	11.8	43.4	26.3	15.8	100.0	$\chi^2=46.28$ 3 *** df=12
	대학교	3.2	2.1	43.2	45.3	6.3	100.0	
	한겨레학교	4.0	21.0	50.0	10.0	4.0	100.0	
	대안학교	0.0	17.0	45.3	32.1	5.7	100.0	

\*\*\*p<0.001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44.1%)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34.6%), 사회적 대우를 위해서(12.1%),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2.9%)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참조]

<표Ⅲ-29> 북한이탈 청소년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N=272)

구분	더 나은 직업을 얻기위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사회적 대접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학비가 무료라서	이유없이 막연하게	가타	전체	통계치	
전체	34.6	44.1	12.1	2.9	2.1	1.1	2.9	100.0		
성별	남자	29.3	49.6	12.0	3.0	3.0	0.8	2.3	100.0	$\chi^2=5.324$ df=6
	여자	39.6	38.8	12.2	2.9	1.4	1.4	3.6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43.2	36.5	9.5	0.0	2.7	1.4	6.8	100.0	$\chi^2=30.158$ * df=18
	대학교	31.3	38.5	18.8	6.3	3.1	2.1	0.0	100.0	
	한겨레학교	38.0	52.0	6.0	2.0	0.0	0.0	2.0	100.0	
	대안학교	25.0	57.7	9.6	1.9	1.9	0.0	3.8	100.0	

\*p<0.05

학교 유형별로는 비교해 보면, 다른 유형의 학생들은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였으나, 일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43.2%)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집단 간에 차

이를 보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 희망하는 전공으로는 인문계열(28.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19.0%), 공학계열(10.8%), 예체능계열(10.4%), 교육계열(9.7%) 등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26.2%), 공학계열(20.0%), 사회계열(17.7%) 등의 순으로 높게 선호된 데 비해, 여자의 경우에는 인문계열(30.9%), 사회계열(20.1%), 교육계열(13.7%), 예체능계열(12.9%)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인문계열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으로 남자들은 공학계열 등을 선호한 데 비해, 여자들은 사회계열 등을 선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북한이탈 청소년의 대학에서 희망 전공

(단위:%, N=269)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법학계열	상경계열	전체	통계치
전체		28.6	19.0	9.7	10.8	6.3	6.3	10.4	5.6	3.3	100.0	
성별	남자	26.2	17.7	5.4	20.0	7.7	3.8	7.7	7.7	3.8	100.0	$\chi^2=32.5$ 33*** df=8
	여자	30.9	20.1	13.7	2.2	5.0	8.6	12.9	3.6	2.9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21.6	17.6	5.4	18.9	5.4	6.8	14.9	5.4	4.1	100.0	$\chi^2=48.7$ 18** df=24
	대학교	43.6	21.3	5.3	5.3	5.3	2.1	5.3	6.4	5.3	100.0	
	한겨레학교	26.0	16.0	20.0	2.0	8.0	10.0	12.0	4.0	2.0	100.0	
	대안학교	13.7	19.6	13.7	17.6	7.8	9.8	11.8	5.9	0.0	100.0	

\*\*\*p<0.001, \*\*p<0.01

학교 유형별로도 대부분 인문계열을 가장 선호하였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열(43.6%)에 대한 선호도가 특별히 높았으나,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유형과 다르게 인문계열(13.7%)보다는 사회계열(19.6%)과 공학계열(17.6%)을 보다 선호하였다. 또한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문계열(26.0%) 이외에 교육계열(20.0%)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일반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열(21.6%) 이외에 공학계열(18.9%)에 대한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일자리경험 및 욕구

### (1) 일자리 경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일자리 경험을 살펴보면, 39.9%가 경험이 있고, 60.1%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가 60.0%로 가장 경험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안학교 학생(50.0%), 일반 중·고등학생(31.1%) 등의 순이었고, 한겨레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4.0%로 거의 경험이 없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31 참조]

<표III-3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 간 유급 일자리 경험 여부

(단위:%, N=271)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39.9	60.1	100.0	
성별	남자	42.4	57.6	100.0	χ <sup>2</sup> =0.710 df=1
	여자	37.4	62.6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31.1	68.9	100.0	χ <sup>2</sup> =47.509** * df=3
	대학교	60.0	40.0	100.0	
	한겨레학교	4.0	96.0	100.0	
	대안학교	50.0	50.0	100.0	

\*\*\*p<0.00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의 일자리 경험은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일자리경험(11~15%)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청소년백서, 2007: 336),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보다 일자리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의 종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의 종류를 살펴보면, 매장관리·판매(게임방, 마트, 서점 판매 등)(25.5%)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식당관련 업무(식당보조, 서빙, 커피숍 등)(21.4%), 배달 업무(피자, 신문 등) (12.2%), 제과관련업무(8.2%), 사무업무(8.2%), 서비스업무(8.2%), 제조 및 건축업무(공장 노동, 일용직 등)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2>와 같다.

<표III-32>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일의 종류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매장관리·판매	25	25.5
과외학원 강사	3	3.1
제조 및 건축업무	7	7.1
제과관련업무	8	8.2
주유소	3	3.1
배달업무	12	12.2
사무업무	8	8.2
서비스 업무	8	8.2
식당관련 업무	21	21.4
방문판매	1	1.0
기타	2	2.0
전체	98	100.0

(3) 일을 한 이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비 충당(55.2%)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험을 쌓기 위하여(20.7%), 학원비 충당(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참조]

<표Ⅲ-33>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한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경험	18	20.7
생활비 충당	48	55.2
학원비 충당	15	17.2
기타	6	6.9
전체	87	100.0

2003-2006년 사이에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패널조사에서는 용돈 부족, 여가시간활용 등이 아르바이트의 주요한 이유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청소년백서, 2007:340), 아르바이트 목적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탈 청소년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 일 기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의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가 85.4%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 이하가 11.5%, 36개월 이하가 3.1%로, 대부분 단기간 동안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4>와 같다.

<표Ⅲ-3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한 기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6개월 이하	82	85.4
12개월 이하	11	11.5
36개월 이하	3	3.1
전체	96	100.0

(5) 일 경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지난 1년간 경험한 일을 찾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인터넷 및 일용직 알선지(54.7%)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구 소개(29.1%), 친인척 소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경로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개인적으로나 친구, 친인척 등을 통해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5 참조]

<표 III-3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은 경로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친인척 소개	10	11.6
인터넷 및 일용직 알선지(벼룩시장)	47	54.7
종교단체 소개	2	2.3
직접 방문	2	2.3
친구 소개	25	29.1
전체	86	100.0

(6) 일을 그만 둔 이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경험했던 일을 그만 둔 이유로는 학업관련 이유(54.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힘들어서(18.3%), 시간 부족(8.5%), 보수문제(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6>과 같다.

<표 III-36>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을 그만 둔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업관련이유 (복학, 개학, 공부 등)	45	54.9
시간 부족	7	8.5
힘들어서	15	18.3
보수	6	7.3
다른 경험을 위해	3	3.7
개인 사정(이사)	3	3.7
기타	3	3.7
전체	82	100.0

(7) 희망직업

북한이탈 청소년의 희망직업을 북한에 있을 때와 남한에 온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북한에 있을 때는 직업 중에서 교사(12.9%)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 약사(8.1%), 군인(7.6%), 기술자(7.1%), 공무원(6.3%), 사업가, 전문경영인(6.1%), 경찰(4.5%), 의상디자이너(4.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37 참조]

<표 III-37> 북한이탈 청소년의 북한 체류 시 희망직업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교사	51(12.9)	1
의사, 약사	32(8.1)	2
군인	30(7.6)	3
기술자	28(7.1)	4
공무원, 기타	25(6.3)	5
사업가, 전문경영인	24(6.1)	6
경찰	18(4.5)	7
의상디자이너	17(4.3)	8
방송관계자, 판사, 변호사, 검사	15(3.8)	9
회사원, 은행원, 운동선수	13(3.3)	10
과학자, 요리사	12(3.0)	11
연예인	11(2.8)	12
간호사	10(2.5)	13
교수, 정치인(국회의원)	8(2.0)	14
자영업자	5(1.3)	15
농·축·수산업자, 헤어디자이너	4(1.0)	16
스튜디오스, 컴퓨터 프로그래머, 사회복지사	3(0.8)	17
건축가, 영화감독, 파일럿	2(0.5)	18
만화가	1(0.3)	19

한편, 남한에 온 이후로는 공무원(11.8%)과 회사원, 은행원(11.8%)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가, 전문경영인(9.2%), 기술자(7.9%), 판사,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6.6%)과 의사, 약사 등 의료인(6.6%), 교사(5.3%), 방송관계자(5.3%), 의상디자이너(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593개 초·중·고 재학생 15,978명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에서 조사한 결과는 장래희망직업으로 교사(15.8%), 의사(6.9%), 연예인(5.8%)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서 남한에 온 이후의 희망직업보다는 북한에 있었을 때의 희망직업과 오히려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8>과 같다.

<표 III-38>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에 온 이후 희망직업

(중복응답)

항목	빈도(%)	순위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11.8	1
사업가, 전문경영인	9.2	2
기술자	7.9	3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약사	6.6	4
교사, 방송관계자, 의상디자이너	5.3	5
컴퓨터 프로그래머, 헤어디자이너	3.9	6
교수, 스튜디오스, 파일럿, 요리사, 경찰, 기타	2.6	7
과학자, 연예인, 운동선수, 자영업자, 건축가	1.3	8

### 3)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

#### (1) 진로결정시 고려요인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결정 시에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면(30.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적성(19.3%), 발전가능성(17.1%), 잘 할 수 있는 일(14.9%), 안정성(11.3%)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안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인 면(17.0%)보다는 적성(24.5%)이나 발전가능성(24.5%)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도 진로

결정시 특히 경제적인 면(42.7%)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청 소년과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에는 발전가능성(26.4%)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데 비해, 중간집단은 경제적인 면(39.3%)을, 그리고 동질성이 낮은 경우는 적성(30.3%)을 가장 중시하여, 남한청소년과의 동질성 정도에 따라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표 III-39 참조]

<표 III-39>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시 고려하는 요인

(단위:%, N=275)

구분	경제적 인면	사회적 공헌	발전 가능성	적성	안정성	잘할수 있는일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30.2	5.1	17.1	19.3	11.3	14.9	2.2	100.0		
성 별	남자	34.4	6.0	17.2	20.9	9.0	11.2	1.5	100.0	$\chi^2=6.477$ df=6
	여자	26.2	4.3	17.0	17.7	13.5	18.4	2.8	100.0	
학 교 급 별	중·고등학교	42.7	1.3	13.3	17.3	13.3	9.3	2.7	100.0	$\chi^2=29.874$ * df=18
	대학교	24.7	9.3	16.5	20.6	13.4	12.4	3.1	100.0	
	한겨레학교	36.0	0.0	16.0	14.0	8.0	24.0	2.0	100.0	
	대안학교	17.0	7.5	24.5	24.5	7.5	18.9	0.0	100.0	
동 질 성 별	높음	25.3	4.6	26.4	11.5	12.6	16.1	3.4	100.0	$\chi^2=22.522$ * df=12
	중간	39.3	4.5	12.4	16.9	9.0	16.9	1.1	100.0	
	낮음	23.6	6.7	13.5	30.3	12.4	11.2	2.2	100.0	

\*p<0.05

이상의 결과는 남한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정경자, 2003; 이지연, 2005). 남한의 중·고등학생 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 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면을 가장 우선시 하는 것과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과 학업 및 사회 정착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긴박성 등이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진로정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정보에 대해서는 40.5%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저 그렇다는 26.4%,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청소년은 33.0%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0>과 같다.

<표III-4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인식한 진로정보 보유 정도

(단위:%, N=276)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르는 편이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통계치
전체		5.1	27.9	26.4	36.2	4.3	100.0	
성별	남자	6.7	23.0	31.9	34.1	4.4	100.0	$\chi^2=6.893$ df=4
	여자	3.5	32.6	21.3	38.3	4.3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5.3	29.3	34.7	25.3	5.3	100.0	$\chi^2=9.296$ df=12
	대학교	5.1	29.6	21.4	39.8	4.1	100.0	
	한겨레학교	6.1	24.5	20.4	42.9	6.1	100.0	
	대안학교	3.7	25.9	29.6	38.9	1.9	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로는 인터넷 등(38.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학교(20.3%), 신문, 벽보 등의 매체(10.5%), 선후배 및 친구(9.4%), 가족이나 친지(7.2%)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경로로 인식하였으나,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42.9%)를 인터넷(32.7%)보다 중요한 경로로 이용하여, 학교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 참조]

<표Ⅲ-41>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

(단위:%, N=276)

구분	신문· 벽보 등의 매체	가족 이나 친지	북한이 탈청소 년 선후배 및 친구	인터넷	학교	청소년 단체 및 복지관	신변보호 담당관이나 정착도우미	노동부 고용 지원 센터	교회 및 종교 기관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10.5	7.2	9.4	38.4	20.3	2.5	1.1	1.8	3.6	5.1	100.0		
성 별	남자	11.9	8.9	9.6	37.0	22.2	1.5	1.5	0.7	3.0	3.7	100.0	$\chi^2=$ 6.570 df=9
	여자	9.2	5.7	9.2	39.7	18.4	3.5	0.7	2.8	4.3	6.4	100.0	
학 교 급 별	중·고 등학교	2.7	6.7	10.7	44.0	17.3	5.3	4.0	4.0	0.0	5.3	100.0	$\chi^2=$ 65.156 *** df=27
	대학교	18.4	5.1	14.3	37.8	11.2	0.0	0.0	2.0	5.1	6.1	100.0	
	한겨레 학교	4.1	12.2	4.1	32.7	42.9	0.0	0.0	0.0	2.0	2.0	100.0	
	대안 학교	13.0	7.4	3.7	37.0	20.4	5.6	0.0	0.0	7.4	5.6	100.0	

\*\*\*p<0.001

### (3) 진로교육 경험 및 경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54.7%의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45.3%가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이 6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58.7%), 대학생(51.0%), 한겨레학교 학생(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향후 진학 및 취업 등을 연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한겨레학교의 경우에는 초기 적응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42> 와 같다.

<표III-4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

(단위:%, N=276)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54.7	45.3	100.0	
성별	남자	51.9	48.1	100.0	χ <sup>2</sup> =0.871 df=1
	여자	57.4	42.6	100.0	
학교 급 별	중·고등학교	58.7	41.3	100.0	χ <sup>2</sup> =10.257* df=3
	대학교	51.0	49.0	100.0	
	한겨레학교	40.0	60.0	100.0	
	대안학교	69.8	30.2	100.0	

\*p<0.0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학교(52.6%)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나 복지관(24.1%), 노동부 고용지원센터(6.0%), 종교단체(4.3%), 상담센터(3.4%) 등의 순으로 대부분 학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 참조]

<표III-43>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제공 주체(기관)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교 (대안학교 포함)	61	52.6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나 복지관	28	24.1
상담센터	4	3.4
가정	3	2.6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7	6.0
종교단체	5	4.3
기타	8	6.9
전체	116	100.0

(4) 진로교육 만족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가 40.9%(매우 만족 7.6%, 만족 33.3%), 보통 45.8%, 불만족 13.2%(만족하지 않는 편 10.4%, 매우 불만 2.8%)로,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하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만족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4>와 같다.

<표III-44>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경험한 진로교육 만족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11	7.6
만족하는 편이다	48	33.3
보통이다	66	45.8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5	10.4
매우 불만이다	4	2.8
전체	144	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26.1%)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체험기회가 없었다(26.1%),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없었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진로교육 시 이해도를 높이거나 직업체험 등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45 참조]

<표III-45>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필요한 정보가 없다	13	18.8
체험기회가 없다	18	26.1
이해하기 어려웠다	26	37.7
기타	12	17.4
전체	69	100.0

(5) 진로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직업전망(25.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진학정보(19.5%), 취업정보(15.1%), 직업체험기회(12.1%) 등으로 나타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향후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겨레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학정보를 가장 필요한 정보라 하였으며,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6>과 같다.

<표 III-46>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진로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단위:%, N=272)

구분	진학 정보	취업 정보	직업 전망	자격증	직업 생활의 어려움	직업 체험 기회	문제해결 방법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19.5	15.1	25.4	8.8	8.8	12.1	7.7	2.6	100.0		
성별	남자	15.0	17.3	27.8	9.8	6.8	10.5	9.0	3.8	100.0	$\chi^2=8.171$ df=7
	여자	23.7	12.9	23.0	7.9	10.8	13.7	6.5	1.4	100.0	
학교 급별	중·고등학교	23.3	12.3	30.1	8.2	11.0	8.2	2.7	4.1	100.0	$\chi^2=29.391$ df=21
	대학교	14.6	20.8	29.2	9.4	6.3	10.4	6.3	3.1	100.0	
	한겨레학교	30.0	14.0	8.0	10.0	10.0	14.0	12.0	2.0	100.0	
	대안학교	13.2	9.4	28.3	7.5	9.4	18.9	13.2	0.0	100.0	

#### 4.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학업문제와 필요한 지원

##### 1) 학교 및 학업 적응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 및 학업 적응과 관련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의 84.0%가 잘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해, 현재 대부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I-47 참조]

<표Ⅲ-47>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혹은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견해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13(16.0)	68(84.0)	81(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 및 학업 적응을 잘 하고 있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부진(48.5%)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이 밖에 오랜 난민 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36.8%)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학업부진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응답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문제로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48>과 같다.

<표Ⅲ-48>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혹은 학업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업부진으로	33	48.5
교우관계가 나빠서	1	1.5
오랜 난민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25	36.8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	5.9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2	2.9
남기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로	0	0.0
기타	3	4.4
전체	68	100.0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서의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청소년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97.5%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차이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9 참조]

<표Ⅲ-49>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에 차이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78(97.5)	2(2.5)	80(100.0)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과 남한청소년들 간의 차이는 학습능력(44.4%)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자존감, 정서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31.6%), 사회적응능력(13.9%), 사고방식(10.1%)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50>과 같다.

<표Ⅲ-50>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에 차이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습능력	35	44.4
사회적응능력	11	13.9
심리적 문제 (자존감, 정서불안 등)	25	31.6
언어능력	0	0.0
사고방식	8	10.1
기타	0	0.0
전체	79	100.0

## 2) 학교생활 및 학업개선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98.7%)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실무자의 역량강화(96.1%), 정규학교에서의 지원제도 활성화(88.8%), 대안학교의 활성화(60.3%), 특성화학교 수의 확대(5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1 참조]

<표Ⅲ-51>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특성화 학교(한겨레학교 등)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7 (9.0)	12 (15.4)	16 (20.5)	26 (33.3)	17 (21.8)	78 (100.0)
대안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5 (6.4)	7 (9.0)	19 (24.4)	28 (35.9)	19 (24.4)	78 (100.0)
정규학교에서의 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1 (1.3)	1 (1.3)	7 (8.8)	19 (23.8)	52 (65.0)	80 (100.0)
실무자(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0 (0.0)	1 (1.3)	2 (2.6)	31 (39.7)	44 (56.4)	78 (100.0)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0 (0.0)	0 (0.0)	1 (1.3)	29 (36.7)	49 (62.0)	79 (100.0)

기타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30.0%), 사회적응프로그램(22.0%), 특수교육과정(14.0%), 경제적 지원(8.0%) 등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52>와 같다.

<표Ⅲ-52>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경제적 지원	4	8.0
특수교육과정 필요	7	14.0
전문가 양성	4	8.0
상담, 심리 치료	15	30.0
사회적응프로그램 (문화체험, 또래적응, 입학전 학교적응프로그램 등) 필요	11	22.0
전담교사 필요	3	6.0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1	2.0
스피치 · 논술교육	2	4.0
기타	3	6.0
전체	50	100.0

## 5. 진로문제와 개선사항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27.2%)이고, 그 다음으로 진로전망의 불투명(25.9%), 꿈이나 목표의 부재(23.5%),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22.2%)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참조]

<표III-53>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꿈이나 목표 부재	19	23.5
진로전망 불투명	21	25.9
능력부족	22	27.2
진로지도의 부족	1	1.2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18	22.2
기타	0	0.0
전체	81	100.0

### 2)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학교)은 61.7%였으며, 운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학교)은 38.3%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4>와 같다.

<표III-54>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프로그램 운영 여부

(단위: 빈도(%))

예	아니오	전체
50(61.7)	31(38.3)	81(100.0)

(2) 진로지도 프로그램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 및 진학상담이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심리검사(27.2%), 직업체험(19.2%), 진로특강(18.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참조]

<표 III-55>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다중응답)

단위 :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진로심리검사	34	27.2
진로 및 진학상담	40	32.0
진로특강	23	18.4
직업체험	24	19.2
기타	4	3.2
전체	125	100.0

별로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교과지도와의 통합(63.3%)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지도와의 통합(23.3%), 인력 부족(13.3%) 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6>과 같다.

<표 III-56>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교과지도에 통합되어 있다	19	63.3
생활지도에 통합되어 있다	7	23.3
인력이 부족하다	4	13.3
예산이 부족하다	0	0.0
기타	0	0.0
전체	30	100.0

### 3) 진로지도 시 가장 큰 문제

진로지도 시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로는 학습능력의 부족(40.0%)이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능력의 부족(22.5%), 당장 돈 벌 수 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10.0%)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참조]

<표III-57>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 시 문제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32	40.0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 다	18	22.5
마음을 열기 어렵다	3	3.8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4	5.0
부모의 협조가 어렵다	4	5.0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8	10.0
수시로 진로를 바꾼다	5	6.3
동기가 부족하다	3	3.8
기타	3	3.8
전체	80	100.0

한편, 진로지도 시 기관(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전문적인 능력 부족(35.8%)이며, 그 다음으로 정보 부족(23.5%), 예산 부족(18.5%), 프로그램 부족(1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8>과 같다.

<표III-58>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관련한 현장전문가들의 어려움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정보 부족	19	23.5
시간 부족	7	8.6
전문적인 능력 부족	29	35.8
예산 부족	15	18.5
프로그램 부족	10	12.3
기타	1	1.3
전체	81	100.0

#### 4) 진로 문제 해결 및 진로지도 시 필요한 사항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취업능력의 향상(42.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응능력의 향상(33.3%), 동기유발(12.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참조]

<표 III-59>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사항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취업능력(기능) 향상	34	42.0
취업알선 지원	4	4.9
진학제도 개선	5	6.2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	0	0.0
사회적응력 향상	27	33.3
동기유발	10	12.3
직업능력 평가	0	0.0
기타	1	1.3
전체	81	100.0

또한 현장전문가가 생각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취업정보(8.6%), 진학정보(3.7%)보다는 적성, 흥미 등 자기이해(42.0%)와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35.8%)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진로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로 직업전망(25.4%), 진학정보(19.5%), 취업정보(15.1%), 직업체험기회(12.1%) 등을 선호하고 있어서 현장전문가와 차이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및 진학 현실을 모른 채 근시안적으로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원하는 반면에, 현장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진로를 찾게 할뿐만 아니라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 등을 신중히 고려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0>과 같다.

<표III-60>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개선 사항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자기이해 (적성 및 흥미 등)	34	42.0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29	35.8
취업정보 및 안내	7	8.6
진학정보 및 안내	3	3.7
창업정보 및 지원	1	1.2
동기부여	6	7.4
기타	1	1.3
전체	81	100.0

##### 5)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의 결정에는 주로 가족(30.9%)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선후배(28.4%), 교사(23.5%)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관련활동가나 정착도우미 등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1 참조]

<표III-61>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명, %)

항목	빈도	순위
가족	25(30.9)	1
북한이탈 청소년 선후배	23(28.4)	2
교사	19(23.5)	3
친구	5(6.2)	4
청소년관련활동가 (NGO 등)	4(4.9)	5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정착도우미	3(3.7)	6
사회복지사, 기타	1(1.3)	7

## 6. 취업문제와 주요 고려사항

### 1) 취업정보 제공

#### (1) 취업정보 제공 정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58.0%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취업정보여부를 살펴보면, 한겨레학교(100.0%)와 대안학교(93.3%)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학교의 경우에는 75.0%, NGO/복지관은 61.5%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데 반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0.8%만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2> 와 같다.

<표 III-62> 현장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 여부

(단위:%, N=81)

구분	예	아니오	전체	통계치
전체	58.0	42.0	100.0	χ <sup>2</sup> =27.346*** df=4
정규학교(중~고)	30.8	69.2	100.0	
정규학교(대)	75.0	25.0	100.0	
한겨레학교	100.0	0.0	100.0	
대안학교	93.3	6.7	100.0	
NGO/복지관	61.5	38.5	100.0	

\*\*\*p<0.001

#### (2) 필요한 취업정보

현장전문가들은 직업체험정보(58.0%)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 취업정보(16.0%)와 정규직 고용(16.0%)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에 취업정보 제공이나 직접적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III-63 참조]

<표 III-63>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아르바이트	1	1.2
정규직 고용	13	16.0
취업정보	13	16.0
창업정보	3	3.7
직업체험	47	58.0
기타	4	5.1
전체	81	100.0

(3) 취업정보 제공 시의 문제점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들은 채용기관 사람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27.8%)이 가장 큰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취업정보의 부정확성(24.1%), 구인정보와 구직자의 눈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17.7%) 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4>와 같다.

<표 III-64>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시 발생하는 문제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일자리정보 부족	9	11.4
정보의 부정확성	19	24.1
좋은 일자리 부족	6	7.6
구인정보와 구직자의 눈높이 불일치	14	17.7
채용업체(기관) 사람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22	27.8
산업현장과의 연계 부족	8	10.1
기타	1	1.3
전체	79	100.0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취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기회 제공이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취업 채용업체 사람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취업정보 제공에 적합한 기관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기관은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복지관(44.4%)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28.4%), 노동부 고용지원센터(25.9%)로 나타났다. [표 III-65 참조]

<표III-65>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취업정보 제공에 적합한 기관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학교	23	28.4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복지관	36	44.4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21	25.9
기타	1	1.3
전체	81	100.0

## 2) 취업 시 필요한 사항

### (1) 취업 시 가장 필요한 것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직업능력 함양(44.6%)과 사회적응능력 향상(37.0%)을 들고 있었다. 이 밖에 취업지도 프로그램의 개선(11.1%), 특성화 교육기관 확대(4.9%)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6>과 같다.

<표Ⅲ-66>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필요사항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직업능력 함양	36	44.6
사회적응능력 향상	30	37.0
상담 전문가 참여	1	1.2
특성화 교육기관 확대	4	4.9
부모와의 적극적인 협조	1	1.2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선	9	11.1
교사 연수 확대	0	0.0
기타	0	0.0
전체	81	100.0

(2) 취업 시 필요한 자질 또는 능력

취업 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경우에도 현장전문가들은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58.0%)을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 밖에 갈등해결능력(24.7%), 인간관계능력(12.3%) 등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Ⅲ-67 참조]

<표Ⅲ-67> 현장전문가가 인식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또는 능력

(단위: 명, %)

항목	빈도	백분율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	47	58.0
인간관계	10	12.3
갈등해결능력	20	24.7
사회예절	3	3.7
기타	1	1.2
전체	81	100.0

## 7. 소결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실태와 욕구, 그리고 향후 진로문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과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의식을 살펴보면, 진로와 관련하여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었고, 향후 진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에 대한 자신감 등은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로목표 설정이 되고 있지 못하며, 원하는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로에 대한 의욕이나 욕구가 높지만 정확한 진로정보나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둘째, 학업과 관련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를 살펴보면 학습능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학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희망하는 학교는 남한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학교배치는 실력과 나이가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나 학습능력이 떨어져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일과 학습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러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이 동시에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일자리 경험은 남한의 일반 중·고등학생들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으며, 절반 이상(55.2%)이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용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남한의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희망직업으로는 북한에 있을 때는 교사, 약사 등을 선호하여 남한의 청소년들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남한에 온 후에는 교사보다도 의사, 회사원, 은행원, 사업가, 전문경영인 등을 선호해서 탈북 이후에 희망직업에서의 변화를 나타냈다. 진로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경제적인 것으로, 적성과 흥미를 가장 우선시하는 남한의 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다. 진

로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같은 개별적인 경로를 통해서 얻고 있었으며, 40.5%정도만이 진로정보를 얻고 있었다. 진로교육 경험은 과반수 정도(54.7%)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주로 학교를 통해서 진로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로교육은 그 내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향후 진로교육 시 직업전망, 잔학정보, 취업정보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장전문가들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대부분(84.0%) 동의하고 있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 학업부진과 오랜 난민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지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의 역량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진로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현장전문가들은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응능력의 저하 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업능력과 사회적응력의 향상을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진로지도 시에 자기이해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직업능력의 함양과 사회적응능력의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취업정보 제공 시 취업제공기관들의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채용 기관 기관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IV. 북한이탈 청년의 학교 및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회고적 분석

1. 남한 사회에서 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
2. 북한이탈 청년들의 직장생활 경험
3. 북한이탈 청년들의 학교 직업생활 경험에서 발견한 학습의 의미



## IV. 북한이탈 청년의 학교 및 직장생활 경험에 대한 회고적 분석

북한이탈주민들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들(7세-24세) 또한 그 숫자가 약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내 거주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2006년 7월 통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연령대가 288명(7-13세), 중·고교 연령대가 615(14-20세)명이다. 재학률은 초등학교가 94%, 중고교는 49%이다. 2007년 4월 기준(통일부, 2007)으로 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이 다니는 일반 중학교가 91개 학교, 고등학교가 52개 학교.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있다. 기관별 학생수를 보면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85명, 일반 중학교가 181명, 고등학교가 80명이다. 남한 청소년 초·중·고 취학률은 각각 99.9%, 99.7%, 82.1%에 반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학률은 각각 70.3%, 58.4%, 10.4%(2005.5 교육부 통계)로 매우 대비되는 상황이지만 취학률은 연령이 어릴수록 꾸준히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연구 관심들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의 공통된 견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매우 어려운 적응과정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업성취에서 절대적인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적응을 겪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였다(김미숙, 2005, 박선경, 1998, 박하나, 2006, 이기영, 2001, 이수정, 2005, 정병호, 정진웅, 전효관, 이부미, 2003). 이러한 연구들의 절박한 보고로 인해, 2006년에는 대안학교형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문을 열게 되어 일정 정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초기적응을 돕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장치들의 변화도 꾀하고 있으나 이들의 적응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부적응 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본 토대로서의 교육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김미숙(2005)의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학교적응의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 분석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적응초기과정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남한사회에 도착한 지 3년 이하의 청소년들의 삶과 학습에 대한 탐색이다. 이러한 탐색은 적응의 입문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충격, 갈등,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추후의 적절한 지원과 제도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오게 되는, 또는 보다 대량으로 오게 될 사태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부분이 적응 초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적응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더 부각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함께 한 우리사회의 경험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어찌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조건적 상황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일정한 규범적 관점과 시각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닌 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시점이 되었다.

최근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에 대한 우리의 연구 시각과 관점에 대해 반성적 질문을 던지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김윤나(2007)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주로 결핍과 약점, 문제, 부적응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들을 특정한 집단이나 문제가 있는 계층으로 표상하게 함으로써, 이 집단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 이주 청년들을 구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억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자임을 부각시킨 연구(박서연, 2007), 반차별, 반억압 관점을 취한 이수정(2005)의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채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앞서 정진웅(2004)은 일방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발적 비 적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남한사회의 지배문화를 객관화, 상대화하는 '적당한 거리두기' 능력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의 성공을 한편으로는 사회구조적 적응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할 정도의 문화적 부적응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우리에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적응/부적응의 이분법적 분리의 비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포용력이 크지 않은 남한의 지배문화에서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생활도 사회문화적 적응도 잘해내지 못하는 존재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직장생활도 잘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의 삶의 역사성 안에서 보자면 자신의 경험, 기억, 정체성 등을 부단히 구성, 재구성해가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우리 사회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집단적인 수를 형성하며 들어오기 시작한지, 7-8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변화무쌍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 했으며 지나온 삶의 기억과 경험들을 회고하고 기억하기 시작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아낸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영상 다큐멘터리(기나긴 여정<sup>1,2</sup>, 영육이의 부재중 통화), 자서전(금희의 여행: 아오지에서 서울까지 7,000km) 등등의 표상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남한에서 청소년기를 거친 북한이탈 청년들에게 남한을 향한 또는 남한생활의 적응을 향한 직선적 삶의 진행 방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뒤돌아보고 과거와 현재의 기억의 조각을 맞추면서 현재 자신의 삶 안에서 이곳과 저곳의 삶을 교류하고 다시 살아내는 반성적 회고와 성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반성적 회고는 북한이탈 청년(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내면적 소통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적 삶의 양식에의 적응을 요구한 우리사회의 지배적 논리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요소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발견을 위해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생활을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와의 조화 또는 부조화가 시간에 따라 충분히 변화, 생성될 수 있는 유동적, 잠재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장기간(5년 이상) 사회적 구성원으로 거주하면서 중고등학교 경험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북한이탈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특히 그들이 면면히 살아낸 학교경험과 직장생활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들이 구성한 자신의 학교생활 경험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과 직장생활(진로)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북한이탈 청년들이 회고적으로 들려주는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관점으로 보아왔던 그들의 적응과정 및 양상을 그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측면의 적응생활 과정과 양상을 보여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운영하는 데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1. 남한 사회에서 학교를 선택한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

남한사회에 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당시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청소년기를 마치고 청년기로 진입할 나이에 남한사회에서의 중,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의 생물학적 청소년기는 이미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당시 그들은 생활전선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살면서 안정된 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겪는 독특한 경험을 유예시킨 채, 남한사회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들이 자신보다 평균 2-3세 낮은 연령의 또래들과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 현상 뒤에는 남북한 사회문화와 교육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와 삶의 과업 간의 불일치라는 경험적, 존재적 특성의 차이

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경험적으로 유예된 청소년과 먼저 온 청년의 결합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 1) 유예된 청소년과 먼저 온 청년의 결합: “몸은 어른이었고 머리는 애였어요”

생애주기의 단계가 복합된 상태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사회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청소년 때 마음껏 누리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분출한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 하나원 하나둘 학교 경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청소년인데도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좋았어요...” “또래들과 경쟁해서 선생님들한테 칭찬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19세, 20세인 청소년들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불안, 공포, 희망과 절망의 교차 등의 언어로 표상해왔다(노공순, 2004, 박일권, 2005, 장창호, 2001). 이들의 학교생활 및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글쎄요, 아휴... 또 그걸 말로 설명하려면.. (그래 말로 하기 어렵지...) 그게 어려운 게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뭐랄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랄 때예요. 그땐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관심 없는 속에서 살아서.. 관심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놀아보지 못했잖아요. 여기 한국 애들은 10대 때 솔직히 놀아봤잖아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놀아보지 못했잖아요, 놀아보고 싶다 그게 있어요. 금방 도착하면 한국에 오면.. 북한에는 그게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그게 제일 부러웠거든요. (북한에서?) 네.. 그게 청소년들의 꿈 아니예요? 한국도 요즘 오토바이 타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 때 그렇게 그게 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애들이 그때 나오면 오토바이 한 번씩 다 살 거예요, 무조건 사요, 100%. 그게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싶은 거.. 오토바이 타다 보면 또 차 끌고 싶고.. 그게 그때가 한창 놀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그때예요. 관심받고 싶고, 놀고 싶고.. 놀다보면 또 시비가

붙고.. 한국에 와서 본 게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일하고 바쁘게 사는 과정 내면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걸 테두리만 볼 수 있잖아요.(정호)

10대로서 돌아보는 경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 확인에 대한 욕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또 다른 과업보다 이들에게는 더 절실한 마음의 상태였다고 보여 진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 포커스그룹 인터뷰자들은 “몸은 어른이었고 머리는 애였어요”라고 표현했다.

**준성:** 몸은 어른이었고 머리는 애였어요.

**연구자:** 이 말에 동의가 되니?

**태식:** 그렇죠.

**연구자:** 너희 세대가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온 처음 세대인 거 같아...근데 여기 와서 어른과 아이 이 두 가지 과제 중에 어느 것으로 향하게 됐니?

**태식:** 동심이죠, 아무래도. 정신이 몸을 지배, 잡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동심이었다가 정신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담부 터는 한마디로 철이 드는 거죠.

**준성:** 비슷한 거 같아요. 그때 와서 잘 몰랐잖아요. 어른이라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안됐기 때문에 주위에 이런 걸 받았죠. 주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야된다, 학교를 갔다가 대학을 갔다가 취직을 해라. 그렇게 가라 해서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한 2-3년 지나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아이에서 어른으로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태식:**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비행기, 탱크 이런 장난감을 지금도 대개 좋아해요. 왜냐면 어릴 때 장난감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도 신기해요. 재미있고 갖고 놀고 싶고. 그런 걸 보면 지금도 동심이 느껴져요. 아까 대개 동의를 했는데, 준성이 말에. 또 처음부터 와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도 고민했었고 여기 애들보다 공부는 못 했었지만 다른 경험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준성:**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우리 나름의 세계에서는 어른이었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 와서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이였던 거죠.

**정호:** 제 생각은 다른데 몸이 어리고 정신이 동심이었다는 것보다 몸도 저희가 한국 애들 덩치에 대보면 다 작아요. (준성: 그래, 맞아) 머리 하나 딱 작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어른인데 내면, 정신 상태는 동심이었다.

**연구자:** 아.. 욕구 상태나 나의 내면적인 거는 동심이라는 거지.

**정호:** 금방 온 애들도 있고, 중국에서 몇 년 있다가 온 애들도 있고, 다 사선을 걸쳐 온 애들이니까.. 생각 상태만은, 생각만은 항상 대한민국 어른처럼 생각하는데 그 뒷면에 정신 상태는 다 동심이었다.....

**태식:** 그런 거는 완전 동심이라고 할 수 없죠. 눈치보는 거나 눈치 이런 거..

**준성:** 그니까 여기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태식:** 동심인 거죠. 그니까 여기 사회생활하는 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호:** 우리가 어떻게 놀았냐면요, 크흐흐. 스물 두살 때 문구점 가면 중국에서 파는 비비충, 그걸 갖고 놀았다니까요. 우리 스물 두 살에 그거 갖고 놀았다니까요. 크흐흠. 주차장에 서 가지고..

**준성:** 어린 시절 못했던 보상심리가..

**연구자:** 그러면 그 동심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애.. 하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게 있는 것 같애..

**준성:**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응, 그러고. 정호나 태식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놀았어야 하는 거를 못 놀아서 뒤에 와서 유예기가 되면서 뒤에 와서라도 놀고 싶은..

**정호:** 네..

**태식:** 둘 다 죠.

**연구자:** 둘 다가 있는 거지? 그런 복잡성이 그때 너희를 이루고 있었던 거 같애. 단순하지가 않네..

**준성:**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정호:** 그래서 갈피를 쉽게 못 잡은 거죠.(포커스그룹 인터뷰)

이들에겐 타인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충분히 놀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반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은 상태였으나, 미래적 과업보다는 유예된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현재적 삶에서 더 중요하고 다급했던 것이다. 한편, 그들의 성인의 삶에서 온 경험과 생각은 남한 또래에 비해 상대를 파악하고 상황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속한 대응력

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체제와 문화가 다른 남한사회에서 활용될 적응력으로 볼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으로서, 유약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결국 두 생애주기가 불완전한 상태로 오버랩 되어 있는 복잡함과 체제문화가 다른 두 공간적 지형이 그들의 복잡한 마음의 지형을 이루는 요소였다. 이렇듯 복잡한 그들의 마음의 지형은 학업과 같은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회적 요인 말하자면 남한의 학교문화와 같은 요인과 상호 작용한다.

## 2) 학교를 선택한 배경과 목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나와서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만에 학교를 가게 된다. 대개 바로 학교를 가는 경우는 주변사람들의 권유와 개입이 많이 작용하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는 보다 자발적인 경향이 있고 목적의식 또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를 선택한 목적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한국에 나와서 학교는 어떤 필요를 느껴서 가게 된 거야? 졸업장을 위해서도일 수도 있고..

**성훈:**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나와서는 쉬었죠.. 두 달 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환상이었죠.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는.. 말이 다르고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안아주겠지 그런 착각 속에 나왔는데 현실 이랑 너무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아.. 말을 배우고 생각을 배우고 여기 문화를 배워야겠다 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연구자:** ..... 서영이처럼 북한에서 학교를 다 마친 경우에는 더더구나 고등학교 안 다니고 대학을 가거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특별하게 더 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닌 이유가 있나요?

**서영:** 네.. 원래는 1년만 다니려고 했거든요..

**연구자:** 왜 1년만 다니기로 했어?

**서영:** 그냥 적응하기 위해서.. 그 시험, 테스트(대학입시) 하는 것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북에서는 눈술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자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찍어서 하는 게 많잖아요, 선택..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문법을 익히기 위해 학교를 선택하고 또 대학이라는 진로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공통적으로 보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장소, 자신의 진로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학교진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주변의 권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주변의 권유에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당연한 절대적 명제, 주변 인맥, 가족의 열망, 청소년 개인의 전망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 하나원 나와서 갈피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학교를 가게 된 거죠. 물론 본인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권유가..

**준성:** 주변의 권유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8, 90%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학교를 권유하는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정작, 남한 학교체계는 빠져 있었다. 이들에게 학교를 권유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체계는 이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진입시점에서 전혀 공식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학교를 들어가기 까지, 남한학교에 대해 문외한인 청소년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만의 혼돈이 컸다고 할 수 있다.

### 3) 학교를 들어가기까지의 혼돈

청소년들이 자신이 다닐 학교를 찾아서 입학하기에 이르는 과정까지 볼 때 배치된 지역, 학교, 인맥에 따라 수월성 정도가 매우 달라서 그야말로 운에 맡기는 상황인데 이는 공식적 시스템 작동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이다. 10여 명 안팎의 연구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입문의 수월성 정도가 천차만별이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입문과정이 학년 배치와 관련되어서 학교적응의 양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고등학교 서류 때문에 교육청에 갔는데 자기네는 모르겠대요, 통일부에서 서류가 와야 된대요. 통일부로 갔어요. 통일부는 자기네가 하는 일이 아니래요. 교육청에서 한 대요. 또 교육청 갔어요. 자기네 하는 일이 아니래요. 통일부 가래요. 통일부 갔거든요. 그럼 시교육청 가래요. 시교육청 갔는데 도교육청 가래요, 도교육청 갔는데 또 통일부 가래요. 그래갖고 통일부를 열 번 갔어요. 나중엔 진짜 화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를 현실적인 게 서류가 있어야 되고. 어디 어디서 하는 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통일부 이런 데서 .. 지역에 취업 담당 두고, 생활담당 두고.. 뭐 담당 형사 두고 이런 식으로만 해 주잖아요. 연락하면 다 되는 것처럼 해 주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해 갖고 그 사람도 자기 일이 있는데 다는 못 해주잖아요. 조금은 도움을 주지만. 그래서 제 고등학교는 제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제일 고마웠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를 그 사람은 얘기해 줬거든요 (성훈).

**연구자:** 스물한 살에 왜 6학년에 가게된 거야? 니가 거기서 초등학교 마쳤지, 인민고등중학교 조금 다니다 왔는데..

**정호:** .... 저 학력인정서 있잖아요. (어..) 그걸 떼려갔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해당이래요..... 그때 제가 말을 들은 게 누군한테서. 통일부 찾아가면 중학교로 해 준다 해가지고 제가 통일부도 찾아다니고 중학교 그냥하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겠다고.. 차라리 그냥 검정고시를 봤으면 될 걸.. 그러다하고 돌아다니다가, 쪽 팔리다고 그 때는..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 5월 달 훌쩍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거 이제 검정고시 불라면 이제 다음 해로 또 넘어가잖아요, 1년에.. 아유.. 학교도 뭐고 고등학교도 다 때려치고 나가서 일한다고.. 막 그때.. 그때가 한창 돌아다니던 때였죠.. 싸우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담당 형사님이 좋으셨어요. 무조건 니가 생각해 보라고..그때가.. 막 놀다가 담당형사님이 찾아온 게 10월 달이었어요. 그해 10월 달이죠.. 니가 내년엔 5월 달에 검정고시를 본다면 5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중학교 검정고시가 8월달에 있지 않냐 그럼 2년이란 세월이 흐른다고.... 근데 니가 이제 초등학교 등록해 놓으면.. 초등학교는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하고 안 다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꼬둠임에 넘어간 거죠.. 10월달에. 10월 말 쯤에 오셨으니까 11월 달에 형사님이 가보라.. 가양초등학교에.. 니가 가양동이니까 해당된다고. 그래 제 혼자 갔었어요. 저혼자 갔더니만 교장이 나와 가지고 안된다고, 바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되면 말지. 하하하 담당형사가 어떻게 됐냐고..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교육청 찾아가봤냐, 구교육청.. 아, 안 찾아가봤다고, 거기를 찾아가 보래요, 교육청 찾아가셨더니만 교육청에서 안 된대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냥 검정고시 보래요. 나와 가지고 담당형사한테 거봐, 그런다고.. 내년엔 검정고시 보란다고.. 다 때려치라고 했더니만.. 너 지금 어디냐고,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호호호.. 빨리 경찰서 오라 해서.. 경찰서 가서 갔더니만 차타고.. 그냥 바로 경찰서에서 쓰는 명함 있잖아요. 그거 뽑고.. 교육청 들어간 거예요. (같이?) 나하고 같이.. 경찰서 보안과에서 나왔다고.. 그랬더니만 거기 주임이 나오더라고요, 교육청 주임이.. 아, 무슨 일이냐고.. 애 혼자 보냈더니만 아까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만 되는데, 누가 안된다고 그랬냐고. 흥..... 담당 형사님이 들어갔더니만 학교에도 찾아가셨냐고, 찾아가셨다고. 학교에서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가 전화해 놓을테니까 다시 가보라고.. 어, 형사님이 나보고 가양초등학교 같이 가자고. 그냥 그 길로 갔더니만 교장 만나가지고 교육청에서는 된다는데 왜 안되냐고.. 교장이 그럼 아, 내일 부모님 데리고 오시라고.. 우리 어머니 하고 같이 갔는데 교장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안된다고,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크호호.. 막 설명을 해 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넣겠다고, 무조건 넣겠다고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죠. 한 3일을 나갔는데 3일 나갔는데 더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하하하....

**보조연구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해에서 바로 00여고에 들어갔어? 그 학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은순:** 네.. 복지관 알죠? 거기 소장인가? 복지관이 해 줘가지고. 그 뭐지. 경찰 그 뭐고?

**보조연구자:** 형사?

**은순:** 네.. 담당 형사도 데리고 가주고..

**보조연구자:** 너가 초등과정 졸업이라는 걸 형사도 알고 복지관 관장도 알고 그랬어?

**은순:** 아니요, 관장 밖에 몰랐어요. 형사는 몰랐어요. 그래서 복지관 관장이 우리학교 교장이랑 친한 친구였어요. 고향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냐, 사정을 해 가지고..

**보조연구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 1학년부터?

은순: 네..

준성: 전 학교에 김 선생님(하나원의 교사)이 연결해서 얘기를 잘 해주어서 특별하게 들어갔어요..제 의견을 듣고 담임배정이나 반도 무난한 반에 넣어주고, 미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이런 형이 오니까 잘해주라고 당부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들었어요.

연구자: 그래서 너희 세대가 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혼선이 많았던 것 같아.. 정부도 혼선이 많았고 너희들도 어디를 가야 될 지 그랬고..

준성: 나한테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어들은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보를 주고, 진짜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어떠한 정보가 확실한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할만한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포커스그룹 인터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비교하면, 북한에서 인민초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왔음에도 남한의 학력인정(4년; 6년)이 안 되어 21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반면, 네 번째 사례는 중학교 학력이 없음에도 인맥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로 가게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21살 청년에게 초등학교 적응은 불가능하다. 이 극단적인 사례에서 보면,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소극적 태도와 외면, 더 나아가서는 교육 관련자들로 하여금 초기개입을 추동하지 않는 시스템 부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물론, 남한사회 당사자들까지 혼돈스럽게 하는 문제를 초래 했다. 이는 남한사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그만큼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아직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들을 제시해왔지만, 그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자기 학문분야의 실천적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제안이라는 한계가 있다(노공순, 2004, 박일권, 2005, 이수정, 2006, 장문강, 2006).

현재 하나원에서의 청소년 교육은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위탁 실시되고 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로부터, 이들의 북에서의 학력, 학력진단, 학업육구, 정서·심리적 측면 등 다양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 자료가 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교육청으로 전달되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2008년 2월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존 학력인정 관계법령이

마련되어 교육체계의 공식적인 지원의 근거가 확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학년배정, 학력인정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구성, 운영되는데 있어, 학력인정 및 배치가 지자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렇다고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급박하게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따라서 최대한 위원회 안에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구성원들 간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한 신중한 의사교류를 거쳐 상호주관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별 학력심의위원회 간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구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공식적인 교육체계가 학교배치 시점에서 주체적으로 운영될 때 지원체계 간의 연결, 청소년들의 능력과 욕구에 부합되는 학업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 4) 첫 적응의 시발점이자 또래관계 형성의 계기: 싸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교육체계의 불참여는 이들의 정체를 알리는 문제와 직결된다.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문제는 청소년 당사자도 학교의 교사들도 아직까지도 고민스러워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인터뷰한 남학생들의 경우, 처음부터 전교생이 다 아는 상황이었다. 여기에는 대부분 학교 측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일부 본인이 허락한 경우도 있었다.

**태식:** 학교 들어갈 때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북한애가 들어오는데 뭐.. 딱 들어가기 전부터 쪽 소문이 다 났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한 삼일 전에 북한애가 우리 학교에 전학 온다,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쪽 나가 지고. 그냥 첫날 수업시간에 애들이 다 몰렸더라고요. 첫날 학교 갔을 때. ..또 거기서 짹 짹 하는 애들 또 깔칠라고 그러고. 북한이 씹 잘한다는데 너도 씹 잘 하나, 있잖아요. 왜.. 그런 애들..

**연구자:** 처음에 갈 때 니 존재가 알려졌어? 신분이?

**성훈:** 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갖고 나중에 알려지는 것보다 처음에 확 밝혀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교에서 진짜 구경났었죠. 애들 나오고..

**연구자:** 니네 세대가 다 구경나온 세대더라.. 요즘은 덜 한 것 같아.. 첫 세대가.. 어떻게 보면..

**성훈:** 학교 밥 먹는데.. 진짜 학교 창문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붙어가지고 구경나고.. 그때 처음에 진짜 민망했어요. 그이후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관심이 사라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이북에서 온 형이 있는데.. 그때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 갖고.. 총알 400발 피해가지고 왔다고.. 학교에서 막 노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개네하고 만나고 그러다보니 다른 학교 애들도 만나고.. 그러다보니 거의 고등학교 있는 애들은.. 그때 나온 애들은 다 알고...

**보조연구자:** 화진이(북한이탈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고향이 그쪽이라는 걸 얘기 했어?

**은순:** 얘기 안 했어요. 개는 중학교를 여기에서 다녔으니 애들이 거의 다 알 대요.

**보조연구자:** 아.. 고등학교 애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은순:** 네.. 중학교 때 애들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중학교가 얼마 없고 고등학교는 2개밖에 없으니까. 알잖아요. 중학교 애들이 같이 올라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으니 아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말투가 이상하니까 내가 거기서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진 않았는데 거의 알게 됐어요.

**보조연구자:** 눈치로?

**은순:** 네.. 눈치로. 네.. 그니까 보는 눈빛이 달랐죠. 어떨 때는 문자로, 번호 없이 욕하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 해라.. 어린 애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운적도 많아요.

여학생들이 암묵적으로 또래에게 북한에서 온 사실이 입혀지면서 겪는 어려움에 비해 남학생들은 전면적으로 신분이 밝혀지는 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학교 적응을 하거나 또래관계를 맺는데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지점에서 남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학생들은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외모, 말씨의 차이에 더해 심지어는 총알 400발을 피해서 왔다는 허구적 환상까지도 갖고 있다. 이

러한 허구적 환상은 북한이탈 청소년(형)들이 자신들보다 배짱이 있고 강하다는 인상을 남한 청소년들에게 심어준다. 한 연구 참여자의 얘기에 의하면, 자신이 버스를 중간 문으로 내리는 것을 2달이 넘도록 몰라 계속 앞문으로 내렸다가 운전사에게 꾸중을 듣고는, 자기와 함께 행동을 같이했던 반 친구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형이 배짱이 있어 그러는 줄 알고 나도 따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었다고 했다. 이들에게 남한 아이들 중 제일 먼저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집단은 노는 아이들이다. 자신들과 통할 수 있는 지점을 놓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북한이탈 청년들도 “우리는 개들(일반 남한 또래)과 공통된 게 없어요. 나이도 많아, 키도 작아, 공부도 못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싸움은 돼요.” 남한 친구들이 싸움이라는 행위로 말 걸기를 시작한 것이다. 싸움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체득한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한 소통기제인 것이다.

학교에서 애들이 보여 달라고. 쌤 잘하냐고 보여 달라고 그래서 보여줄게 하고 일부러 보여줬어요. 봐라, 건들리지 말라고, 나를. 그래도 건들이더라구요. 애들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샵샵한 애들(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예. 쌤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운동장에. 딱 데리고 나가서 애들 보는 앞에서 죽어라고 패냈죠. 피 뚝뚝나게. 그 다음부터 애들이, 오면 짹 퍼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하 그러더라구요. 참 황당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힘 약한 애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힘 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막 억압하잖아요. 야, 왜 그러냐, 넌 뒤라.. 그러면 애들이 또 안 그러고. 힘 약한 애들이 저를 대개 좋아했어요. 마지막에 저를 대개 좋아해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태식, 태식 어디가? 놀자고. 이름 막 부르더라구요. 이름 막 부르다가. 그런 애들이 요즘도 싸이에다가 태식, 요즘 뭐 하고 살어? 글 남기고. 호호호호 근데 또 힘센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놀았던 애들은 아직도 만나면 태식이 형 뭐하고 지내세요, 형형형 딱 존대말쓰고. 야, 아직도 그렇긴 하구나.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죠. 고등학교 생활이.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 2학년 때부터인가 애들이 그 다음에 안 거치고 인사도 하고 좀 힘센 애들도 머리 숙이고 애들이 야, 재는 공부 못하지만 주먹은 세구나 이렇게 해 주니까 학교 다니는게 재미있더라구요. 하하하하 그것마저 못하면 못하는 거야, 진짜.. 하하하하 한번 잡히잖아요, 그러

면 공부도 못해, 키는 작아, 아무것도 없어, 말도 안 통해, 문화도 달라, 씹도 못해. 뭐 이러면.. 또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먹만 썰도 돼요. 애들 주먹만 휘두르면 다 해요. 그걸 느꼈어요. 내가 휘둘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생각했었고...(태식)

**연구자:** 너희들이 학교생활을 6개월 한 사람, 4년을 한 사람, 3년을 한 사람.. 다양하게 있었거든. 거기가 애들하고 또래관계를 맺게 된 계기, 내가 그 학교에서 좀 인정을 받게 된 계기.. 그걸로 인해서 또래 관계가 형성되게 된 계기가, 소위 싸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더라구요.....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희들이 그 싸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맺게 됐고 너희의 존재를 알리게 됐고.. 선생님들 까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부분 있었던 말야. 그러면 그 싸움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너희 삶에 있어서..

**태식:**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여기서 공부나 대화나.. 여기서는 아무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싸움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서로 상대가 잘 낫다고 하는 거고, 또 싸움이라는 게 언제든지 고등학생들끼리 항상 빈번히 일어나는 거고,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남자들끼리이니깐.. 그리고 우린 싸움 같은 거는 공부처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싸움만 잘해도 솔직히 인정해 주잖아요..

**연구자:** 그래, 그런 청소년기의 특성이 있는 거야.

**준성:**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태식:** 하하하하 준성이 경지에 올랐어. 하하하하.

**준성:** 국회 가봐.. 국회 가면 싸움 잘해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온 게 아니라서 그래요..남은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정호:** 자신감이라기보다, 악.. 깡다구...

**준성:** 그렇죠. 자신감은 아니죠. 상대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이걸로도 찢러보고, 저걸로도 찢러보고. 근데 나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말빨로 하는데 내가 말빨로 할 수 있어요? 상대가 돈질하는데 내가 돈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는 몸밖에 없는데... 몸으로 때워야죠. 솔직히 자신감은 아닐 거예요.

**정호:** 그렇죠. 그거는 그냥 악이고 깡이고 그냥.. 내가 마땅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게 주먹뿐이고..

**연구자:** 그래도 자신감은 아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준성:** 그렇죠. 최소한의 근거죠.

**태식:** 그거는 자신이 있죠. 또 중국에서 대부분 다... 힘들 게 살았던 애들이니까.. 다 몸으로 때웠던 애들이니까.. 경찰에 쫓기고, 막일하고, 농사일 하고, 그담에.. 돈 뺏고 뜯기고 뜯고 이렇게 살았던 애들이니까..

**연구자:** 그럼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싸움이라는 거가 너희의 적응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출발점의 근간이.. 하나의 문제를 풀어가는 고리로써의 역할을 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

**준성:**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왔죠.

**정호:** 근데 그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쉽게 말해 그래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개념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긍정적인 것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아주 개념 없는 사람 쪽으로 보게 되면 개념 없이 나가요.

**준성:** 그릇도 어떻게 쓰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정호:**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사람은 한 30%정도? 30%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 같아요.

**준성:** 그니까 내가 이거를 나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타인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썼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태식:** 해석에 따라 다른 거죠..

**준성:** 그렇죠. 그야말로 해석에 따라 달라지죠.

**태식:** 여기 고등학교 의식수준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나 이런 거보다는 아무것도 못해도 싸움만 잘하면 주변에 애들이 저절로 왔었어요.

**정호:**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요. 우리가 올 때보다.

**태식:** 어떻게 달라졌는데?

**정호:** 옛날에 제가 우리 학교 들어갈 때만해도..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 돌이 가서 맞짱 뜨자 해서 내가 이겼어요. 이겼으면 아, 니 세다, 승복을 하고.. 남자 대 남자로 승복을 하고.. 니 세니까 우리 앞으로, 내보다 하나 어리니까요, 우리 앞으로 형, 동생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희 학교 가보면요, 북한 애들이 우리학교에 많아요. 애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시비 걸렸잖아요. 이런 쌍하고 주먹 딱 들면, 형 돈 많아요? 형, 까세요. 이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먹 들었다가 해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깐요.

**준성:** 경제가 나빠졌네.. 크흐흐.

**태식:** 실용주의를 제대로 배웠네.. 하하하. (포커스그룹 인터뷰)

싸움은 남자 청소년들의 세계에서 소위 통하는 하위문화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친구들이 싸움을 걸면 거기에 응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정리하는 그들만의 룰이 있는 게임이다. 초반의 싸움을 통한 능력의 과시를 통해 자신만의 안전토대를 구축한 청소년들은 이 능력을 무기로 약자를 괴롭히거나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고, 노는 아이들 집단 이외의 다른 집단의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활용함으로써 친구를 만들어가며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사례 중에는 싸움을 계기로 유명해져서 자기 학교만이 아닌 다른 학교의 노는 아이들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노는 문화에 흡수되었던 청소년도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전형적인 중상층 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교였는데, 졸업할 때 즈음,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부터 “우리는 형과 한 번 놀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과 적응을 이야기할 때, 남한 청소년들의 삶의 표면적 특성이나 모습과 대비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을 조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남한 청소년들의 삶의 켜켜라는 동시적인 맥락 속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보는 입체적인 시각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남한 청소년들이라고 다 공부 잘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싸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 이 싸움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싸움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 30% 미만일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싸움 하나를 두고도 이들은 ‘쓰임의 활용’, ‘상황에 대한 해석 능력’, ‘시간에 따른 현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즘 싸움을 돈으로 환산하는 남한청소년들의 세태에 대해 경제가 나빠진 건가?, 실용주의를 비틀면서 풍자적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진웅(2004)은 사회, 문화, 상징적 자본이 절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남한학교 문화에서 주변화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남한 사회의 지배문화를 객관화·상대화하는 적당한 거리두기 능

력, 일종의 배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즉 하위문화 형성을 통한 주체적 자기형식과 자기긍정의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싸움 자체가 자기 긍정의 능력을 키워 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싸움을 활용하여 관계를 맺고 주변세계의 문화적 문법을 익히는 과정을 간과한 채, 싸움의 부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하위문화 또는 주변부 문화의 잠재성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집단의 구성원들 그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든, 남한의 청소년들이든 그들의 성장 가능성 또한 잃게 된다. 그리고 하위문화의 문법적 체계를 인식하는 연구자들의 감수성 또한 더 이상 개발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단지 청소년 하위문화의 여러 양상 중 하나일 뿐이다. 싸움 이외에 이들이 적응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와 놀이문화를 찾아 주는 것은 이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일이다.

## 5) 친구관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망은 크게 학교에서 맺는 남한 친구와의 관계와 학교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맺는 북한 친구들과의 관계이다. 먼저 학교에서의 남한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한 또래들과의 관계

앞서 싸움을 통해, 노는 아이들과 먼저 접촉을 시작한 청소년들은 점차 그 관계의 폭을 넓혀나간다.

**태식:** 애들이 술 마시거나 게임방 가면 형? 궁금한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요? 뭔데? 그러면 북한에도 게임방 있어요? 물어봐요. 아니, 없다. 지금은 없어. 나중에 떡볶이 먹으러 가요. 그러면 북한에 떡볶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소리가 커짐)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과자 먹으면 북한에 이런 과자 있냐고 물어보고.

술과 게임방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권유되지 않지만 청소년들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놀이문화이기도 하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의 친구들과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시작하고 남한 친구들 또한 기본적으로 못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직접 만드는데는 질문들을 해대면서 관계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에서 좀 더 진지한 상호작용이 오가는 관계도 맺는다. 그래서 상대에게 보다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고도 오간다.

**태식:** 나중에 우리 학급 애.. 좀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좀 영어 공부를 해야된다고,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알게 될 거라구. 그래서 영어 하라고. 자기가 영어 공부하는 게 있는데 주겠다고. 그래 줘봐라 그랬더니 영어 인터넷 파일로 된 걸 주더라구요,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 막 억압하잖아요. 야, 왜 그러냐, 뱀뱀라.. 그러면 애들이 또 안 그러고. 힘 약한 애들이 저를 대개 좋아했어요. 마지막에 저를 대개 좋아해서, 마지막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식, 식 어디가? 놀자고. 이름 막 부르더라구요. 이름 막 부르다가. 그런 애들이 요즘도 싸이에다가 식, 요즘 뭐하고 살어? 글 남기고. ㅎㅎㅎㅎ 근데 또 힘센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놀았던 애들은 아직도 만나면 태식이 형 뭐하고 지내세요, 형형형 딱 존대말 쓰고.

남한 친구들에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거의가 다 형이다. 형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안부를 주고받고 만나는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통해 건강한 친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학급 구성원을 단위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노는 아이들이라는 집단을 단위로 여러 학교의 친구를 광범위하게 사귀는 사례이다.

**성훈:** 그때는 진짜 학교에서도 많이 놀았거든요. 애들 고3때니까.. 애들이랑 그때는 애들이 술 먹을 때니까.. 애들이 형 술 좀 사주세요. 이러면 제가 민중(주민등록증)은 되니까 편의점에 가서 술 사주고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연구자:** 여기 애들이 어때? 느낌? 애들이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매력도 있나? 어때?

**성훈:**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연구자:** 어떤 게?

**성훈:** 저는 형들만 다 사귀고.. 친구들 만나도 ... 이렇게.. 잘 안 맞더라고요. 친구나 동생들은.. 형들은 잘 맞고.. 친구는 잘 안 두고 그랬었는데... 제가 진짜 친구나 동생 그 이상으로 동생 2명을 두게 됐어요. 대개 마음도 잘 맞았고.. 개도 집에 가며는 형 얘기 해 갖고 반찬이나 음식을 가져오고, 집에 뭐 없으면 가서 뭐 끌고 오고.. 처음에는 개네 엄마도 반대를 했대요. 이북에서 왔다고.. 혹시 간첩일지 모르니까.. (하하하) 멀리 하라고.. 진짜 그랬대요. 나중에 개네 부모님도 형 챙겨주라고 김치도 해 주고 그렇게 대개 고마웠어요.

**연구자:**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동생 둘이 있어요?

**성훈:** 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연구자:** 면회도 가봤어?

**성훈:** 네..

**연구자:** 이 친구들은 대학 갔어요?

**성훈:** 네.. 한명은 강릉의 관동대 호텔경영이고.. 한명은 동국대인가 경찰행정학 그쪽으로.. 경찰 행정하는 애가 제가 옛날에 뺏거든요. 개가 자기 경찰 되면 형 제일 먼저 집어넣는다고..

**연구자:** 남자들은 확실히 주먹세계에서의 의리 이런 게, 교감 되는 게 있나 봐..

**성훈:** 개하고는 별로 많이 안 친했거든요. 딴 애하고 더 친했었는데.. 개가 맞고 나서 정신차렸는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항상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애들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어요. 딱 3명이랑만 놀고 싶은데.. 그러면 세명이서 약속하고 문자 보내요.

**연구자:** 딴 데로 빠져?

**성훈:** 네.. 형 오고, 집에 일이 있다고..둘러대고.. 크흐.. 세 명 도망쳐서 딴 데서 만나다가 애들한테 걸려갔고 형 진짜 나쁘다고.. 크흐흐흐 그랬어요.

**연구자:** 애들이 많이 따랐구나? 너를?

**성훈:** 그때가.. 고등학교 생활하는 게 대개 재미있었어요.

이 청년은 여러 학교의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놀고 싸움도 하다 몇 번의 큰 싸움으로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 고 3부터는 학교에서만 놀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정말 친한 친구 두, 세 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친구들 역시 그 깊이가 깊은데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처지가 비슷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성훈:** 가끔 놀라는 게 제 친구들이 내가 거기서 온 걸 아는 친구가 딱 세 명 있거든요. 사회 친구. 근데 그래도 힘들고 그러면 같이 돕고 이러는데.. 제가 사투리 쓰는 거를 몰라요. 말을 바꾸니까.. 가끔 형(탈북한)들 만나고 형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제 친구들이라고. 근데 형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럼 제 친구가 굉장히 놀래갖고 니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니 억양이 갑자기 무서워진대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하하 그래도 이해해 주더라구요. 친구들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아픔을.. 그 친구들 두명이 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갔어요. 비슷한 나이에..

**연구자:** 여기 남한 친구들?

**성훈:** 네.. 한명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명은 여섯 살 땐가, 일곱 살 땐가 엄마가 나가셨대요. 그래갖고 개도 새엄마 밑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중학교 때 소년 교양원인가 거기도 갔다 오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이제는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바로 하고 살려고 하고.....그니까 서로 그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도 개를 보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개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똑같은 거예요, 사는 거는.

이렇듯 학교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친구관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반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귀거나, 어떤 성향의 특정집단과 주로 관계를 맺는 등, 그러나 그 관계의 폭과 깊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은 공통적이다. 이들의 친구관계를 표면적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 나름대로 우정을 만들고 가꾸어가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학교생활에서 친구사귀기가 매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었다.

**은순:** 저는요, 동갑 친구가 우리 반에만 4명이 있었어요. 22살짜리..

**보조연구자:** 고등학교 때?

**은순:** 네.. 화진이가(북한이탈친구)있고, 내 있고, 한국 애들 두 명 있고 그랬었는데, 두 명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거는 화진이하고 내인

데.. 한명은 사고로 죽고 21살 때 오토바이 타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친했거든요. 근데 학교 그만둬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사고로 그렇게 죽고. 그렇게 참 어리잖아요, 나이도, 그냥 학교만 다니려고 했어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학교 애들이라고 하면 저는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친구, 우정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다보니까. 우정보다는 많이 멀었어요. 우정하고는. 그니까 내가 어리지만 내가 비유를 맞춰주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리니까 내가 맞춰줘야 하잖아요. 그니까 친구라기보다는 내한테 상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내 삶의 상대라고 생각해야 되나, 내가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3년동안 맞춰줘서.. 같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냥 재가 널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마는지 그런 건 생각안하고 웃어주고 오랜만이다.. 이려고 학교 잘 안 오다가도 오랜만이다 이려고.

그러나 이 청소년은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상대로 친구사귀는 일은 매우 어려웠지만, 몇 달 다닌 대학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연령이 다양한 사람들과 매우 활발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은순:** 엠티 때도 진짜 재미있었고.. 또 항상 나는 대학교 가서 나이 공개 다 하고 거기서 왔다는 건 공개 안 하고.. 같이 신입생으로 들어온 애들도 같은 과 애들은 누나, 언니 그러면서 잘 따르고 내가 과대였으니까..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선배들한테 가서 놀았거든요. 과대니까.. 2학년 과대가 나랑 동갑이었거든요. 이제 개랑 점심 먹으러 가고 오빠들이랑, 선배들이랑 놀고 재미있었어요.

사람들 딱 보면 만나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들어와요, 감이 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맞춰줘요. 그렇다고 막 애교 떨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하는 얘기도 해 주고 진실 되게 막 다가가는 거..

**보조연구자:** 니가 그러면 학교에서든지, 알바를 해서든지.. 쪽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대한 간파가 빠르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구나..

**은순:** 네.. 그런 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뭐 한 36살 언니도 있었거든요. 36살 언니였는데 그 딸이 저보다 2살 어렸어요. 그 언니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남편 이랑 이혼해서 딸이랑 둘이 내려와서 뷔페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

요. 거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남편이야기를 하면 나는 똑같은 나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혼 하면서 겪은 게 아니고 보면서 살아온 게 있잖아요. 언니가 그런데서는 힘들었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높낮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를 마쳤으니까 어린 애들은 또 어린애들한테도 맞춰줄 수가 있고 또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나이 많게 또 해주고.

친구 사귀는 일에 있어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우정의 교감, 마음을 주고 받는 상호교류가 있는가가 더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친구를 사귀는데 다소 어려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인적 환경이 달라진 장소에서는 또 변화될 수가 있다. 특히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어울렸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여러 사회문화적 조건이 다른 남한의 2-3세 어린 또래들을 처음부터 잘 사귀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다니는 내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그동안 즉 학교생활 이전에 겪었던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겪었던 또래 관계적 경험 모두는 이후의 삶의 연속성 안에서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는데 작용하고 있음을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다음은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남한 친구들 못지않게 중요한 북한 친구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지 살펴보자.

## (2) 북한 친구들과의 관계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중국에서 같이 넘어 온 북한 친구들은 속내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친구이다. 그러나 이 친구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자:** 여가 생활이나 취미 같은 거는 어떻게 보내요?

**태식:** 그 인터넷 뒤지고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연구자:** 주로 어떤 사람들 만나요?

**태식:** 여자친구 만나고, 가끔씩 대학교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이런 인터뷰도 하고요, 가끔씩 교회도 가요.. ㅎㅎㅎ 진짜 할 일 없으면 저기 푸른마을 있거든요, 창성이, 창민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갔었어요.

**연구자:** 이게 일종의 태식의 사회적 네트워크인데 여자친구, 남한친구, 직장동료, 북한이탈자친구,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네.. 옆집의 아줌마까지.. 가서 밥도 달라고 그러고..

이 청년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친구들과의 관계가 빈번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친구 집단형성도 동연령이기보다는 2-3살 위아래의 형, 동생과 동년배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사회에 들어 온 초기에는 자주 만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횟수가 줄어든다. 그 이유에는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성:**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형들이랑 아마 같이 살았으면 지금처럼 적응도 잘 못했을 거 같아요. 시골에 짱 박혀...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 형들이랑 같이 살았으면 지금처럼 적응 못했을 거라고?

**대성:** 형들이 학교 다니고 싶었던 사람이 있나? 학교 다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날라리, 놀기 좋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놀다 보니까 맨날 술 마시고 나가서 싸움박질 하고. 정호형은 그나마 (정신을 차렸지..) 정신을 차린 거죠. 학교 갈지 않은 학교를 다니긴 했어도, 올라갔으면 아마 저두 다를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형들 진짜 한번씩 보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가잖아요. 진짜 안타까웠거든요.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사나..

**연구자:** 형들을 보면?

**대성:** 네.. 진짜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퍼먹고 밤이면 맨날 게임하다가 낮이면 자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심지어 같이 넘어온 사람까지. 죽을 고비를 하고 넘어온 사람까지 그렇게 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심정이. 그렇게 죽을 고생해 와 가지고, 고작 이런 꼴밖에 못 사나. 진짜 내가 형이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욕도 하고 그랬을 텐데.. 동생이니 왜 이렇게 사냐고 할 수도 없고, 정신 차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자존심 상해 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제. 한편으로는 시골에 짱 박혀 있는 것도 잘하긴 잘한 거 같아요.

**연구자:** 결론적으로 여기 시골이 너한테...

**대성:**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형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니 우리랑 있었으며는 담배 꼴초에, 알코올 중독에.. 그래 되지 않았겠나 그래요.

**연구자:** 왜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해?

**대성:** 적응이요? 일단 부모님 안 계신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 없어요. 서울 같은데 보다는 저처럼 북한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데 와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요..

북한이탈청소년들 중 많은 수가 초기에는 적응이 매우 어렵다. 그런 친구들이 지역에 모여 살면서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많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에서부터 해왔던 술과, 담배, 싸움은 남한 사회에서 노출된 pc 방, 게임중독 등과 함께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이런 집단의 문화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관계를 멀리하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대상에 한해, 개인적 관계를 맺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 같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해 그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북한 동료들(형, 동생, 또래) 중심으로 관계가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너처럼 북한 친구들 안 만나는 친구도 있고. 또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많이는 안 만나. 자기들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알아서 그러나?

**성훈:** 예, 맞아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만 만나죠.....

근데 그게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요,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우정이거나 의리로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살다보면 서로 서로가 자기 삶을 잘 꾸려가면서 가야만이 진짜 의리가 돈독해지고 우정도 돈독해지는 거지.. 둘 중에 한명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무리 의리가, 우정이든 뭐든 해도 안 되더라구요. 서로가 자기 삶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만나면 내가 밥이나 술이나 한번 사주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자기가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되어만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안그러면 무턱대고 뭐.. 그냥 기분에 술먹고 이런 거는 안 되더라구요.

**연구자:** 만나보니까 친구들이 북한이탈한 친구들하고 관계가 넓은 관계가 아니라 좁으면서 깊은 관계더라구?

**준성:** 이제 그야말로 돌인지 옥석인지 보석인지 가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야말로 애도 찢어보고 재도 찢어보고 다 찢어봐요.. 그러고나서 애는 안 되겠네.. 관계 끊어요. 임마는 괜찮네.. 깊이 가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돌무지 속에서 보석을 골라 냈어요. 한 몇 개를 요, 그 나머지 돌들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포커스그룹 인터뷰)**

서로 말이 통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 중심으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정도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잘 꾸려나가는 상호관계에서 돈독해지고 의리도 생긴다는 것을 터득한 것 같다. 이것이 이들이 말한 현실적인 도움의 의미로 보여진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남한친구보다는 북한 친구가 조금은 더 깊은 자기 얘기를 쉽게할 수 있는 상대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친구관계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박선경, 1998, 이수정, 2005, 장문강, 2006). 이에 비해, 김활수(2006)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친구로서 남한 친구들을 규정한 범주를 ‘믿지못할 친구’, ‘좋은 친구들’, ‘친구들의 조언’등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친구사귀기의 다양성을 다소나마 포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친구관계를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는 남한 친구, 북한 친구를 다 포함하여 친구 사귀는 양상의 스펙트럼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 현실적인 판단을 근거로 한 우정과 마음 나누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학교생활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사회에서의 북한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한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과 인식은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통합된 형태로 변화, 조정, 진행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 6) 교사와 통하는 관계 :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많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에서 교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박하나, 2006, 장문강, 2006), 이기영(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보고도 있

다. 연구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경우 교사와 매우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한 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사들과 왕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서너 명이나 있었다.

**은순:** 그래도 뭐 생활하다보니까 애들 눈빛도 이상하고 진짜 학교 안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담임을 잘 만났어요. 담임선생님도 어차피 내가 거기서 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엄마가 겨울이면 봉어빵 장사를 했어요. 남들, 다른 반 선생님들은 회비가지고 애들 자장면 시켜주고 고기 구워먹고 이랬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봉어빵 사다가 애들한테 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방학 때 되면 한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엄마 가게에 가서 도와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고마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도 학교생활을 잘 안하고 싶어도 하게 됐어요. 1학년 때부터.. 그리고 2학년 때 담임을 잘못 만났는데 그 담임도 내가 거기서 왔다는 걸 알았는데 못됐다고 해야 되나, 2학년 때 담임은 좀 잘못 만났어요. 안 좋았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연구자:** 교사, 선생님들하고는 어땠어요?

**태식:** 그냥 잘 지냈어요.

**연구자:** 잘 지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태식:**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연구자:** 의도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태식:** 네.. 담임선생님도 그렇고 담임이 아닌 분도 그렇고. 저같은 경우에 1학년 딱 들어가서 말썽을 부렸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임선생님이 다 체육선생님이셨어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잖아요. 나한테는 안 무섭게 했어요. 애들이랑 담배 피웠었어요. 담배 피는 거 대개 단속이 심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막 담배피우고 그런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해 주셨고. 애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먼저 별명 붙여주고. 나한테. 수업 시간에 별명 부르고, 종례시간 같은 경우에도 애 40명이 있으면 애들 일일이 다 장난 못 쳐주잖아요. 맨날 종례시간 끝나고 나서 나한테 항상 장난쳐줬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게 나한테 그만큼 의도적으로 배려해 준 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하니깐 애들도 편애한다고.. 물론 그 선생님이 장난끼 대개 많아요. 체육선생님이니까. 지금도 만나고 전화하고 그

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취직한 기념으로 선생님들 저녁대접 했잖아요.

**연구자:** 고등학교 선생님 다?

**태식:** 다는 아니고.. 담임이랑 한 8명 왔었어요. (음..) 나는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다 지명했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못 오시는 분 빼고 한 8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먹고. 계도 나오는 뷔페집이었는데 거기 가서 저녁 사드리고,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선물도 사오고. 옷이랑 정장 이런 거 갖고 왔더라고요.

**연구자:** 선생님들이 너 취직했다고 좋아하셨겠다.

**태식:** 네. 잘 산다고 그러죠. 요즘 사고 안 치냐고 그러고, 안 싸우냐고 그러고.... 이제는 안 그러죠.

**대성:** 그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셨고, 스승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선생님들을 잘 만났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잘 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학교에, 고등학교에 찾아가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도.. 그 선생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진짜 엄마처럼, 엄마 아버지 오시기 전까지 정말 잘 해 주셨는데요, 그 분이랑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아버지 같은 분.. 무뚝뚝하시면서 엄할 땐 엄하시고 가끔 지각도 하잖아요. 지각할 때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 보든 말든 무조건 손 들어. 아, 그땐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 나이 먹고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하하하 그렇게 많이 엄하셨는데...마지막 학교 붙을 때까지.. 계속 학교랑 솔직히 고3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써주시죠. 근데 학교 입학관리과부터 시작해서 본부에 계속 연락하시면서 면접은 어떤 식으로 보냐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냐, 체력 실기 테스트 같은 건 어떻게 보냐. 전화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가 뭔지 선생님이 먼저 학교에다가 계속 전화해 주셔가지고 학교는 진짜 잘 간 것 같아요. 전. 제가 원하던 학교를 왔거든요. 대학교.

**연구자:** 교사하고 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태식, 준성:** 선생님들하고는 좋았죠.

**태식:** 몇몇 선생님은 빼고..

**준성:** 다 막장은 있어...

**연구자:** 막장? 막장이 뭐야?

**준성:** 아니, 어디가나 사회 쓰레기들이 있다고... 없으면 좋긴 한데 덜 좋은 선생님들이 한 두분씩은 계시더라고요.

**태식:** 우리학교는 한 100명이라고 하면 한 40여명은 많이 생각해 왔고 55명 정도는 무관심했고, 한 2-3명은 확실히 싫은 걸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중 한명은 대개 심했죠. 어디가나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진 않으니까..북한이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준성:** 그럼, 뉴라이트일 수 있고

**태식:** 뭐.. 영.. 하하하....그치..

**준성:** 사람들이 똑같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자:**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그 선생님들이 보통 남한 애들하고도 관계가 좋았어? 어땠어?

**태식:** 그렇죠.

**준성:** 원래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정호:** 그런 선생님들은 뭘 아냐면요, 애들을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잘 대해 준 거예요... 애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연구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애들을 잘 끌고 다스리고 할 줄 아는데, 거기에 너네들도 포함됐다 이거지?

**태식:**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잘 다스리는 선생님이긴 했는데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더 주셨어요, 사실... 교실에 들어갈 때 등도 쳐 주고.. 그게 더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준성:** 사실, 특별한 관심을 더 받았어요.

**연구자:** 너희들에 대해선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주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신뢰를 해 주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볼 때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보면 또래들 경험보다는..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더 유능하다라고 할까.. 더 많았다고 할까?

**준성:** 저희는 그 당시에 어렸지만 우리가 상대했던 상대는 다 어른들이었죠.. 저희는 애들하고 상대를 못해 봤어요. 그 당시에는. 맨날 어른들을 상대해서 일하고 생활하고 다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른들의 세계를 좀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래서 내 생각에 성인들과의 관계를 좀 더 유능하게 하는 능력들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준성:** 나름대로 눈치가 빠르다고 자부를 하지만 어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 좋아지겠는지..

**정호:** 쉽게 말해 상대방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을 미리 캐치한다든지..

**준성:** 긍정적인... 삶에...

**연구자:** 그런 것도 있고 일정 정도 인성교육도 있었던 것 같애.. 북한의 교육이 깎뚫하다며, 어른들한테는...

**준성:** 음.. 자유분방함은 없었죠(북한 교육이)..

**태식:**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같이 어디 갈 때나 교무실에 들어갈 때나 항상 애들이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계단을 쪽 내려갈 때도 제가 따라가요. 같이 갈 때도 애들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을 뒤따라갔었어요. 문을 먼저 열고, 닫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확실히 남보다 공부는 못하는데 예의나 사회생활을 잘 한다고... 다른 애들보다 참 잘한다고 했어요..

**연구자:** 그런 것들도 한 편 있었던 것 같고..

**준성:** 그런 좀 교육을 했어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교나 선생님의 위치가 굉장합니다. 그제. 우리나라의 교사라는 일반 직업군이 아니라.. 선생님은 직업의 이상을 뛰어넘는 옛날 봉건시대에..

**연구자:** 스승..?

**준성:** 예.. 그런..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항상 몸에 배이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머리 속에 남아있으니까 좀 철이 든 때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연구자:** 그래서 교사들과의 관계 내용을 보면 물론 지식을 주고 받는 것도 있었지만 너희들이 더 의미롭게 여기는 거는 그들로부터 삶을 안내받고 인생을 좀 안내받는 교육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 같아..

**준성:** 선생님을 통해서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후원자 비슷하게..

**정호:** 저는 후원이라기보다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 준 게.. 대부분 선생님들이 해 줬죠.

**태식:** 선생님이 도와주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끔식 밥 먹으러 데려가주고.. 장난도 쳐 주고 그랬어요.. 한쪽 구석 가서 담배피고 오면.. 담배피지 마라 그리고 냅두고 탄 애들은 벌점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오면 그리고 학생부실로 불러가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모든 척 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아쉬

운 게 선생님이 3학년 때라도 불러서 취미가 뭐냐, 솔직히 너 뭐하고 싶냐,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물어왔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보고 다 종이 하나 주고 다 적어내라고..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그날 밤 뭐할까 뭐할까 걱정을 했어요. 뭐 신문보기 좋아하고 책보기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 신방과 가자.. 제가 결정한 거예요.. 물론 제가 결정은. 그거는 그렇게 선생님을 원망하는 거는 없지만.. 음..

**연구자:** 좀더 세심했으면..

**태식:** 네.. 좀 세심했으면 난 잘 모르니까 전공이 뭔지 몰랐으니까.. 불러서 너 어디에 관심있냐 이렇게라도 조언해 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무작정 잘 해 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교사였다면 다른 북한 사람이 왔다면 아마도.. 선생님 입장이었다면 물론 평소에 잘 해 줬어요, 장난도 쳐 주고..

**준성:** 정작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는..

**태식:** 응... 대학교 갈 때는...

**준성:** 아. 그게 상당히 아쉽네.. 그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일텐데..

**(포커스 그룹 면담)**

이들이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먼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선생님들이었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 또한 어른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접하는 지 그 방법을 북한이탈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터득해 온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가 남한 또래들에 비해 정중했다고 보여 진다. 이들이 교사와 교류했던 부분은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관계 안에서의 지원이 컸던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미래와 관련해서 성의 있는 진로지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점은 그들에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남한에 와서 낯설고 어려울 때, 교사의 관심과 정서적 지원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와 맺은 좋은 관계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큼, 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적 지지자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주지는 않는다. 이들에 따르면

한 학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교사 중에 반 이하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이고 나머지는 무관심하며 그 중 소수는 거부적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산술적 분포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보이는 관심의 유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선생님을 만날 확률적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한 기회의 가능성이다. 이 인적 구조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교사연구와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타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sup>48)</sup> 이러한 교사교육은 무한경쟁으로 질주하는 우리 교육사회에서 그 궤도를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교사들로 부터 인생의 안내와 삶의 지혜를 받았다고 했다. 이 점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및 내용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은 표면적 교육 내용인 학습과 지식을 교육받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바로 이 학습부진, 부적응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 7) 학업성취의 가능성과 한계 : “식귀에 경 읽기”

→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과업이 학업수행이다. 이들이 학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북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학업과정, 남북한 학제의 차이, 남북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이, 약 5-8년 정도의 긴 학업 공백기, 언어의 차이, 남한의 독특한 학업문화 또는 사교육 열풍 등등이다. 이러한 많은 제

48) Igoa(1995)는 이민 아동을 위한 교사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 자기문화의 방식(교육방식)에 대한 이해, 이민아동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이민 아동의 나라의 교육제도와 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교육적 부모로서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내용이 다문화 교육의 내용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을 만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약요인들은 이들의 학업수행을 좌절하게 만든다.

**성훈:** 공부는 솔직히 다 생소했어요. 학교 다니며는 진짜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진짜 한 개도 못 풀겠고, 영어는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저도 러시아어 배웠거든요. 영어 들으면 진짜 뭐. 모르는 팝송 듣는 것 같고.. 듣기 문답을 할 때는 단어만 외웠다가 마지막 끝나는 단어만 듣고 찍고 그랬었어요. 하하하. 그래도 찍고 그래도 오십 몇 점, 육십 몇 점 이랬거든요. 애들이 형은 놀아도, 공부 안 해도 오십 몇 점 나온다고, 자기는 밤새도 칠십점 맞는다고.. (하하하)

청소년들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여기는 과목이 국어, 사회, 역사 등 인문사회계열이라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영어와 수학이다.

**은순:** 고등학생이라서 호프집에서는 안 시켜주는데 나이가 두 살 많으니까 그때부터 알바하게 되고, 학교 가서 항상 자고. 하하하. 항상 누워서 자고. 중학교를 뛰어서 넘었으니까 들어도 솔직히 따라가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국사, 사회, 가정.. 가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잘했어요. 100점이고, 제출숙제 있잖아요. 십자수 같은거.. 그런 거 애들 꺼 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뭐지 그.. 토요일 마다 하는 거.. CA.. CA 활동 하는 게 주방 야채 조리.. 그거 했었거든요. 뭐 만들고 애들꺼 다 해 주고 그런 건 진짜 선생님도, 조리하는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그런 건 1등이고 다른 건 몰랐어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과학할 때는 자고 있고....

그러나 어떻게든지 자신들에게 어려운 과목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대성:** 제 여자 친구도 거의 학교는 저쪽이었는데(북에서 다 다녔다는 뜻), 여기 와서 피나게 노력해서.. 진짜 영어도 알파벳 하나도 모르는 그런 애였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연대까지 갔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다녔거든요. 세 살 어린 애들 하고 근데 그 애들하고 실력이 안 맞춰지니까 밤새면서 맨날 코피 흘리면서 그렇게 공부 했어요. 따라잡으려고.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

어요. 처음에 영어 20점 맞았는데 80점 맞는 거 보고 야, 노력한 결과가 보이니까. 노력을 안 하고서 얻는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노력을 해야 얻는 게 있지, 노력을 안하고 무조건 안된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공부 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북한에서 바로 대학교 다니다 온 사람 빼고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안 되면 노력을 해야지.

**태식:** 수학은 포기했었어요. (음).. 근데 영어도 처음에.. 북한에서 배워서 그런가?(미국에 대한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뜻) 그것도 그렇고. 제 주변사람들 다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여기와서도 영어를 안 배웠어요. 개졌어요. 미국말을 왜 배우냐고. 계속 개기다가 3년 동안 그렇게 영어 공부를 안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랑, 사회였어요. 또 점수가 나오는데 두 개고. 그 두 개가 제일 잘 나왔고. 그래가지고 계속 신문만 봤죠. 신문만. 신문을 많이 봤죠. 적응하는데 빠르다고 해서. 조선일보, 한겨레 계속 봤죠. 수학 같은 건 아예 포기해 버렸고, 영어는 안 하다가, 나중에 우리 학급 애.. 좀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을 알게 될 거라구. 그래서 영어 하라고. 자기가 영어 공부하는 게 있는데 주겠다고. 그래 쥐봐라 그랬더니 영어 인터넷 파일로 된 걸 주더라고요, 메가 스테디에서 준게 있는데. 영어야 뭐지, 해마 암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해마를 자극해서 영어를 암기하는 법이에요. 예컨대 뭐 **tragic**하면 비참한 이잖아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요, 쥐가 갔다가 쥐덫에 걸려갔고 트레 짝 해가지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tragic**이래요. 하하하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해요. 하하 그런 식으로 그 선생이 메가스테디의 경선식 선생님인데 대개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한.. 공이 굴러간다, 굴러가니까 지구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니까 뭐. 아무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동안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그거 해 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하나 다 뺐어요. 우와, 그때문에.. 나중에 밥 사주고 그랬었는데. 니 때문에 영어 다 외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법은 몰라요, 영어 단어로 풀어요. 뭐 풀라고 하면 단어를 짝 외워가지고 단어를 보고 아, 답이 요거구나 하면 한 절반은 맞아요. 하하하. 수능볼 때 그런 식으로 단어만 보고 짝 짝했는데 영어가 절반 맞았어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했었고. 영어는 한 6개월 동안 했어요. 수능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죽어라고 영어공부를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이들의 전체 석차는 하위이다.

**은순:**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반에 36명이 있었는데 33등을 했어요. 아하하하.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대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33등이라는 게, 나이도 있고 그런데, 화진이는 25등 이래 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 학기는 진짜 미친 듯이..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독서실이라는 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25등을 했어요. 화진이가 하는 25등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또 인제 좀 나는 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또 놀다보니까 33등을 다시 내려가고.

**태식:** 제가 마지막 두명 따라잡았잖아요. 개네들이 마지막에 3학년 올라와서 포기한 애들 있잖아요. 난 대학 안가고 공장 갈 거야, 호호 그런 애들. 한 학급에 한 40명 중에 한 2명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 따라 잡았었어요. 야자, 야간자율학습인데 전 3년 동안 야간자율학습 내내 했어요. 아침에 6시 50분까지 등교했나? 몇 시에 갔지? 아무튼 집에 밤 11시에 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야자 안하는 애들 있잖아요. 진짜 공부를 포기한 애들, 그런 애들 2명 따라잡았었죠.

이런 자신들에게 영어나 수학과 같은 과목은 특히 더 어려운데 이런 수업은 그들에게 ‘쇠귀에 경 읽기’라고 했다.

**태식:** 공부는요, 여기서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니까 여기 애들은 이제 예컨대 통 강냉이 먹을 수 있는데, 북한 애들은 통강냉이 아무도 못 먹잖아요. 애기가 통강냉이 못 먹잖아요, 이빨도 안 낫는데. 그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못 따라가요. 진짜. 애들은 실력은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인데 만약 중학교 3학년에 다닌다 그러면 특히 수업시간에 쇠귀에 경 읽기잖아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진짜. 별도로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요. 그니까 국어, 사회는 기초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영어 수학은 절대 못 따라가죠. 지금도 영어, 수학 중요하잖아요. 국어보다도 어찌 보면 ‘어린지(orange)’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하죠. 거의 뭐. 승산이 없죠.

쇠귀에 경 읽기는 학업성취로 보면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뭘 배우는 것일까? 자신들의 실력을 남한 또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쇠귀에 경 읽기이지만 자신들만의 성취로 본다면 서당개 3년, 풍월을 읊는 정도는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대상:** 지식도 진짜 무시 못하죠.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가만히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정호:**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내가 공부를 안해도 수업시간에 들어가 앉아만 있어도 공부 되거든요. 그게 나한테 공부가 되요, 듣기만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앉아만 있었어도...) 네... 들어가서 앉아만 있었어도, 잠자더라도, 잠결에 들었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그거예요. 진짜요..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잠결에 들었어도,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떠드는 걸 잠결에 들어도 듣거든요. 잠결에 졸면서라도 내 그거 들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겠다.

서당 개 3년 만에 풍월을 읊는다는 것은 학습에 대한 그들의 자조적 평가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학교경험을 통해 획득한 것은 풍월을 읊는 서당 개가 전부일까? 그들은 그 이상이 있다고 했다.

## 8) 학교 공부의 의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의 공부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대식:** 근데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공부만.. 사실 학교가 공부 배운다는 게 인식이 돼 있긴 하지만 학교가 공부 배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거 대개 포괄적으로 배우잖아요. 사람들 그걸 대개 무시하던데, 북한 애들은 공부보다도 그게 더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부배우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나둘 학교, 한겨레학교, 대안학교가 낫죠. 거기 가면 맞춤형 교육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부할 거면 진짜 같은 문화에, 그것도 다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이고 친구들도

더 편하고, 같은 문화이니까. 거기 가면 공부하기가 더 쉽죠. 맞춤식 교육이니까. 따라가기 쉽죠. 근데 한국사회에 온 이상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이나 남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는지 포괄적인 걸 배우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고등학교 생활도, 저도 고등학교 3년 생활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공부도 별로 못 했구요, 3학년 때까지 공부 대개 못했구요. 아, 남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물며 버스 타는 것도 배웠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현금 뽑았다, 뺐다 하는 것도 배우고,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다 배우고, 커리큘럼도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다 배운 거죠.

**은순:**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인간관계와 관련도 있고.. 공부라는 게 맨날 쓰고 머리속에 넣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맨날 쓰고 외우고 하면 머릿도 좋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나는 틀려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적응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의미를 학업 말고도 남한사회 적응, 사회생활, 인간관계를 포괄적으로 배우는 과정에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 나름의 공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공부는 지식획득을 넘어, 보다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면서도 포괄적인 특성을 띠고 있었다.

**연구자:** 너희들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적응 대 학업 이렇게 해 봤을 때 적응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두더라구요.

**태식, 정호, 준성:** 그렇죠.

**정호:** 그게 우선이죠. 적응이.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내가 날고 뛰어봤자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태식:** 그래도 공부 잘 하면 괜찮거든요.

**태식:** 적응에 훨씬 더 무게를 두었죠. 두말이 필요 없어요. 학교라는 게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전 나중이라도 결혼해서 애 낳고 하면 공부도 물론 해야겠지만 공부보다도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법이나 사회생활하는 거나 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또래들이랑 어울려서 배우는 거지.. 그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북한에 와서 여기를 잘 몰라서 그럴 거라고 하겠지만.. 제 아들 나와서 여기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저는 그것도 대개 우선순위를 둘 것 같아요. 다른 공부만큼이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이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정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업만은 아니다..

**준성:** 그럼요. 학교잖아요. 배우는데 잦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운 것의 일부분이고... 말로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걸...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학교교육은 적응과 학업 수행의 두 축이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적응생활과 같은 포괄적인 배움의 과정을 중심 축으로 해서, 교과목을 통한 지식의 획득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학교경험을 자신의 삶속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정호:**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그 4년 동안이 제일 과도기였어요. 말썽도 제일 많이 피웠고, 그 사이에 말썽 피우면서 사람 됐고.. 아직은 사람이 다 된 거는 아니지만.. 무슨 제가 한국에서 말하는 지식 상으로 배우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지식으로 배운 거는 별로 없었지만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인간 세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구자:** 그.. 학교생활 2년이 너한테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힘을 주었다고 생각해?

**성훈:** 자신감을 준 거 같아요. 처음에 학교가 좀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학교생활하고 사회 나올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연구자:** 졸업하고 나올 때는..

**성훈:** 그때... 아...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을 하며는 어디 가서 맞지는 않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있고 사회에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말을 바꾼 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문화도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빨리 배웠고.. 회사 생활해도 제 나이 애들이 있잖아요. 개네하고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거기서 왔다고 학교 안 다니고 일을 했으면 좀 주눅도 많이 들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학교 다닌 게 잘 됐다.. 지금도 학교 다니는 게 후회한 적 없냐고 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결정 내린 것 중에서 제일 잘 내린 것 같아요.

**연구자:**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남한사회에 온다고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고 한국사회가 이런 건 실패를 했는데 이런 거는 보완을 해라..

**준성:** 너무 풀어놓으면 안돼요. 스파르타식이 필요해요.

**정호:** 빙고, 내가 그 말하려고 했는데..

**준성:** 교육 좀 시켜야 돼요. 애들이 아, 이거 배우기 싫어요 이러면 아, 그럼 그거 배우지 말고..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호:** 이것 싫다고 그러면 또 이거 해 봐..

**준성:**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너 안하면 북한 가야 된다.. 때로는 강력한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쪽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정호:**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게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온 상태라...(스파르타식이었다는 뜻)

**준성:**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못 배운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회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로..

**태식:** 저는 생각이 다른데.. 그걸 그렇게 강요를 해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준성의 궁극적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계몽시키자.. 저도 물론 그거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우면 좋아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여기가 진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강제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준성:** 자율성으로 모든 게 잘 해결이 되면 이런 방법이 필요 없지.. 근데 현실적으로 많이 풀어놨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

**정호:** 이것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니가 뭘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다, 그걸 먼저 찾아가지고 그걸 교육 시키면 괜찮은데..

**태식:** 난 그것도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다 큰 애들 그렇게 억지로 공부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된다, 안 된다는 자기 의지대로.. 진짜 자기 의지대로.. 나도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 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원래부터 난 대학에 가야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다녔던 거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 다녀.....

**준성:** 그거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문제가 안 되지. 계획이 없는 사람

이라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고.

**태식:** 근데 내 말 들어봐 봐. 근데 그 사람들도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야. 계획은 있어. 난 막일 할 거야, 공장 들어갈 거야. 계획이 없는 거 아니잖아. 그 거는 그 사람의 하고 싶은 걸 인정해 주고 꼭 대학을 가는 것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아니란 말이야.

**준성:** 뭐야. 내가 대학교육을 그렇게 시키자는 게 아니라..

**태식:** 아니, 학교 교육은 물론 하면 좋아.. 난 하면 좋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야.

**연구자:** 근데 애(태식)는 하면 좋은데 그게 사람에 따라 강제로 해서 될게 있고 어..

**태식:**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는 거야. 그건 사람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대학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 근데 강제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니가 강제로 하고 싶으면 니가 왜 대학 가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득시켜야 돼, 상대방을.

**준성:** 당연하지.

**태식:** 근데 너는 강제로 한다, 스파르타식으로 한다는 거는 잘못 된 거야. 그 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자체는 너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원리를 다 뒤엎는 것 밖에 안 돼.

**준성:** 아니, 막말로 나 같은 사람이 사회에 많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안 된다매.. 그러니까 나 같은 방식이 이 사회에 주류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 그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그러하기 때문에..

**태식:** 주류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기 싫은 걸 강요해도 된다는 거야?

**준성:**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하던 때리던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태식:** 니가 뭐고, 다른 사람이 뭔데?.. 너 그럴 권한이 없어.

**준성:** 그니까 길이 맞다고 하면 그 바른 길로 억지로 보내야 하는 거야. 가기 싫다고 가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옳은 길이면 죽든 살든 우린 가야 돼.

**정호:** 이쪽(준성)에서 말하는 거는 꼭 대학 교육만, 공부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고 모든 면에서..

**태식:** ... 강제적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야.

**정호:** 교육만이 아니라..

**준성:** 기본적인 도덕을 아우르는거지..

**정호:** 모든 면에서 쉽게 말해 기술 하나를 배운다고 해도,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고 해도, 자동차 정비가 이 사람이 취미가 있는지 없는지..

**태식:** 그걸 말하는 거야?

**정호:** 응 그런 걸 다 말하는 거야.

**준성:**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태식:** 니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학교를 다니게 하자는 건 줄 알았어.

**준성:** 학교를 무조건 다니자는 건 아니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재정을 잘 쓰자는 얘기이지..

**정호:** 각각 개성에 따라서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걸 하는데..

**준성:** 그런데 요즘 안 되고 있잖아. 요즘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솔직히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집에서 탕자하면서..

**태식:**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율..

**준성:** 그렇지 그건 맞지.

**연구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을 니(정호)가 정리한 거 같아. 청소년을 위해서 진로를 찾아주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다..

**정호:** 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죠.

**준성:** 네.. 그렇죠. 아무 길이나 가라고 하면 안 되고..(포커스그룹 인터뷰)

북한이탈 청년들의 학교 경험에 대한 회고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교육의 의미를 매우 포괄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학교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다음 삶의 보이지 않는 밑거름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학업성취라는 측면에서는 남한 또래들을 따라 갈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두고 스파르타식 교육과 자율적 교육 방식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결국, 자율과 타율 사이의 접점을 찾으려는 이들이 제안한 개성에 따라 적절한 진로를 안내해 주는 교육이라는 실험이 우리 앞에 과제로 던져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및 수행을 남한학생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도 제시해왔지만, 이 문제는 별 해결의 기미를 보

이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이들의 학교 적응을 보는 눈에 있어 학업성취 이상의 큰 렌즈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학업성취는 학교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만은 확실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뒤쳐지는 학력이라는 점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미 남한의 학교문화가 바람직한 학교경험이란 곧 학력성취라는 등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학교 경험에 대한 기본트랙을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 문화심리적 적응, 잠재적 학습과정 등의 적응트랙과 학업트랙으로 상정하고, 이 두 트랙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 지원에 있어, 영어 수학만큼은 청소년들의 학업능력을 기반으로 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탈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이들의 생활적응을 지원하는 상담교사와 영어, 수학 과목특별지도 교사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교사구성원들로부터 이러한 인력배치가 어렵다면 교육청 단위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 학교에서는 상담교사, 영어와 수학 기초학습지도 선생님을 임시적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시민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영어, 수학교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선생님 집단을 교육청 단위에서 고용하고 몇 개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관할지역 교육청 내 학교에 순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실험적으로 구상해 볼 수가 있다.

## 2. 직장생활 경험

연구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진로는 학교와 취업과의 연관성 안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방향이었다. 고등학교 졸업-대학진학-취업,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관련 대학 진학,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경우이다. 이 세 방향은 직업의 적응과정에 있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1)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청년들 세 명을 만났는데 이들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사회적 경험과 실천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네... 공부를 하면 사회경험을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하다가 공부를 하면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안 가질 못했다.. 친구들은 대학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일은 제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자신이 있다..(충렬)

차라리 대학가고 이거 하는 거보다 사회경험을 하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다 접고 일을 시작했었죠. 학교나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누가 좀 뒷받침이 되어 되는 거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낀 건데 혼자 하기에는 대학이라는 게 너무 크고 뭐.. 일년 다니고 휴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렇게 해 봐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 같고, 나중에 안다니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될 바에는 초반에 포기하는 게 낫다..(성훈)

**연구자:** 대학 갈려고 맘만 먹으면 다 가잖아.. 그런데 인간 사람들의 경우, 사회에 나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어서 그랬는지 대학 안 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

**준성:** 그걸 표현 안 해서 그런 거겠죠.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겠죠.

**정호:** 제 생각에는 선택이라서 그런 거보다 환경이나 내 수준을 내가 알기에 거기에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못 갔을 거예요.

**태식:** 못 갔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정호:** 못 갔다는 거는 아닌데....

**준성:** 못 간 사람도 있어.

**태식:**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야 하나?

준성: 나 같은 사람..

태식: 왜 너는 못 갔어?

준성: 난 현실적으로 안 좋았어.

태식: 그게 왜 안 좋았어?

정호: 대학을 붙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대학을 붙을 수 있지만 안 간 거지..

준성: 붙을 수는 있겠지..

태식: 그건 안 간 거지..

정호: 못 갔다는 게 아니고 안 간 거지..

준성: 그렇지, 안 간 거야.

정호: 자기 수준을 알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를 뻔히 아니  
까 제가 들어가보고 나니까 애(태식) 나이에 대학 갔을 때만 해도 한참 좋은  
거예요. 제 나이에 지금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진짜 적응하기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학을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에 대한 논쟁을 보면, 제도를 활용하면 얼  
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마저도 활용하기 어려  
운 사람도 있고 동시에 보다 빠른 사회입문에 가치를 두거나 나와도 더 나  
은 직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안간 사람도 있다. 이들은 대  
학을 안간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몹시 후회가 되  
거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은 주로 인맥과 인터넷을 통해 하게 되며 취  
업 업종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정기간  
자격증 획득을 위한 과정을 거쳐 취업한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 동일 업종에  
서 취업생활을 유지하는 반면, 별다른 준비과정 없이 취업한 경우에는 부침  
이 있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자격증 획득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학습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의 힘들어하던 학습과정과 비교해보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을 띠  
고 있다.

졸업하고 춘천, 농장에서 한 6개월 일했어요. 일을 하다보니가 뭔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취업 책자를 보다가 간호조무사를 보게 되었어요. 남자가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마침, 탈북한 아는 형중에 그 일을 하고 있는 형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고나서, 어찌면 1석2조일 수도 있겠다. 경쟁자가 없잖아요(남자로서) 있다하더라도 1:1 이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학원 1년 과정을 했는데, 학원에 가서 반장도 맡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40명이 다. 그때 정식적인 학습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다 모르는 데서 똑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 늘 10등 안에 들었어요. 저희가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따로 공부도하고 그랬는데, 누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공부 재미를 느꼈어요. 내가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니까..그때 그런 생각은 해 봤죠 “대학에 갔어도 이런 기분일까?” (준성)

학교공부를 할 때 출발점이 너무나 달라서 고통을 경험했던 북한이탈 청소년이 자격증 취득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습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데는 학습의 출발점이 똑같았다는 점이 주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습도래의 구성은 이들이 이미 북한이탈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터득한 사전지식 및 경험의 총체 등을 활용하는데 효용력 있는 맥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일정 정도 성인교육의 교육적 특성을 참조하여 구성하는 교육과정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진로지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네 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직업생활을 어떻게 꾸려가는 지 다음에서 살펴보자.

**준성:** 네.. 그러면 동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있고 또 뒤에 가서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때 실습을 나갔는데도 좀 그러더라고요. 좀 까탈스럽고.. 쉽게 쉽게 웃지도 않고 그러고.. 거 뭐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는 거 있잖아요. 두 달을.. . 음.. 그런 거에 참엔 상처를 좀 받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싫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그렇고.. 아이, 내가 뭐 받아들이고 해야지 뭐.. 그리고 했어요. 꾸준히 제 페이스대로.. ...근면 성실하게, 친절하게,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눈치껏 좀 하고, 그러다보니깐 그 사람들이 조금 조금 친절해지더라고요. 하,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고

좀 얘기도 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사적인 대화도 막 하고.. 이제 사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 친해졌구나... 그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제가 먼저 질문 같은 걸 막 해요. 선생님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냐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많이 배웠죠. 진짜 하는 일들을.. 그리고 막 잘 가르쳐줬어요. 나중에는, 친하게 되고 나서는.. 사실 이랬던게 경험이 좀 된 거 같아요. 일이라던가, 직원들.. 그런 걸 밀친 삼아가지고 병원에 입사를 했죠. 맨 처음에는 그야말로 조신하게.. 하하 행동가짐을 바로 하고 그야말로 인사 열심히 하고 맨날 웃고.. 환자들한테 잘 보이고 조간호사들한테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던 거 같아요. 일단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들 본인들의 일이 있잖아요. 일을 못하는 거는 진짜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좋아라 해야 돼요. 그게 그 직원들 평가하는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연구자:** 그 환자들도 좋아해, 준성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해?

**준성:** 아. 일단은. 아.. 이걸 제 분석입니다. (응) 제가 보면 말이죠, 제가 좀.. 이걸 제 자량이잖아요. (해..) 환자들이랑 보호자한테 좀 친절합니다. 많이 웃어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의 애로를 제가 많이 들어주고 합니다. 그 애로가 말이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4년 경력)**

이 청년은 병원실습을 거쳐 인터넷으로 직장을 찾고 그 직장에서 1년 반 일한 뒤, 주간호사의 권유로 좀 더 큰 병원으로 함께 옮겨서 일 한지, 2년 6개월 되었다. 병원 일이 3교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하고 난 뒤, 나머지 시간에는 또 다른 알바이트를 하는 소위 two-job 생활을 하였다.

**연구자:** 지금 너 경제생활은 어떻게 하니? 수입이 있으면

**준성:** 저는 수입을 이렇게 나뉘야 돼요. 정식 급여 수입이랑 일시적인 수입이랑.. 그 두 개로 나뉘야 돼요. 예...

**연구자:** 근데 지금은 일시적인 수입이 있을 수 없잖아? 고정수입이 있는데.. 왜?

**준성:** 알바를 하니깐요. 쉬는 날에 합니다. 오늘도 알바 하고 오는 거죠.

**연구자:** 그러면 쉬는 날?

**준성:** 그렇죠.. 자크레크라는 전문대행업체가 있어요. 우리가 스텝으로 가입이

때 있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구요. 와, 우월해지네.. 하하하 그랬고요, 동네 알바몬 아시죠? 거기서 지역 구인 공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봐요. 맞으면 연락하고.. 여기서도 핵심이 있어요. 겁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고정수입과 일시 수입이 생기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거의 한 70-80% 사이가 저축으로 가네요,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요. 실제로 액수가 있어요. 이 액수를 저축하는데 일 년 목표가 있어요, 일 년에 그 원금으로 얼마다 라는 액수가 있어요, 그 액수를 맞추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요. 그 다음부터 70-8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가끔은 급여 많이 나오는 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지출이 늘어날 때가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지출을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모든 걸 최소화해요.

**연구자:** 절약을 해야 되겠구나..

**준성:**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쓰잘 데 없는 건 다 버렸어요.. 뭐.. 컬러링? 그거 뺏하러 해요? 그래서 다 없구요. 다운? 그거 뺏하러 해요? 내장되어 있는데.. 웬만한 거는 통화를 자제하죠. 필요한 건 해야죠. 불필요한 건 자제를 하고. 전기세 같은 것도 사실 만 원돈 밖에 안 나오지만 다 소등하고, 플러그 다 뽑고 네.. 마트 같은데도 제일 싼데서 골라먹고.....

제가 가게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액수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흑자를 봐요. 그게 이월이 되거든요. CMA 통장이 있거든요, 제가요. 언제든지 빼 쓸 수 있게 이 CMA 통장이 이자를 5%로 정도 주거든요.....

북한에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출할 때 그것도 염두 해 두고 살아야 돼요. 조금 흑자를 봐야 .. 딱 제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항상 흑자로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대로 남겨줘야 나중에 크게 지출하거나 그럴 때.. 그때 카메라 살 때도 그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거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 돈 좀 많이 썼어요.

고정직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수입을 높이면서 전체 수입의 70-80%를 저축하고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다. 가게부를 쓰는 등 규모 있는 경제생활을 하며, CMA 통장 사용, 펀드 저축 등과 같은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건강한 소비생활도 하고 있다. 이 청년은 상황을 컨트롤하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서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음의 청년은 남한에서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주유 사은품 관리하

는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두세 번의 이직은 있었으나 모두 동일계통의 일로서 현재 4년 째 하고 있다.

**충렬:** 2년 만에 퇴사하고 한 6개월 정도 놀았죠. 집에서 완전 놀고.. 그 후에 다시 일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갔어요. 오라고 해서.. 한 6개월 만에.. 혼자 반 년 다녔어요. 6개월 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 뒀어요. 처음에는 자기(사장)가 잘못했다고 해서 갔는데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또 그대로죠..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다음 바로 똑같은 유통인데 아는 사장이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6개월 있다가 유한 김벌리가 좋아가지고 좋은 데로 간다하고 갔어요. 유한김벌리에서 거의 1년이 됐다.. 작년 1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연구자:** 어떤 일을 해요?

**충렬:** 창고관리요.. 옛날이랑 똑같죠.. 창고관리는 똑같은데 사은품은 더 좋죠.. 유한김벌리 정직원이에요.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월급이 150이고 보너스가 많아요, 1년에 350% 정도,,,

**연구자:** 일은 괜찮아요?

**충렬:** 일은 좀 힘들어요. 창고 관리 하다보니까 휴지가 무겁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라서 어렵지는 않은데.. 좀 안 좋은 이사님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영업사원은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온 하루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말하면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힘들어요.

**연구자:** 그러면 거기를 그만 둘 생각인가요? 아니면 계속 다닐 건가요

**충렬:** 이제는 직장을 바꿀 의사가 없어요..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면허를 따서 영업을 하고 싶어요. 마트에 가서...

**연구자:** 영업을 하면 월급이 더 많아요?

**충렬:**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선배니까 월급은 많이 주지만 밖으로 나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 저축도 해요?

**충렬:** 많이는 못하고 50-70만원 정도요. (유통 및 창고관리, 4년차)

창고관리 하는 일이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일이 재밌고 이 일을 통해 많은 능력을 배웠다고 하였다. 한

국사회가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성공 할 수는 있는데, 자신은 앞으로 한 10년 돈 벌어서 중국이나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의 청년은 규모가 큰 음식점소에서 관리자 역할을 4년간 하였는데,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해 퇴사하고 건설계통 일을 6개월 하다 현재는 쉬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연구자:** 큰 규모의 음식점이구나.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했어?

**성훈:** 네. 돈에 대해서 지출이나 그런 거 관리해 주고 그런 거 했었죠. 처음에는 그거 안 하고 청소하고 서빙하고 손님 받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지나고부터 그거 시켜주더라구요. 가게 키도 주고, 세콤 카드도 주고. 그때부터 관리하고 사장님은 그때부터 맡겨놓고 안 나오고....저도 많이 했고, 힘들지만 많이 했고.. 한 1,2년만 참으면 니 적성을 봐 같고 찾아줘야지.. 그런 애길 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적성에 맞는 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사장이.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고 분위기가 자꾸 다르게 변해 가는 거예요.

**연구자:** 어떻게?

**성훈:** 제가 4년 됐는데 제 월급보다 8개월 전에 들어온 애들 월급이.. 제가 그 가게에서 4년이 됐는데도 월급이 제일 적어요. 그니까 들어온 지 8개월 된 애들도 다 월급이 저보다 높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꾸 피해요. 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게나 이런 거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 뭐랄까? 저하고 자꾸 얘기를 안 하고. 슬슬 사람들 채우면서 약간 메우면서 서서히 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러면 사표 낸다고.. ..... 그래서 나와 갔고 건설 회사 쪽으로 들어갔어요. 건설회사에서 힘들었죠. 하루에 두, 세 시간 자고 일했으니까. 새벽에 5시반 여섯시에 일어나갔고 새벽 3, 4시까지 일했고, 자는 거는 하루에 두세 시간 자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워져서 나왔어요.

**연구자:** 그리고 몇 달 쉬었어요?

**성훈:** 딱 두 달 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용기가 안 나오.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건 아는데 도전을 못 하겠어요. 진짜.. 너무 뭐랄까.. 싫어요.

**연구자:** 뭐가 싫어?

**성훈:** 다 싫어요. 진짜 싫어요.

**연구자:** 지금 싫다는 게.. 다 싫다.. 그걸 좀 절망스러운가? 지금 현재? 지금 삶이?

**성훈:** 회사 예전에 있던 테도 그랬고, 나중에 좀 그렇게 뭐라고 하지?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죠. 당하고.. 물론 또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즘 생각하는 거는 내가 왜 이러지.. .... 막 포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놓으면 안 된다. 형들도 만나고 재미있어 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요. 웬지 힘들고 하면 괜히 눈물 나고.. 누구 만나면 괜히 눈물 나오.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괜히 눈물 나고 그래갖고. 하.. 집에 오면 혼자 이렇게 있다가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집에만 계속 있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급한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게 있을 수 있고... 스물일곱인데 이제 뭐가 찾아갖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려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스럽기도 하고 뭘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그냥 다 해봐야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식당.. 뭐 그런 거 할만한 게 제한 돼 있어요. 뭐 대학교 나온 형들 저도 주변에 가까운 형들 많거든요. 고려대나 연세대 서울대 나온 형들 학교 졸업장 갖고 있어도 업소에서 하는 일이 공장가가지고 일하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 너가 니 직업 생활에서 느낀 거 그런 것들이 너를 절망하게 해? 아니면 그게 아닌 뭔가 이렇게 너가 내부적으로 힘이 안나는 것 같아? 원인이 밖에 있어? 안에 있어?

**성훈:** 형이 그러더라구요. 너는... 니 자신과의 싸움인데.. 너는 니 자신에게 잡혀있다고. 저도 그걸 인정해요. 저 스스로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하고 이러면 진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4년 일하면서 그게 아마 끝이 온 거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 그러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누우며는 아 진짜..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연구자:** 원망 이런 거?

**성훈:** 화나니까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그렇게 이용하고. 그럼 내가 뭘 해야되지 그런 생각만 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내 스스로를 묶는 것 같고 박쌈<sup>49)</sup>이 너는 뽕족하게 산다고, 모나게 산다고, 등글등글하게, 갈대처럼 바람 불면 휘어질 줄도 알아야지, 너

무 뻗뻗하게 간다고,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연구자:** .....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건 아까 말한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가족관계, 또 지금 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현재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성훈:** 아마도 그런 거겠죠. 짬... 자기 진로나 현재 직장이던 어떤 거던 자기 자리.. 자기가 서야될 자리..

**연구자:** 그 자리를 못 찾겠다라는...

**성훈:** 찾아보면 많겠죠.. 저도 찾아봤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더라구요. 식당 가며는 진짜 무조건 거기는 다 받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하기 싫거든요. 다른 스물일곱 되고 그러면 또 삼십대를 위해서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하기 싫고 좀 기술같은 거를 배우고 싶어서 지금 아마 그런.. 내가 설 자리의 갈림길인 거 같아요. 찾는데 갈등이 많이 되가지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는 형의 소개로 식당 일을 하게 되었고 6개월 만에 관리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와 금전적 대우가 보장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4년을 일했지만, 그 약속이 변하면서 일을 그만 둔 경우이다. 이 청년은 약속과 신뢰가 깨진데서 온 불신, 억울함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 고통의 근원으로 사회적 편견을 들었고, 그리고 그 편견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집착에 대해서도 힘들어했다. 이런 심리적 고통에 대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충고를 얻고 도움을 받지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막막해하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은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보다는 30세 이후의 삶을 조망하면서 지속적인 일과 동시에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다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일, 알바 등 비정규적인 일을 주로 하다 대학 입학에 결심하게 된 청년(여자)의 이야기이다.

**은순:** 네..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처음엔 취업을 했었어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공장 같은데 알죠. 뭐 만들고 주야간으로. 1주일 주간하고, 1주일 야

---

49)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 준 시민활동가

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5명이 그 회사에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마지막엔 내 혼자 남았어요. 3일하고 나가고 이틀하고 나가고 거의 길어봤자 2개월하고 나간 애들도 있고. 그래서 난 한 4개월인가, 5개월 더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차장님이..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전화 좀 해서 오라고...

**보조연구자:** 아.. 빨리 오라고..

**은순:** 그러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거리도 멀고 저녁에 올때 힘들게 오고 밤에 또 일을 하고 항상 일을 하던 사람이어서 그래도 하는 거지 힘들긴 힘들던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엄마가 애인 삼아 있는 분이 있거든요, 참 좋은 분이예요. 한국 분이데. 니가 평생 동안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겠냐, 니가 나이도 어린데, 대학 2년제라도 가라, 가가지고 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니가 솔직히 중국어 통역은 잘 하지 않냐, 남들은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다.. 그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갔어요. 대학을. 근데 난데없이 과가 없어져갔고(일본어과로 바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두면서..

**보조 연구자:**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계속 대학 갈 생각을 하고 있어?

**은순:**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알바를 선택한 거고.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고작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중국어. 하하. 중국을 거쳐서 오다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중국어밖에 없는데, 그게 전 재산인데, 그것을 활용해야지요. 그냥.. 공부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살면서 자연적으로.. 뭐.. 솔직히 공부를 안 하면, 공장 일을 해야 되고 식당 서빙이나 일은 할 게 많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만 성공할 길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별다른 준비 없이 공장일과 알바를 하던 이 친구는 지인의 제안이 있긴 했으나, 자신이 성공하는데 있어, 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력 중심의 남한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진학이 매우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인식한다.

그럼에도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하는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 지,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크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임시적이고 갈등상황에 있는 경우를 보았다.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자기주도성을 갖고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친구들은 물론 개인적 차이는 있으나,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사전교육을 통한 자격과정 취

득, 자신의 직업세계에 대한 학습의지와 동기부여, 자신의 일에 대한 이해력과 만족도, 균형 있는 경제생활 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부합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비해,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선택했었던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못 찾아서 잠시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아마도 북한이탈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취업지원제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앞에서 기술된 사례 그 어떤 경우에도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이나 안내는 전혀 없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취업담당지도자 제도는 성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특히 학교를 마치고 이들의 도움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로교육은 고등학교에서 담당해주거나, 사회진출 사이, 사이에 제도적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은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 2) 대학교 졸업 후 취업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남한사회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진로형태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사회의 젊은이들은 취업 관문이 매우 좁고 소위 88만원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왜곡된 대학입시 교육으로 인해 대학을 나온 대다수가 자기의 전공을 살려 취직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연구자가 만난 북한이탈청년들 중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경우가 두 사례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전공을 살린 취업을 했음에도 직업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연구자 :** 조연출 AD 하는 거야?

**태식:** 예, 내가 할려고 했던 거랑 안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할려고 한 건 방송국이 아니었어요. 신문사를 생각했어요. 저는. 신문사 생각했는데 어찌 어찌 안 되서 입사한 거구.. 아이 접.. 방송사 일이.. 글썄요. 배우는 건 많아요. 뭐라고 할까? 쯤... 차라리 방송국 하는 거보다 가게 하나 차리는

게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연구자:** 나는 잘 모르는데 방송일이라는 게 굉장히 혼란을 다투고 경쟁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까? 그 특성이.

**태식:** 근데 제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충격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물론 남한이 그니까..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직장 생활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방송국은 그거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언론사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안하고 위에서.. 밑의 의견을 아예 묵살해 버리고.. 그리고 선배님 제 의견은요. 이러면 야, 선배 시키는데 뭐 말대꾸냐 이래요,.... 자기 할 일만 끝나면 탁 퇴근해요..... 그렇긴 한 대 월급도 대개 짜고 그다음에..쩍... 미래가 대개 불안정 하고.. (음..)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한 것보다 실망이 크고..

**연구자:** 그러면 앞으로 이직 계획 같은 게 있어?

**태식:** 한 1년은 해야죠....한 2년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다 마스터 해가지고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반복하고.. 그냥 모든 일이 반복이잖아요.. 처음엔 배우니까 재미있더라구요. 근데 이제는 그냥 했던 일 반복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연구자:** 그럼, 내년쯤에는 다른 계획이..신문사?

**태식:** 신문사가 좋긴 하죠, 월급이 짜도. 근데 신문사가 안 받아주니까 못 가는 거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좀..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월급이 짜더라고 핵심 인력이 되가지고 경영도 하고 계약도 하고 뭇도 하고 다 하고 싶어요. 그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방송 워낙.. 큰데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하잖아요. 다른 분야는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나가서도 제가 하는 것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해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하면 계약도 하고 경영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어가지구 나중에 중소기업 하나 차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년 후... 잘 되면 그거고.. 안되면... 월급쟁이로 살겠죠.. 아무데나.. 중소기업에서 쇠나 깎고 있겠죠 뭐.. 월급 100만원 안 주겠어요? (케이블 방송사 AD, 1년차)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AD로 일하는 것은 걸로 보기엔 전공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적성과 맞을 것 같고, 또 방

송 일은 선망의 직업세계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방송국의 의사소통 구조, 경제적 조건, 직업 안정성의 부족함을 들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구조에서 자신의 성장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동시에 많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을 통해 10년 즈음 후에는 회사를 하나 운영해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꿈은 아직 전혀 구체적인 단계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월수입 100만원의 노동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자조적 전망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또는 청년들 대부분이 조직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직업보다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관련 연구들이 표명해왔다. 이 청년이 향후 어떤 진로변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취업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거쳐 자신과 같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직업을 찾은 사례이다. 처음에 유치원 교사를 1년하고 그만 둔 이유는 경제적 차별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그만 둔 것은 과된 노동과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저임금 때문이었다. 또한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운 점 또한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자기 경험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은 경우이다.

**유경:** 저희만 애가 다쳤는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높은데서 떨어졌어요. .. 그래서 전 너무..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했어요. 그럴 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전화를..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고 뭐야, 솔직히 말했어요. 애가 놀다가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한 선생님이 전화기 확 뺐더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화를 뺐더니 그러매 하는 말이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떨어진 게 아니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떨어져서 여기 눈 밑에 가 찢어졌어요. 지금 막 병원에 가고 있고,.. 왜 이런 걸 거짓말 처야 되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지. 대개 엄마가 놀라까봐 그런가, 엄마가 아무래도 와서 보잖

아요. 넘어진 건 아닌데.. 그런 걸 이해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북한에서 와서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약간 이중..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중적인.. 저희한테는 너무 낮은 거.. 북한 사람한테는 그.. 좀 뭐랄까.. 다정하고 부드러운 건 좋은데..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그 전에 교무실에서 막 이렇게 아휴, 개 완전 짜증나.. 4차원이야.. 이렇게 막 흥봐요. 허.. 이상해 이러다가 딱 엄마가 왔어요. 좀 있다가, 그러면 (가느다랗고 하이 톤의 목소리로)어머니 개가 너무 귀엽고요, 진짜 좋은 말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 선생님.. 개가 솔직히 똑똑한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요, 너무 귀엽고요.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개에 대한 어떤 결합, 애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이런 건 절대 안 말해주고 엄마가 좀 약간... 이상하고.. 왜 엄마가 좀 대개 극성이고 말이 많고 맨날 하루에 한번씩 전화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애를 뒤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상하다, 재는 바보야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는 하나도 안 말해주고 좋은 말만 막 해주는 게 이상했어요. 내같으면 어, 어머니 애가 이런 건 귀엽고 잘 하는데 이런 건 부족한 거 같아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안 말 하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저렇게 말해야 되나.. 솔직히 회의가 들고 갈등되더라고요. 그니까 그.. 교사세계가 저렇게 다 가면을 써야 되나, 가식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게 대개 힘들었어요.

**연구자:** 유치원, 어린이집을 거쳐서 지금은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이 일이 어때요, 본인한테..?

**유경:** 아.. 일단은 유치원보다 월급이 많으니까 좋구요.. 그니까 저한테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니까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 왔어요.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대구에 있는 애들 만나고.. 제가 매 기 졸업식(하나원)을 하면 저희가 참가하잖아요. 뭐 북한이탈이다.. 나도 너네 같은 선배다.. 이러면 완전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아휴, 같은 북한이탈인 주제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엄청 반응이 좋아요, 왜 좋냐면. 개네가 우리 선배 중에 성공한 사람.. 개네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니까.. 000센터 선생님이니까.. 개네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호응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기대 어긋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적어도 내가 경험한 거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개중에 젊은 애들은 대개 간호학원이나 간호대학에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 대학가는 게 두려우면 선생님처럼 학원을 먼

저 다녀봐라.. 그래서 경험해 보고 정말 자신이 생기면 그 때는 대학에 가도 되겠다 이런 거 .. 그러니까나 경험적인 이야기 위주로 알려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전화를 막 하고.. 저한테 막 하고.. 아 선생님 멋있어... . 애들은 그 진심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하나라도 더 배워줄까.. 그게 어쨌든 진심인 거... 내가 뭐.. 학습량은 많이 가르쳐 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성과가 아니지만 애들한테 마음이 통했다는 거죠... 이거는 진심을 담아서 내가 경험한 일이고 내 자식과 관련된 거.. 교육이잖아요.. 정말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해야겠다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선생님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개 보람을 느껴요..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대개 기뻐어요. 아..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구나.. 그래서 000센터가 정말 하늘이 준... 하하하.. 내한테는 딱 맞는... 여기서는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 전에 유치원 현장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긴 하는데 힘든 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옛날에 유치원 갔다오면 맨날 힘들다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럼 남편이 에이 뭐.. 때라 치워라..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다는 말 안 하니까.. 요즘은 왜 힘들다는 말 안하냐 이래요.. 그게 내가 막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뭐 이렇게 크게 힘들어도.. 야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요일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진짜 이런 데도 불평 안 하게 되더라고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년 6개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센터 진로지도 교사 1년차)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러한 축복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를 찾아 취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위 사례들을 통해 볼 수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자기 진로를 찾는 것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특히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업에 대한 요구가 더 정교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만족도, 안정성, 일의 전문성과 만족도 등에 더해 조직문화에 해당되는 의사소통 및 분위기도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는 일은 평생 찾아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을 계속 찾을 수도 있고 이 요소들 중에서 타협점을 찾아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유치원 교사를 하다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지도 교사가 된 사례는 일에 대한 보람과 자기만족을 중심으로 자기 일을 찾은 경우이다.<sup>50)</sup>

이러한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는 일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직업세계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 3)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찾아서 대학으로 진학

다음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그 진로와 관련된 학과를 찾아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대상:** 너무 재미있는 거 같아요(경호 일이). 뒤늦게 아버지 친구 분에게도 참 감사하지만, 마지막에 확실하게 선을 잡아 주셔가지고. 진로를 딱 결정하게 됐거든요.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워낙 자기가 잘 하는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든 자기가 잘 하는 일은 자신감도 얻게 되지만 능률을 많이 내고... 제가 지금 1년째 계속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님들이 경호 아르바이트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무전기 차고 정장 입고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몰두해야 되잖아요.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는 사이에 제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진짜 고도의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 순간이 진짜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연구자:** 스스로?

**대상:** 네. 스스로가요.. 아,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경호원이 멋있긴 한데 또 나이제한이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40? 대통령 경호원도 50, 오십 몇 세라고 했지? 정년이... 어느 정도 돈 모으고 하면 경호회사 차리는 게 제 꿈이에요.

**연구자:** 니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거지?... 그 직업에 대해서

**대상:** 네. (00대학교 경호학과 3학년)

이 청년은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남한사회에서 그것은 불가능 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4년 내내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켜 왔는데, 한

50) 이 일 역시 공무원과 같은 평생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므로 언제든 변화가 올 수 있다.

국사회에 좀 더 밝은 아버지 친구 분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호학과를 권유하여, 고 3담임선생님과 상담한 후, 담임교사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대학 진학을 하게 되었다. 이 청년은 대학생활, 경호 아르바이트 모두 만족해할 뿐만 아니라, 경호인으로서의 자존감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음은 4년 내내 중, 고등학교에서 말짱도 많이 피던 친구인데, 고등학교에 조리학과가 생기고 교사들의 권유로 우연히 조리 일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 청년의 이야기이다.

**정호:** 근데 조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재밌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재미있고 차츰 가면서 내가 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어준다는 게 마지막에 내가 한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막 어쨌든 뿌듯한 게 있잖아요. 그 맛이 일품인 거예요, 마지막에 맛있게 먹어주는 그 맛이.. 그러면서 요리를 하게 됐고, 한국사회라는 게 실기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데라, 원래는 대학까지 안 오고 현장에 바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대학까지 졸업해야 직업이라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식당에서밖에 일 못한다. 그렇다보니까 대학까지 흘러들어온 거죠. **(00대학교 외식조리학과 1학년)**

이 청년도 음식 만드는 일을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직업을 즐기고 직업 생활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및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진로가 확고하게 견고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자신의 장래에 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지만 순간 순간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은 그 어떤 삶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그 불안을 다루고 적응하는 것 또한 건강한 진로과정이 갖는 요소이다.

**정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이뤄야 될 거.. 근데 내가 마지막에 도착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었던 꿈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그 길을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 길을 찾는다고 헤매다가 들어선 게 지금 이 길(요리)이

니까... 근데 지금 가끔가다가 힘들어요. 저한테는 이게 공부(대학)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나가서 실습하고 몸으로 일하는 게 더 쉽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니냐.. 헛갈리거든요, 잘못 시작한 거 같다, 내 옳은 길 맞냐.. 혼자 있으면 밤에 저녁에.. 막.. 어떤 날에는 티비를 봐도.. 별로.. 흥취가 없고.. 게임을 막 하다가..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막 하다가 손에 안 잡힐 때.. 그러면 컴퓨터 끄고 티비 끄고 새까만데 혼자 가만히 누워있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옛날 생각도 났다가 옛날부터 내가 살아온 생활을 쭉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쭉 생각해 봤다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을까..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대학 다니지 않고 지금 나가서 돈 벌면 어떨까.. 그러면 또 한 주간이 싱숭생숭해요.. 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고. 근데 그 길이.. 내가 옳다고 한 그 길을 가서 한 우물 파다보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냥 물이 안 나온다고 희망 잃지 않고 깊이 파다보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죠. 무조건 파는 거예요. 희망 잃지 가다보면 나온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해매는 기간이 너무 길었죠. 해매지 말고 내가 재밌게 했을 때 일하면 참 재밌고 이게 내 적성에 맞다고 하는 거.

..... 내가 해도 해도 새롭고 ..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다보면 끝은 거기서 만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있어요. 어디로 가든 끝은 하나죠. 어떻게 사는가, 남한테 부끄럽지 않고, 손해되는 일 안하고 조용히 사는 거.. 크흐흐흐 나이 좀 먹으면 저도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텃밭이나 가꾸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젊었을 때는 좀 놀아보고요..

지금까지 살펴 본 다양한 유형의 북한이탈청년들의 진로과정을 보면, 에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단계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잠시 멈춘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 변화에는 지금보다 더 향상된 방향으로의 변화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 4) 꿈을 향한 완만한 상승

북한이탈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어떤 변화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극적인 변화보다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보다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는 심리적 저항이 그들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충렬:** 자신감이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죠..

**연구자:**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

**충렬:** 이제까지 중국에서 힘들 게 살던 그런데서..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잘 못)하면 힘들어지는데,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해서.. 일하자..

**연구자:** 적어도 내가 나를 흐트러뜨려서 옛날의 나로 못 돌아간다는 건가요?

**충렬:** 그렇죠..

**성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쌓아왔거든요. 지금은 5등급(금융신용도)인가 됐어요. 많이 쌓았는데, 요즘은 그 고민이 되요. 아.. 내가 여기까지 쌓아왔는데 진짜 갈등이.. 너무 많이 이뤄냈고 해 냈는데..

**연구자:** 무너질까봐..

**성훈:** 네.. 지금 생각에서는 이게 또 다시 0이 되겠고.. 0에서 시작하는 거는 내가 힘들 걸 아니까요. 그게 뭐.. 물론 신용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이 해 놓은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다 접고 한순간에 생각 잘못해 가지고 0보다 밑으로 마이너스 되가지고 거기서 시작되며는 더 힘든 건데.. 이거는 또 못 버리겠고.. 요즘 그래서 머리 아픈 게.. 어떻게든 간에 내가 힘들게 갖고 왔는데 이걸 다시 또 끌고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고..

**연구자:** 그러면 지금까지 니가 해 온 것.. 남한 생활 5, 6년 동안 뭔가 해 온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아까 니가 상징적으로 신용카드가 5등급까지가 해 온 게 있겠고.. 그 외에 무형의 니가 해 온 게 뭐가 있어? 잃기 싫은 게..여기서 막 산다고 했을 때 잃기 싫은 거..

**성훈:** 막 산다고 했을 때요? 제일 싫은 거는 내 주변의 사람이죠.

**연구자:** 음.. 주변 사람 잃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의 너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

**성훈:** 그리고 신용 같은 것들은 솔직히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괜히 멀어지고 그러

면 그게 아마 내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지 않을까.. 쉽게 못 버리죠.. 지금도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던 누군가에게 나라는 이미지를 보여줬고...

이들이 현재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더라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은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단절, 자신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잃는 것에 대한 내면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뒤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 안의 당사자들이 직업변화의 과정을 맞는 초기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진로변화의 지속성 안에서 자신이 소중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싶은 것, 퇴행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향감각은 그들에게 닥쳐 올 유동적인 진로과정을 대응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자신들이 살아 온 과거보다 느긋하게 전망하고 있다.

**연구자:** 성훈이 꿈은 ?

**성훈:** 네..뿌리를 내려서 평범하게 사는 것..

**연구자:** 그것.. 음... 어떻게 보면 니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보면 변화가 무쌍한 삶이기도 하잖아?

**성훈:** 네..

**연구자:** 앞으로 삶도 그럴까? 그 쪽이?

**성훈:** 글세요. 그래도.. 전에 보다는 굴곡이 심하지 않을 거예요.

**연구자:** 니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낙관적이야 비관적이야?

**성훈:** 낙관적이죠.

**보조 연구자:** 그래, 니 삶의 목표도 참 궁금했어....어떤 삶을 니가 꿈꾸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니가 얼마큼의.....

**준성:** 아..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철없을 때는 막 그랬어요. 교수 같은 거나 하고싶고 뭐.. 이렇게 막 내가 아는 걸 딱 놈들에게 가르쳐주고 싶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이런데 사실 쓰는 사람도 하고 싶었어요. (컬럼니스트?)  
 네.. 제가 2002년 하나원 하나돌학교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하하하 가끔 저 그걸 뒤져보거든요, 심심  
 할 때.. 그럼 아, 옛날에 철없었구나. 그래 일기가 필요한 거 같애. 옛날 쓴 일  
 기를 보면 아이고 2002년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씩 생  
 각이 나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튼 제 삶은 소박하게, 그냥 아까  
 도 얘기한 것처럼 완만한 상승. 그때처럼 제가 교수님이 되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고요, 일단 40대나 그때 됐을 때 돌아갈 집을 만드는 것.. 아, 이런  
 진짜 꿈이다.. 아니, 얘기하니까 이상하네..

**연구자:** 준비를 좀 해 놓는 것...

**준성:** 네.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각박하고 막  
 그야말로 투쟁이잖아요. 내 삶이 평생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삶에.. 고생  
 한 내 삶에 뭔가 좀 (보상?) 네, 보상을 해야겠다. 그게 한 40대에 시작이 되  
 지 않을까.. 그니까 제가 크게, 제가 보기엔 기록적인, 대사변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완만하게 펀드하고 돈 모으고 스텝.. 글썽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연구자:** 그냥 평범한 남한의 소시민적 삶...

**준성:** 아! 그게 제가! 제가 하나돌학교에 있을 때 10년 후에나 찾아볼.. 10년  
 후에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그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이 되는 게 제  
 꿈이었네요. 그때가.. 너무 튀지도 않고 튀치지지도 않고 그야말로 적당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애.. 흐흐흐 아.... 제가  
 그동안 좋게든 나쁘게든 굴곡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좀 평탄한.. 그  
 니까 앞날이 막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예측을 못 했잖아  
 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는 나도 내일을 그려보자, 그 동안에는  
 내일이란 생각을 못해봤죠. 이제는 예측도 하고 나름대로 중장기적 목표라도  
 세워보고,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예전의 굴곡 있는 삶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삶의 중·단기 목표를  
 갖고 꿈을 향해 가는 완만한 상승곡선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미래의 꿈은 직업적으로는 다 다양하다. 자기 식당을 운영하는 요리  
 사, 경호원 회사를 운영하는 것,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 검사, 간호사, 조그  
 만 자영업 등....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런 삶이 결코 쉽지 않음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삶과 적응은 우리 사회의 일상성 안에서 진행 중이다.

북한이탈청년들의 초기 직업진로과정에서 볼 때, 앞으로 이들의 직업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상 직업의 유동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탈 청년들은 직업의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사한 직업군 내에서의 이동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직업세계로의 이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 직업진로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 정책적 지원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 단계의 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다. 현재 우리 학교사회에서 진로교육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학입시가 아닌 취업진로는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김활수(2006)는 학부모, 교사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결여,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 학생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학교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정보의 부족과 지도방법의 결여,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성 빈약 등을 들고 있다. 이 점은 우리 고등교육의 기본적인 취약점이다. 부모 위주의 진로 결정을 제외한 모든 원인들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부실한 진로교육에도 해당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그들을 위한 전문상담센터나 취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김영우, 2004). 급하게는 이런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체계에 전반적으로 부족한 진로교육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검토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갖는 직업선택의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선택할 직업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로교육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령,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학력, 가정배경에 관한 것 등에 대한 자료 확보와 이를 사회, 경제적 차원의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사회의 직업관, 교육체계적 차원에서의 학교의 진로 교육정책 등과 연관시키는 총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총체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상담센터나 취업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 청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센터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단계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앞서 말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대학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 대학 이후의 취업 및 진로교육, 성인의 실직과 재취업 진로지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sup>51)</sup> 또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 직업교육 프로그램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실천사례를 통해, 오히려 우리교육사회에 부족한 진로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3. 북한이탈 청년들의 학교·직업생활 경험에서 발견한 학습의 의미

북한이탈청년들이 북한에서의 생활, 탈출, 중국에서의 생활, 탈출을 거쳐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5-7년 정도 되어간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남한생활의 학교와 직장생활과정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배치하여 펼쳐 보았을 때, 그들의 경험의 심층적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자발적 학습

---

51) 연구사례 중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경우, 어디 편안 한데 가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쉴 수 있는 쉼터의 필요성과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극기 훈련과 같은 극단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동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청소년의 시기에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아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였다.

자'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에게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 성취자이길 간절히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분절적 시각으로 살펴 본 그 어떤 추적 자료에서도 이러한 기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의 면면을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자발적 학습자'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자발적으로 학습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자기학습과 깨달음의 과정

북한이탈 청년(청소년)들에게는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들을 만났는데, 그 전환점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기 학습과정이 있다.

예.. 그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 게.. 제 삶을 많이 바꿔놓게 된 거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조금 시비 걸고 그러면 그냥 막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하도 말 안 듣고 밤쯤 어둑어둑 해지면 창문 뛰어 내려서 기숙사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매도 많이 맞았어요. 계속 그걸 뒤에서 지켜보다가.. 남자 선생님이 한 8분오셨는데 그 중에 친하게 지낸 선생님이 5분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전라도 어디 시골마을에 사셨는데, 하루는 얘기 좀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자고. 잠깐이면 된다고.. 슬리퍼 신고 따라 나갔는데, 겨울에, 중국이 얼마나 추운데 슬리퍼 신고 잠깐이겠지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한마디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진짜 많은 마디의 말을 해 주는데 니가 나중에 한마디만 기억하는게, 나머지는 기억 남는 게 없을 거라고. 그 한마디를, 내가 오늘 너한테 해준 그 한마디를 니가 기억하면 니가 바른 사람이 될 거고 그 한마디를 기억 못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거라고. 그 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다보면 곧은 길이랑 옆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있는데 곧은 길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막말로 개처럼 사는 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바른 길로만 나갈 수 없대요. 곧은 길로만 나갈 수

없고, 때로는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빠져있는 길로만 나가다보면 바른 길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너무 오랫동안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답게 살기 힘들다고. 아 이거였구나. 두 시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라도 생활하면서 요즘 내 행동이 아닌 것 같다, 잘못됐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말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스승의 가르침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대성)

이 청년은 중국에서 약 6개월간 미국동포가 세운 농업기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싸움도 많이 하고 말썽도 많이 피던 그 시절, 선생님 한 분이 자신한테 해준 단 한마디로 인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지금도 자신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학생을 뒤에서 지켜봐주고 사는 일에 대한 결정적인 가르침의 이야기를 해준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는 일은 오롯이 청년의 몫이다. 다시 말해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은 청년의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며 살아오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싸움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하기도 하다. 그러한 익숙함은 또 다른 도전적인 남한사회의 삶속에서 대응방식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남한의 학교에 가더라도 자신들에게 싸움을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싸움으로 맞대응을 한다. 다음의 청년은 한국친구들과 싸움을 크게 몇 번하다 결국 며칠이지만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아주 사소하게는 “열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 10분만 참았다 오면 된다는 인내를 배웠다”고 했다. 이 경우는 세상이 청년에게 스승역할을 한 것이다.

**연구자:** 이게 세 번째 싸움이야?

**성훈:** 아니요. 두 번 더 있었고. 노래방에서 한 번 개겨갔고.. 자기가 태권도 5단에 유도에도 검도를 한 대요. 크흐. 자기 건들이면 좋은 일 없다고 그래갔고 바로 까고 그래갔고 그 때 좀 합의금이 나왔는데 합의 안한다고 배째라고..

그때 부모님이 용서해 갖고 병원비 조금 대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때 쯤 커 갔고 사고 처서 잡혔어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는데. 첫날에 저녁에 잡혀갔고 다음 날 아침에 조사받고 나가겠지 했는데 안 내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지나고. 그래갖고 9일 되는 날 호송한대요. 그래서 성동구치소인가 거기 갔어요. 그래갖고 그 때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게 쫓.. 살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아.. 젊은 나이에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현실과는 다른 거라고.. 그때 내 자신에게 많이 뉘우쳤죠. 그때 그리고 구치소에서 한 8일인가 있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 차렸죠. 고등학교 그때가 사춘기 때 아마, 젊은 나이에 감정에 이끌려 행동할 때,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다.. 그때 생각이 나를 많이 바꿔놓은 거 같아요. 그 이후로 노는 애들 다 끊고, 애들 거의 안 만났어요.

남한사회에서 학교를 다니는 일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학업을 비롯한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할 지 그 막막함 또한 커서 길을 찾지 못하는 방향의 시절이 길다. 그러나 그 방향의 시간이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연구자:** 학교선생님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는 달라진 거거든.. 정호씨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달라진 거 같애?

**정호:** 글썄요.. 생각의 한 가지가 변했어요. 그 점하나가 바뀐 거예요.. 생각 차이가 바뀐 거지요. 그니까 종이 장 놓고 보면 이게 이면지 아니잖아요(이면지를 뒤집으며)..근데 앞의 하얀 백지 우에다 쓸 수 있는데 내가 항상 낙서된 장에다 그걸 뽑아내다가 거기서 쓸러니까 (백지가 뒤에 있는데 낙서된 거만 쓸라고...) 네.. 그것만 쓸라고 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써봤자, 낙서된 데 써봤자, 낙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서 종이 장 뒤집어 놓으면 깨끗한 면이 있는데 거기다 쓰면 낙서가 아니고 좋은 글이 될 수 있는데.. 낙서한데다 계속 쓰니까 인생 그렇게 되니까.. 제 인생하고 저.. 우리 북한이탈자애들 상태가 보면 다 그래요.. 북한 생활이나 중국생활에서 막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그 막 살아온 생활에다가 한국생활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낙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다시 새 장에다 쓰면 새 것을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위에 계속 낙서를 했으니까, 더 낙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이런 생각이 나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종이장 한 장의 차이가..

**정호:** 그 생각이라는 게 어느 순간이라기보다 그냥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살아봤자, 별 의미도 없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소리가, 계속 선생님들이 나한테 4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원래 자체가 거의 열 살때 연필을 썼으니까.. 10대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십년 동안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제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을 가르친 거죠. 수업을 안 들어와도 상관 안 했어요. 수업에 안 들어와도 상관은 안 했고, 그러면서 시험은 보라고 했고, 거의 뭐 .. 밖에서 나 돌아다니며 놀고 교무실에 들어가서 놀고.. (하하, 밖 아니고 교무실? ) 네.. (재미있네..) 그러면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고, 또 앉아서 한마디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우리학교에서 제일 친한 선생님인 체육선생님이 있어요. 그 체육선생님이 또 말씀을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저하고만은 농담 따먹기를 굉장히 잘 하세요.. 교무실에 있으면 책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업 들어가면 거기 앉아서 둘이 농담 따먹기하고 운동 같이 하고. 그러는데 체육선생님하고 친했는데 체육선생님이랑 맨날 같이 있었거든요. 영진아, 너 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너 살아갈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걸 말해주요.. 내가 예.. 예.. 하면서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해 주는 것 자체가 머리속에 그냥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딱 한번 만에..

**연구자:** 그게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왔는데 (쭈욱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다는 거지?

**정호:** 그렇죠. 그게 바뀌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이렇게 그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봤자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되는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연구자:** 그래.. 음.. 큰 깨달음이네..

누구든지 당사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관심 갖는 것처럼, 북한이탈청소년들 또한 자신의 인생의 책임 있는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다. 다만 그 길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있어서 그 매듭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 뿐이다. 그 매듭을 찾게 되면, 즉시 탄탄대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매듭의 형태와 매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쪽과 저쪽의 연결을 보게 되고, 매듭과 자신의 삶을 투영하면서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할 지, 다음의 또 다른 매듭이 묶인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매듭을 풀어 본 경험은 이후에 직면하는 다른 삶의 매듭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질적인 삶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꼬인 매듭을 푸는 데는 좋은 선생님도 있었고 거친 세상도 도움을 주었지만 그 주체는 그들 자신이었다.

**연구자:**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많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학습, 자기로부터 배우는 거..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

**준성:** 옛날에요, 제가 일기는 아니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일기 같은 게 있는데요, 가끔 시간나면 그걸 읽어봐요.. 옛날 거를.. 음주 운전해서 면허 취소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가슴 아파요.. 아, 이때 왜 그랬을까.. 내가.. 아무튼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반성을 하는 거죠. 절대 저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 미친 듯이 돈 쓴 적도 있어요. 그날 얼마를 썼다고 자랑질 하는 일기가 있어요. 그거 보며는 가슴이 미어지죠.. 저때도 저걸 아껴가지고 펀드에 넣으며는 내 지금 승률이 지금 백단위를 기록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하면 절대 저런 미치게 돈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태식:** 저 놈은 성공할 놈이야, 성공할 놈.

**준성:** 이게 노력을 하면서 기록을 해 줘야 되요..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고 내 어떤 잘한 일을 했구나. 그 기록이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죠. 기록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태식:** 기록을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

**준성:** 근데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잡기가 어려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기반성을 통해 생활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은 삶의 연속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자기 삶을 통해 깨닫는 자발적 학습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적 학습이다. 결국,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삶의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자발적 학습의지를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자발적 학습 능력이 자신의 내면적인 삶 속에서는 예민하고 미세하게 포착되었다면 다음의 세상과의 소통에서는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 2) 남한사회에 대한 참여적 학습 : 관찰과 모방학습, 그리고 비판적 해석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와서 남한의 또래처럼 되기 위해,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바꾸려고 노력한다. 특히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적인 것은 더 빨리 바꾸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과, 외모 꾸미기, 청소년 문화 등이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남한의 또래들을 거울을 보듯 관찰하고 모방한다.

**연구자:** 친구들하고 피시방 가서 게임하고 놀면서 뭘 경험했어?

**성훈:** 애들이 저희는 모르는.. 저랑 나이 차이가 한두 살이라고 해도 문화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좀.. 늙은 것 같은 그런 건데.. 애네는 너무 젊고..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말을 빨리 배웠어요. 한 3개월 만에 거의 고쳐놨거든요. 1년 될 때는 사투리 이런 거 얘기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많이 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적응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많이 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집중했던 것이 또래관계예요. 그 동안 형들과는 잘 지내보았지만, 동생들과는 경험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에게 좋았던 경험이 3학년 마치고 12월부터 2월 까지 동생들하고(학교 또래) 강촌스키장에서 같이 알바 했거든요. 그니까 학교 때보다 더 가깝게 지내죠. 춘천에서는 고독했는데, 그때 사회적 소속감이랄까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동생들이 춘천 사회,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터넷, “형 게임은 이런 게 재미있어요.” 말해주고 그런 걸 다 전 경청을 했죠. (준성)

더 적극적인 관찰과 경청을 위해 남한 또래들에게 거울을 쥐어주고 자신의 다른 점을 비춰달라는 요구도 한다.

**대형:** 학부생 중에서 영향력 있고 저하고 가까운 애를 꼬셨죠. 인천에 출퇴근 하는 애한테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자, 그 놈을 데려와서 살았는데 나이차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끊임없이 개한테 말했어요. 제가 억양이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니네와 조금 틀리다,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각 말해주라 그래야 내가 고친다, 그니까 개가 알았다고, 그래서 개네가 스스로없이 나한테 말했고 친구 애들 데려다가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고, 어울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나이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 있었어요.

이 처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 초기에는 보다 용이하고 빠른 적응 학습기제로 남한 사회 구성원들(또래)을 닮기 위한 관찰과 경청 그리고 모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일종의 근거리 학습기제이다. 이런 학습 노력의 결과에 따른 성공감은 청소년들에게 일정 정도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에게는 또 다른 적응과제가 나타나는데, 그 과제는 남한사회의 문화를 따라가기만 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즉 아무리 모방을 해도 같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이들은 알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들은 남한 사회가 다 똑같지 않다는 틈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이는 대로의 남한사회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의도를 갖고 보고자 하는 남한사회에 대한 다양한 표상물들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보다 추상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그것은 대학을 가기위한 실용적 목적에서부터 남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려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이전의 외현적 관찰 모방과는 다른 차원의 학습 기제라고 볼 수가 있다.

**대성:** 네.. 요즘 신문을 계속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부터 그러서서 신문을 계속 읽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책을 많이 읽었구요. 책 많이

읽는 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구요.

**연구자:** 잠깐만. 1학년 때는 어떤 책을 많이 읽었어?

**대성:** 책이요? 주로 문학, 시, 소설. 제가 추리 소설을 잘 읽는 편이에요. 추리 그거 하나 하나 파헤치다보며는 진짜 재미있어요. 추리소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가끔 읽고 싶었던 책이랑. 1학년 때는 다독 잡는다 했었는데.. 스무 2학년 때는 별로 책을 잘 안 읽었고요.

**연구자:** 너가 책을 많이 읽는게 어떤 도움이 됐니?

**대성:** 사람들과 대화..

**연구자:** 대화를 풍부하게 해 주고..

**대성:** 네.. 그리고 글쓰기요.. 시험 보러 가서 논술.. 그런 쪽에 도움이 되고. 신문이 또 도움 되거든요. 3학년 때는 신문 많이 읽었어요.

진짜 선생님들이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주고 야, 너 신문 보라, 학교에 광주 출신 선생님이 저한테 철야, 조선일보 보면 안 된다, 오마이뉴스 보라.. 그때부터 계속 오마이뉴스 계속 보고...3년 내내 조선일보, 한겨레 계속 봤어요. (태식)

위의 두 청년은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권유로 책과 신문을 읽어왔는데 그 경험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논술 글쓰기와 연관된 기능적인 효과를 위한 학습이면서 동시에 남한사회의 미묘한 정치적 견해들의 차이를 감지하고 읽어내는 데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학습능력은 이 청년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학생활 속에서 더욱 확장되는 연속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반드시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회 속에서도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 바깥에서도 가능하다.

비꿈이라고, 사회과학 동아리에요. 우리말로 비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 be-commune...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이고.. 맑스주의나 이런 거 많이 그런 것도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해서도 비정규적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종교 관련된 것도 많이 연구하고. 제가 그런 거 대개 좋아해요. 사회문제, 정치 그런 거 대개 좋아해요. 사회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거기 들어갔죠. (태식)

간호조무사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오후 세시 반부터 새벽 1시 까지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그때 주유소에 신문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손님들 없을 때 많은 신문을 다 읽어요.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스포츠 한국 까지...그 때 경제신문 보면서 경제관념이 생겼어요. 그렇게 신문이나 언론 등을 보면서 저한테 비판의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인데도 논조가 다른 거예요. 아, 뭔가 거짓말이 있겠구나.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나도 평가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을 하고 동호인들의 생각들을 보았죠. 우리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더 시사,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천국은 아니구나. 이 사회에도 부조리가 있고 여기서 이런 걸 감추는 자는 누구이고, 권익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사람 사는 세상은 큰 차이가 없구나. 한국은 개개인이 뛰어나다기 보다 시스템이 좋은 거다. 북한에 비하면, 그렇다면 북한도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죠. 제가 이런 근현대사를 어디서 배우겠어요. 인터넷이 아니고는...(준성)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사회에서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활동은 북한이탈 청년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 학습이며 이 학습과정에서 한국사회를 달리 보는 비판적 관점을 형성한다.

또 다른 청년은 일터에 놓인 여러 신문을 섭렵하여 읽으면서 한국사회에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있음을 파악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관점과 입장들 사이에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입장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비판적 안목과 의식이 필요함을 알게 된다. 그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점들이 상호 교류하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그들의 생각들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매우 참여적인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참여적인 학습은 단순 관찰과 모방학습보다는 보다 시선을 멀리 두는 관점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은 아예 관찰자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바꾸었을 때도 가능하다.

다음의 청년은 소위 명문대학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영어능력이 자신의 생존에 매우 필요함을 알게 되어, 영국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때 배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2학년 마치고 영어공부하려고 1년 동안 영국에 가서 살다 왔어요. 돈 삼백만 원 가지고.... 아침에는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고, 나머지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서 물품 이적하는 거 했는데... 1년 동안 살다 왔죠. 근데 영어는 많이 못 늘었어요. 이러면서.. 1년 동안 영국에 있었지만 영어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됐고, 대신에 프랑스, 독일을 건너 갈 수 있는데 비자도 필요 없고 돈도 3,4만원이면 건널 갈 수 있어요. 한국 유학생 대부분이 유로패스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저도 친구랑 유로패스를 끊어서 돈을 모아 한 바퀴 쪽 돌았죠. 유럽문화도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남한 안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유럽같은 바깥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입장이라든지, 유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동양가치관과 틀리는 유럽의 문화, 서양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태형)<sup>52)</sup>

영어공부를 위해 떠났던 영국유학이 자신의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지만, 바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 한국의 시선이 아닌 제3자의 눈으로 바깥사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들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했다. 영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무리한 도전을 감행한 것 자체가 대단히 적극적이고, 공간이동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의 획득 또한 참여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수의 북한이탈 청년(청소년)들이 이 사례의 청년처럼, 외국을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간이동을 통한 참여적 학습은 이미 북한이탈청년들의 이전의 여러 국가 경계를 넘나든 삶, 최근의 외국으로의 재이주현상, 중국 재방문을 통한 기억과 삶의 역사, 정체성 등을 통합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학습이다.<sup>53)</sup>

52) 이 사례 주인공의 외국유학은 2000년에 이루어졌고 그 방식에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년들의 서구사회 선진국으로의 재이주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서양과 영어에 대한 전망에 대한 해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최근의 청년들의 재이주현상에 대해 박서연(2007)은 남한사회의 비판적 해석, 수동적 주체에 대한 저항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자는 일정정도 동의하지만,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미세한 이야기 듣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재이주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는 한국사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관찰, 경청, 모방하는 학습과정이 있었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참여하는 학습과정이 있었다. 정진웅(2004)은 남한의 지배문화체제를 ‘상수’로 하는 일방적 ‘적응’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에 맞닿아있는 가치와 의미를 기반으로 남한의 지배문화를 상대화하고 자신들의 공동체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교육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일방적 적응’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 청년들의 자발적 학습자로서의 자질과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학습능력은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실천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편입이나 순응과는 다른 차원의 자발적이고도 참여적인 학습은 북한이탈 청년(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보다 주체적으로 구성, 재구성하는 과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3) 북한이탈 청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체성들

#### (1) 남한사회의 편견을 넘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연구자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대학, 직장 및 사회에 걸쳐 한 번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 때는 숨기지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숨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도 보면, 학교사회는 비교적 북한이탈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시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사회가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직업군에서도 북한이탈자에 대해 개방적인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등 다양하다. 하지만 북한이탈자에 대한 시선이 일반

53) 한국사회를 자기가 살다 온 사회체제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능력에서도 통찰적인 학습의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적으로는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성이 더 짙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이 청소년, 청년이라는 점에서 개방적인 사회조직 및 그 구성원들과 교류 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청년들도 그동안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이를 알고 있었다. 북한이탈자에 대해 개방과 폐쇄적 인식이 공존하되, 폐쇄의 벽이 더 높은 남한사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청년들은 남한사회가 자신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벽을 넘기 위한 노력을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적응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집단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북한에서 와서 사람들 힘들 수 있어요. 북한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보는 편견도 있어요. 그런데요... 남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더 힘들었을텐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사네 그러면서 남한사람들 함부로 무시 못해요. 그니까 자기가 똑바로 처신하면 북한에서 왔다는 게 무시 안 되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비실비실하고 그러면 북한 사람인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남한사람 못하는 사람보다 더 무시하는 거죠. 배로..(태식)

**연구자:** 남한 사회가 일단 북한이탈자 집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어. 또 사실 그런 면도 있고...

**준성:** 그 색안경을 벗겨주는 게 내 임무인 거죠.. (음..)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이상한 사회에서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경계를 하죠.. 거꾸로 저라면 경계를 안 할 것 같아요?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색안경을 벗게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고,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네.. 난 이런 사람이다.. 상대가 새롭게 보게끔 해야지. 상대가 색안경을 껴오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북한이탈자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이 사회에서 항상 그런 벽을 쌓고 이등 국민이 될지 모르죠.. 빨리 이 사회에 들어가야 되요, 침투? 침투라면 좀 이상한데, 빨리 융합이 되어되요... 가슴 한 가운데는 나 북한이탈자 이런 게

있어도 평소에 직장 이런 데는 북한이탈자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되요. 그냥 평범한 이웃이고, 평범한 내 직장 동료고, 내 술 친구이고 이렇게 가야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나, 물론 남한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다가 지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처럼 남한사회의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남한사람들과 다양한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자들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북한이탈자집단 조직들에 대해 이들은 비판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경계를 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북한이탈자 집단 문화를 형성할 필요성과 자신들이 그 준비를 시작하는 세대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자신들이 40대가 될 즈음, 가능할 것 같다고 그 역사적 진행과정을 예측하였다.

**준성<sup>54)</sup>:** 나름대로 북한에 충성심을 다 하던 세대들이 있어요,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죠... 지금 다 60대 되는 할아버지 소리 듣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연배가 다 가고.. 그리고 제 나이가 40대가 되면... 호호호 그런 일이 없다고 봐요.. 우리 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충성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안됩니다. 안 돼요... 전 그걸 장담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김정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충성심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하나니까 따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40대 되면 우리 과위를 무시할 정도는 아닐 걸요. 나름대로 돈도 좀 모아있고. 우리가 그런 걸 주물럭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걸 저는 확신하는 거죠. ....

**연구자:** 그 얘기는 지금의 너희 세대는, 북한이탈자들은 북한 사회에서나 남한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그룹이..

**준성:**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지금 숫자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만

---

54) 북한이탈자 집단의 세대적 전망에 대한 질문은 연구자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이 청년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왔고 그 이후 이 질문을 태식에게도 해본 것이다.

명이 넘어가는 세대가 있고 그 2세도 나오고, 그 남북한의 교류라고 그럴까요? 왔다갔다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게 정계 진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까지 40살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보조연구자:** 그니까 니가 40살이 되면 니네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지?

**준성:** 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혼자지만 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sup>55)</sup>

**연구자:** 영향력 있는 그룹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수, 세력을 확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춘다는 거라는..(네...)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능력을 북한이탈자들이 갖추기를 기대하거나 전망하고 있어요?

**준성:** 글썄요. 최악의 경우에 말이죠.. 40대까지 살아남았다는 거 말이죠.. 그니까 살아남은 자는 승리하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방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적응을 해서 어떤 능력을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준성:** 글썄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가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자:** 기대하는 게 경제적 자립 말고는 없어?

**준성:** 음..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색깔을 좀 갖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제 2의 이산가족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희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이탈 2세도 그때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들한테 우리 세대가 이제 희생을 해 가지고 남북한 다들 교육에 대한 열망은 크니까요...

북한이탈자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일정정도 능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북한 역시 세대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근거로 본다면, 자신들이 40대가 되어 집단의 주역이 될 즈음 세상은 희

---

55) 본인처럼, 많은 북한이탈자들이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제적 지원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북한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망적으로 변화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낙관론에 비해 다음의 청년은 현재 남한사회의 북한이탈자 집단의 조직성과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태식:** 대학생들만 가입하는 단체인데 북한이탈자들이랑 남한 사람들이랑 섞여서 같이 토론하고 통일 토론 하고 그런.. 그런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1년 하고 2학년 때 관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간부잖아요. 북한 사람 회장 밑에 북한 사람이 다 간부라서 이제 북한사람이 자립적으로 일어서려는 건가 해서 들어갔어요.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뒤에 거대한 기독교 세력이 있더라고요. 황당해 가지고. 그니까 이게 북한 사람이, 회장이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다 자금줄이 여기예요. 만약에 자금줄이 여기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돈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뭔가 자립적으로 일어서야지, 어디 거대한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의 돈을 딱 쥐고 목을 쥐는데 아무리 회장이 뭐하고 뭐하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북한이탈자 단체가 대개 많아요. 완전 극보수, 덜 보수, 덜덜 보수... 엄청 이게 막... 사람은 만 이천, 삼천 밖에 안 되는데 남한사람보다 더 세분화 되어있어요. 이게. 단체가. 완전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다 돈하고 관련 돼 있어요... 근데 배워야 되요, 이제는. 북한이탈자들이 멍치려면요, 못 배우면 안 되요.

**연구자:** 뭘 배워야 돼?

**태식:** 이거.. 이거 배워야죠. 학교 가서 민주주의도 배워야죠.

**연구자:** 민주주의 사회원리를?

**태식:** 아니, 뭐 민주주의 사회원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런 학교 공부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걸 다 배우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그걸 다 써 먹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부를 기본 바탕으로 해 갖고 폭 넓게 나가려는 거잖아요. 다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폭넓고 깊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대학교 생활이나 이런...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세대하고 과거 세대,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사람 보면 기성세대하고 신세대하고 많이 다르잖

아요. 광우병만 놓고 봐도.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탈자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북한이탈자들도 이게 와서 처음부터 배우면서 좀 이렇게 아주 구세대들.. 진짜 여기 단합도 못하고,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세대가 교체가 될 즈음에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뭉실 뭉실해지면서 같이 단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걸 하다하다 보면 기초정도는 닦아놓겠죠...

이 청년은 북한이탈자들이 학교를 통해서든 사회를 통해서든, 민주주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특히 이전의 북한이탈세대와 달리 자신들을 이런 학습의 가능성을 더 많이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세대로 규정하면서 학습된 세대들이 성장하게 될 때의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다만 자신들은 세대적으로 그런 희망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의 역사적 진행과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이들의 사고과정에는 앞서 기술한 남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학습과정에서 일어난 비판적 해석능력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자의 위치변화와 전망을 집단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북한사회의 변화과정 또한 예의주시하는 등 개인과 집단 간의 다층적인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청년들의 다원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보았다.

(2) 나는 누구인가? : 누구긴요, 4년차 된 일산 시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큰 정서적 저항 없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개 “겉으로는 남한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북한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같은 질문에 정서적으로 편편치 않게 여기는 청년들은 그 질문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를 나누는 전제라면서 “난 남한사람, 더 정확하게는 코리아인데 북한에서 이사 왔다”는 이주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 이주는 지역적 이동으로서, 함경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민족공동체의 큰 범주에서 국가의 범주를 뛰어넘어 자신의 정체성의 범주를

지역화하였다. 지역으로 범주화된 정체성은 보다 큰 범주의 정체성(민족과 국가)과 비교해볼 때, 구체적인 삶과 더 밀접하며 역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윤옥:** 나는 그래서 북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자신감을 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넌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너는 태어나기를 북한에서 태어난 거지, 너는 한국 사람이야, 니네랑 똑같애... 크게 보면 한국교육에도 문제가 있어요. 북한 사람 말투나, 개그콘서트를 보면 북한 말투를 말하면 웃고 이리잖아어... 난 안 웃겨요.. 왜냐면 그건 하나의 사투리이고 하나의 문화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웃지 않으면서 북한 사투리를 보면서 웃는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걸 얘기해 줘요. 북한도 우리나라다, 그래서 언어는 사투리일 뿐이고, 지역은 이렇게 해서 갈라지고 잠시 싸움 증일뿐이다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탈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죠?

**윤옥:** 네. 그게 난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 일련번호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것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을 똑같이 해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요.

개개인이 다 다른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데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북한이탈자 집단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박탈하는 인권적 침해이며 이러한 분리적 제도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남, 북한이라는 국가개념보다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으로 정체성이 논의되어야 합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sup>56)</sup>

56) 이 문제에 대해 박서연(2007)은 국경을 넘나들며 각각 다른 사회의 위치를 경험해 온 북한이탈 청년들은 국가 및 국민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귀속 정체성을 가지기 보다는 ‘국적’ 소유의 여부 문제로 본다고 했다. 또한 남북한 사회 모두로부터 배제와 차이를 느끼는 이주 청년들의 삶에서 경고한 ‘국가’와 ‘국민’의 인식은 균열된다고 하였다. 연구자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정체성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인식의 균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은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났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점과 그래서 본인들은 한국 내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확연히 다

다음의 청년의 이야기는 이러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연구자:** 혹시 이런 질문은 어때? 난 어느 나라 사람인가?

**준성:** 근데 이게 말이죠. 외국인이 했어야 될 질문인데... (아, 그래...) 남북한 이 말이죠. 이게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본의 아니게 갈라져있을 뿐이지, 우린 본래부터 하나의 국가였죠. 상해임시정부도 그랬고요...

**연구자:** 그니까 준성이 개념은 그거 아니야, 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니까 아까 얘기한 걸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이거는 나뉘질 수 없는 부분이고 내가 정체성 단위에서 본다면 나는 한 국가 안에 경기도와 함경도가 있고... (그럼요, 거기서 봐야지...) 지방 수준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지, 이게 국가로서의 정체성은 아니다.

**준성:** 이런 게 이제 조만간 하나가 될 거예요... 될 거구요. 친일파들이 맨날 통일 되면 안 된다... 그거는 일본이나 하는 소리고... 일본은 겁이 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요... 일본이 이런 걸 물어본다면 난치하겠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스읍... 그럼 애매하겠죠.

**보조 연구자:** 그럴 땐 뭐라고 할 건데?

**준성:** 글썽요...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그건 남북이 다른 국가이다를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이탈청년들이 구성한 이러한 정체성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적 설명이 다소 어려운 또래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동일한 개념이다.

**연구자:** 남한이 태식이한테 제2의, 또 하나의 고향이 될 수 있다 또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태식:**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아... 제가요, 살면서도 남한... 아휴... 왜 그러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남한이나 북한이 하나의 나라 같아요. 그냥 이상하죠. 표현이 좀.. 내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이 잘 안되네.. 어떻게 말해야 될까...

---

르다는 점, 자신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구분하는 시각이 견고성을 띠는 점에서 ‘균열’과 ‘견고’가 함께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 형성이란 복잡하고 다층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율배반적일 때도 있는 것 같다.

**보조 연구자:** 준성이는 이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 함경도에서 경기도로..

**태식:**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손뼉을 치며)... 맞아요, 맞아... 그런 표현이  
에요. 진짜...!!! 나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살다보니까. 굳이 남북한 이렇게  
이렇게... 야... 준성이 대단하다, 그런 표현 다 쓰고... 야... 멋있는 놈이네... 저  
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제2의 고향은 그  
거죠... 줌...

**연구자:** 분리하는 거지...

**태식:** 네... 남과 북을 분리하는 거죠.. 저도 준성이처럼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했는데 준성의 말을 빌려서 이사한 거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 청년들이 지역적 이사 또는 이동이라고 이야기한데서 한층 더 나아가  
다음의 청년은 정체성은 공간적 규정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와 관  
련된 존재감이라고 말하였다.

**연구자:** 이건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니가 아직 너의 뿌리가 거기(북한)  
있어서 가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군가 너한테 너 누구냐 이  
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성훈:**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양대인가... 아이  
스하키하는 형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형이 국가 대표로 아이스하키하는데  
그거 배운다고 따라다니고... 거기 한양대 교수님이 있어요. 마흔 몇 살인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났던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애매  
해요.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 또 살려고 여기 와 갖고 살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구요. 만약에 한국이랑 북만이랑 진짜 싸움 했  
다..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을 들거냐.. 그분은 진짜 난감한 질문을 그렇게 했어  
요. 생각을 하다가 스읍... 글썽요. 저는 아무래도 뿌리가 있고 피가 있다보니  
까 그 쪽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8, 90%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있고, 지금까지 내가 느껴본 데에는 이북이 뭐 싸움을 해 갖고 한다면 그  
건 원치 않는다, 똑같은 걸 반복하고 싶지 않다, 뿌리는 거기 있어서 같이 싸  
우고 싶지만 그런 제도나 그게 싫기 때문에 여기서 싸울 것이다.. 나중에 되  
며는 난 그 쪽 편으로 갈 것이다.. 굉장히 애매하다고 그러더라구요. 크흐흐흐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한마디 던진 게 그러면 왜 왔냐 그래요. 그때 화가 확 났  
거든요. 크흐흐흐. 그래서 그때 딱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왜 사세

요?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 사람도 아무 말 안 하더라구요. 똑같다고. 선생님도 왜 사냐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고....

이 청년의 답은 40대 교수님의 기대에 못 미친 애매한 정체성이었지만, 여러 경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매함과 복잡함이야말로 정체성의 본질적 요소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한 켜켜를 이루고 있는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존적인 정체성이다. 복잡한 삶의 켜켜를 가지고 있는 이중, 다중의 정체성은 존재론적으로 부정될 것이 아니라 긍정성을 가진 정체성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어찌면 우리는 그 동안 개인의 정체성을 국가, 민족이라는 거대한 경계와 범주를 근거로 고정 불변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는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삶의 경계와 범주 속에서 구성되는 개인의 정체성은 나름의 역사성이 있다. 그 역사성은 변화하는 과정들의 연속이다.

**준성:** 저는 이제는 음.. 글썄요. 저는 스스로 그래요, 난 이제 한국인인 것 같다. 난 굳이 북한이탈자라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음..) 물론, 감출 필요는 없겠지만 딱히.. 예전에는 살짝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격세지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질감..?) 네, 이질감도 있었고 나는 북한이탈자인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사람 대할 때 살짝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요런 의식이 있었고 열등의식도 있었고 저 사람은 뭔가 잘나 보인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 저는 이제 주제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대한민국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뒤떨어진 사람한테는 하하.. 조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겠나..

**연구자:** 니 삶의 경험이..

**준성:** 네. 그런 게(삶의 경험) 나한테 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옛날엔 보기도만 했어요. 이제는 댓글 정도는 달아야죠. 이제 제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음..) 너무 이른 건지 모르겠지만..

**연구자:** 힘을 얻었구나..

**준성:** 네, 이젠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야말로 한국인이 되어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젠 같은 주제로 토론도 할 수 있다는....마음이 생기더라구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꿰지만 이제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거 보며는 나도 이제 슬슬 한국민이 됐구나, 돼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이 말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과정적인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갖는 구체적인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 목소리의 힘은 자기 경험과 삶에 대한 긍정성으로부터 획득된 것으로 자기와의 대화이며 동시에 의미 있는 타자와의 대화이다.

**연구자:** 그런 질문은 해 봐? 난 누구일까?

**준성:** 음..나는 누구일까? 아니 괜히 복잡하게 혼란을 주시네요..

**연구자:** 하하하..

**준성:** 아니, 제가 누구긴요, 4년차 된 일산 시민이고 그렇죠.. 57)

난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 청년들은 그것은(정체성) 사는 일이고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삶이고 남과 북은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의 차원이므로 이 지역 간의 이동은 늘 자유로운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는 자신들의 소망 역시 경기도에서 함경도로 이사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많은 청년들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북한사회가 좋아지고 안정된다면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이탈 청년들은 지역적 이동의 자유를 근거로 한 탄력적인 정체성을 자신들의 경계적인 삶의 맥락에서 구성함으로써, 고정 불변하는 정체성의 압박으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민은 자신의 지역(local)을 넘어 탈영토화(deterritorialized)된 상상력을 가진 문화해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아파듀라이, 2004; 박서연, 2007, 재인용).

**연구자:** 음..그래.. 너 평생 여기서 살 생각은 안 하는구나..

---

57) 이 청년은 지난 총선 때의 일산지역에서의 총선상황 및 시민들의 선택에 대해 안타깝고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그 기회를 계기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준성:** 여기서? 네.. 평생 살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평생 살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남아있고. 그렇다고 고향은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겠다는,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죠. 여기는 마지못해 떠난 곳이죠.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오다보니까 여기가 된 거고. 그래서 전 지역적인 얘기를 한 거지, 그 이상의 확대는 아닌 거죠. 나중엔 다 지역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가서 사는 얘기가 될 겁니다. (아...) 제가 경기도에서 함경도로 가서 살고 싶다 이 얘기인 거죠..

많은 연구들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해 정체성 혼란, 이중 정체성들의 언어로 표상해 왔다(김영우, 2006, 장문강, 2006). 이러한 언어는 다분히 심리학적 언어로서 정체성은 혼란되기보다는 정립되어야 하고 이중 또는 다중의 정체성은 병리적이어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확고해야한다는 신념을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왔다. 그런 점에서 흔들리는 정체성과 복합된 정체성은 부적응의 단서이기도 했다. 무릇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보다 더 혼란과 불안이 있는데, 여러 상흔을 겪고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운 삶을 겪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또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들은 집단적으로 더욱 심한 정도의 ‘정체성 혼란’, ‘이중의 정체성’으로 명명화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명명화된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배제와 소외로 특성화될 수밖에 없다. 즉 억압을 당하는 집단의 정체성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 하나의 언어, 단일한 집단으로 명명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존재됨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다양한 목소리와 꿈과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이들이 함께 살면서 교류하는 남한사회 또한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체성 형성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단히 구성, 재구성되는 것으로, 다중적이고 유동적이다.

Murphy(1965)는 문화적으로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가 문화적응에서 더 적은 위험 요인을 가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압력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특성을 가진 문화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경, 양계민, 2004. 재인용).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 하고자 노력할 때, 북한이탈 청소년, 청년들의 사회적응의 위험은 그 만큼 사라지고 우리사회 스스로도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부당한 소외와 동질성에 대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취향을 가진 문화 집단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 V. 외국 사례 분석

1. 대규모 산업사회 유형 : 독일
2. 소규모 복지사회 모델 노르웨이 및 덴마크
3. 전통적 이민사회 모델 : 호주
4. 소규모 특정 이민사회 : 대만
5. 결론



## V. 외국 사례 분석

언제나 그렇듯이 같거나 비슷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역사와 문화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어떻게 제기하고 해결하려 애썼는지 본보기 삼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그 다른 역사와 문화배경 때문에 문제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문화 사회’의 대두와 같은 중차대한 시대적 요청이나 과제일 때, 그에 대한 고민과 태도나 자세, 그리고 세세한 방안까지 서로 비교하고 공부하는 일은 불가결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이야말로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에 걸맞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전제인 ‘문화 사이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는 사회를 만들고 살면서 처음부터 다양한 집단이 다채로운 방식으로 서로 옮겨가며 어울려 살았다. 인류의 탄생과 발달에 대한 이론들도 요즘 외서는 ‘유목민(homo nomade)’의 삶이 그 시작이라고 전제한다. 장구한 인류역사로 보면 ‘정주민(定住民)’의 시기는 잠깐 끼어든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류는 끊임없이 여행을 계속했고 지금 다시 대대적인 집단 여행을 거듭 감행하고 있는 중이다(Attali, 2005). 오늘날 현대에서 지식정보 사회라는 탈현대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인 규모로 유목민의 삶이 다시 대두하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지구화, 유목민화는 기존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데다가,<sup>58)</sup>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의 양상, 방식조차 달라지고 있다. 예컨대 기존 ‘탄탄하게 굳은(solid)’ 현대성에서 ‘변하기 쉽게 흐르는(liquid)’ 현대성으로 바뀐 시간이며 공간 속에서 새로운 존재방식, 관계, 심지어 마음상태로 살아가 된 것이다(Bauman, 2000; 2003; 2005; 2006; 2007)

---

58)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약 1억 9000만 정도의 인구가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는 지난 50년 사이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중에서 1억 1500만명은 미국(20%), 유럽(33%) 등에서 거주하는 등 75%가 28개국, 즉 이른바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537/immigration#IntroductionWorldwideImmigrantsStatistics>).

외중에 오랜 동안 ‘단일민족’ 신화에 사로잡혀, 말 그대로 우물 안 개구리로 웅크리고 살아온 한국사회에도 지구화와 다문화로 상징되는 문명전환의 물결이 여지없이 밀려오고 있다. 식민경험과 내전을 통해 가뜩이나 움 추린 폐쇄성에다 졸속한 산업화, 압축적 성장과정의 결과 흐트러져버린 존재를 추스르느라 동원된 억지 통합성을 고려할 때, 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언제나 그렇듯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 급격한 변화에 준비나 체비를 갖추지 못한데다, 무엇이든 서둘러 대처하는 버릇까지 생긴 탓에 허둥지둥 급한 불 끄느라 바쁜 상황에 치이게 되니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차체에 근본부터 다시 짚어보고 차근차근 새로 시작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런 만큼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미리 겪은 나라들의 본보기를 짚짚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의 이민정책의 특성과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문화 사회를 맞아 이민자들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비록 그것이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전 지구적인 사안으로서 충분히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한국사회 학문부터 여러 가지 담론이 흔히 그렇듯이 이주나 다문화 사회 문제 또한 그동안 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중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몇몇 잘 알려진 사례에 집중하고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형적인 제국주의 시대 식민경영과 그 결과로서의 이민사회 구성 등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한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경이나 맥락이 한국과 유사한 독일, 그리고 복지사회 모델로서 또한 모범적인 이민사회 정책을 펴고 있는 북유럽의 노르웨이, 대표적인 이민국가의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한국과 또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해 그 양상도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굳이 유형화하자면 대규모 산업사회 유형, 소규모 복지사회 유형, 대규모 본질적 이민사회 유형, 소규모 선택적 이민사회 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59)</sup>

## 1. 대규모 산업사회 모델: 독일<sup>60)</sup>

### 1) 배경 및 특성

독일은 국가 자체가 독립된 민족국가 형태를 이룬지도 얼마 되지 않은데다, 전통적인 의미의 이민조차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예컨대 17세기 프랑스에서 종교박해를 피해 위그노들이 약 64만 명가량 이주한 경험이 있는 정도다.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경쟁 대열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어 이렇다 할 식민지를 얻지 못한데다, 그나마 얻은 식민지도 제1차 대전 패전으로 모두 잃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국주의 식민모국 경험을 가진 대규모 산업국가 중에서 이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치 지배하에 인종차별 정책을 추구하여 반(反) 인류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민과 이주 등에 역행하는 경험을 쌓았을 뿐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야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부흥기에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면서 이민국가가 되었다. 1955년부터 1973년 사이 약 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데 그 출신국가 구성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같은 유럽지역을 비롯해서 터키, 튀니지,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편이었다. 한국에서만 약 1만 명의 간호사, 그리고 8천 명의 광부들이 이주해 왔다.

부족한 노동인구 충원이 어느 정도 완료된 1973년 이후 1985년까지는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가족결합과 연관된 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동구권의 몰락과 난민들의 유입이 겹치면서 1992년에만 43만 여명의 망명자들이 몰려드는 등 이민의 유형이 달라지 게

59) 이 구분은 전혀 자의적인 것이다. 기존 ‘유럽-제국주의형’, ‘미국형 또는 신제국주의형’, ‘아시아-탈식민주의형’과 같은 유형화(오경석 외, 2007: 39-43)가 적잖이 도식적이고 또 과거지향적인 기준에 의거하며 최근 복잡하고 다단한 이민사회, 이주사회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고 여겨 새로운 유형이 필요한 만큼 그 운을 떼고자 조약하나마 시도해 보았다.

60) 독일사례의 통계나 정책내용 중 따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주로 Schmitz(2008)에 의존한 것이다.

되었다. 그밖에도 이른바 독일 동포귀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2차 대전 이전 독일 영토였던 동구권 및 구 소련지역 동포들로서 1987년부터 1999년 사이 무려 270만 명에 이른다. 오늘날 독일에는 약 1,530만(전체인구의 18.6%)이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인데,<sup>61)</sup> 이중에 외국인이 730만(전체인구의 8.9%), 또는 귀환동포 800만(전체인구의 9.7%) 정도이다.

## 2) 정책 및 문제점

독일의 현행 이민관련 정책은 통합 지원, 투명한 이민과정, 치안의 중요성의 원칙 아래 2006년 수립된 ‘국민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수립, 기획, 수행되고 있다. 그 때까지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연방 정부기구 뿐 아니라 주정부, 기초 자치단체, 가게 대표, 시민사회 대표, 이민자 대표들이 결합하여 지속적인 통합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정책 목표는 무엇보다도 ‘통합’이다. 먼저 독일어 능력과 기초 사회지식이 통합의 기초임을 전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와 독일 사회가 공동노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통합된 독일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민자들에게 통합의 기초인 언어능력의 습득과 적극적인 정착 의지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존 독일사회 전반의 관용과 포용, 지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기초아래 실행되고 있는 이주민 청소년들의 정착과 통합 관련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지난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구동독에서 탈주한 이민이 구서독으로 이주해 왔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 1984년 동서독 사이에 합의에 따라 공식적인 이주가 허용되면서 비로소 그 수가 늘어나 통일될 때까지 7년 동안 약 15만 명 정도가 이주해 왔다. 이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고 연령층이었고, 청소년은 그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처음부터 독일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지원과 혜택을 누렸으므로 그다지 큰 문제를 갖지도 또 일으키지도 않았다. 정착 문제는 1991년 갑자기 찾아온 통일 이후에 나타났다. 대규모 이

61)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persons of immigrant background)’은 이민자 출신 독일인(귀환 교포 또는 귀화한 외국인)과 독일에서 출생한 2세, 3세를 뜻한다(Schmitz, 2008: 37).

주의 문제라기보다 46년간 분단되었던 다른 체제끼리 갑작스런 통합하다보니 당연히 뒤따르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청소년 관련 문제점만 지적해 봐도 그렇다. 구동독 지역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 직업훈련 수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체제 및 경제체제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대체로 겉보기에 그 통합과정은 약 5년 정도 이후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유명한 통일의 주역이 브란트(Brandt) 전 수상의 말처럼 “체제를 합치기는 쉽지만, 머리와 마음을 합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드러나는 과정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했다. 이른바 ‘후세 동포들(late repatriates)’의 유입이 대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영토였던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에 살던 독일계 주민들이 동구권 붕괴와 몰락에 즈음하여 독일로 돌아오는 경우인데, 그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단절되어 살아 온 탓에 언어, 문화, 사회적 동질성이 거의 없는 2, 3세 등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혈통주의에 따라 독일인으로 인정되어 이주하자마자 시민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이주민들처럼 정착단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나 채비를 덜 갖출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특히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에 심각한 결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지난 PISA 연구 등에서 독일이 그토록 자랑하던 교육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낮게 평가되는 원인으로까지 지적되었다. 아무튼 이들의 교육수준, 성과 등은 심각하다 못해 참담한 상황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반 가까이인 44%(일반 독일 청소년의 경우 19%)가 최저수준 학교에 진학하고,<sup>62)</sup> 17%가 중도탈락하며 36%가 제대로 된 직업훈련조차 받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어찌 보면 한국에도 통일 이후 등 곧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과 관련하여 본보기가 될 만한 위의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62)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은 이른바 ‘이중학제(dual system)’가 일찍 정착되어 이미 10살 단계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뉘고, 실업계 또한 그 연수와 내용에 따라 수준이 나뉜다. 여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9년제 실업계 중등학교 졸업 과정을 말한다.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전반은 앞서 언급한 종합계획에 따라 입안, 추진된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높은 만큼 그 다양한 수준의 정책들의 연계, 조화가 두드러진다.

구소련 및 동유럽 귀환 동포들을 위한 정책들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일단 취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16-25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기회를 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독일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규학교와 보육시설 중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의 정책 뿐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the 2nd chance)’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정책, 교육관련 1:1 멘토링을 담당할 ‘교육대부(godfather of education)’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둔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역시 독일어 교육에 치중하며, 이주민 당사자들을 유치원 및 학교교사로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에서는 ‘통합 상담자’ 제도를 두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위한 이주민 지원 및 상담체제를 마련한다. 또 거주지 관리 및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주변화 된 이주민 거주지역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그밖에 특이한 것들을 들자면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다양성 선언(charter of diversity)’를 통해 이주민들의 직업훈련, 노동시장에서의 통합에 노력을 기울이고, 이주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 또한 기울인다. 또 스포츠의 통합기능을 활용하여 이주민 코치 등을 동원하여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통합을 시도한다.

이상 살펴본 독일 사례와 관련하여 짚어 볼 것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먼저 한국처럼 분단을 겪었다. 오랜 동안 대립하고 또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 다만 그 분단이 한국같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열강의 이해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쟁과 끔직한 학살이라는 자기책임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다르다. 또 독일은 제국주의 경쟁에 늦게 뛰어드는 바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에 비해 전통적인 식민경영, 그리고 그에 따른 인구유입 같은 전통적 의미의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전후 이른바 라인 강의 기적에 따른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려고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 비교적 근래에 다문화 사회가 된다. 이와 같은 분단 상황, 경제발전에 따른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 등의 배경은 한국과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 청소년 문제는 동화정책의 결과로 언어문제나 문화적 충돌보다는 실업문제나 고립화와 같은 결국 식민지 경험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내적 식민화의 문제다. 독일의 경우 이주 노동자나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구권에서 이주해 온 동족 이주민들을 포함해서 상당부분 언어문제, 문화적 충돌 등이 현안인 바,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물론 독일은 이미 1991년 통일이 되었었고, 분단 상황은 사라졌다.

독일 통일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왔다. 그 바람에 이른바 전형적인 ‘흡수 통일’로서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고 많은 문제를 낳았으며 적어도 교육이나 문화,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다. 나 자신 거의 매년마다 독일을 다니며 관련된 연구도 하고 참여관찰을 해오고 있지만, 그 문제해결은 더욱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흡수통합 이후 모든 것을 구서독 기준으로 맞추고 바꾼 데서 온 무리가 대부분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타산지석이 된다. 발제자도 전제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통일된 지 한참이라 구동독 지역 청소년들의 문제는 이제 따로 다루기란 쉽지 않고, 또 큰 의미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독일 전반의 이와 관련된 청소년 담론이 관심사다.

어디서나 그렇겠지만 독일처럼 비교적 짧은 세월 동안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청소년 문제는 서로 연결되고 규정짓기도 하는 실업문제와 교육결손이다. 언어문제 등에서 출발한 교육결손은 충분한 직업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실업문제를 낳는다. 그런가 하면 PISA 연구에서 보듯이 교육과 문화의 나라로 알려진 독일 청소년들이 비교적 낮은 교육성과를 보이는 원인으로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들의 교육결손을 들기도 한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많은 정책과 방안들이 이 교육결손의 극복과 충실한 직업

훈련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위에 정리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정책은 대부분 정착과 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 썸 되는 사회에서 여전히 정착과 통합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여전히 주류사회의 틀에 이주민들을 적응, 통합시키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니 말이다. 독일 사회는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전체 인구의 1/5에 가까운 집단이 이주 집단이다. 그 중 반 가까이 다른 문화배경을 가진 집단이다. 특히 이슬람 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을 일방적인 통합으로 주류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최근 독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슬람 종교와의 갈등은 바로 이런 정책에서 온 당연한 결과다. 이런 경향을 고집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웃나라 프랑스에서와 같은 본격적인 인종갈등, 종교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 2. 소규모 복지사회 모델: 노르웨이<sup>63)</sup> 및 덴마크<sup>64)</sup>

### 1) 배경 및 특징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알려진 그러나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다. 전체인구가 500만 정도인데 현재 이주민의 수는 전 인구의 9.7%에 해당되는 46만 명이다. 그 구성은 유럽 출신이 25%, 동구권을 포함해서 그 밖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자들이 75%를 차지한다. 지난 20년간 이민이 급격하게 늘어서 3배 증가하였다. 기존 노동이주의 단계를 넘어 이들 가족의 합류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이주민 가정 자녀들은 0-17세 사이 전체 인구 중에서 7.3%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 오슬로의 경우 전체 아동의 24%가 비서구권 국가 출신일 정도다.

63) 이하 노르웨이 관련 내용은 주로 Kjerschow(2008)에 의존하고 있다.

64) 이하 덴마크 관련 내용은 주로 강주현(2008)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웃 나라인 덴마크도 비슷하다. 1960년대 후반 노동력 부족 탓에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주가 시작되었다. 특징은 처음부터 대부분 터키,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등 비서구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주를 이룬 것이다. 1983년 주로 이주 노동자 가족결합을 위한 이민 자율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출신국은 더욱 다양해졌는데 여전히 비서구 출신 국가 출신 이민자가 압도적이다. 1997년 이후 최근 10년간 추세만 보아도 비서구 국가 출신 이민자와 그 후손의 비율은 전체 이민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또 지난 10년 간 그 구성으로 볼 때 가족결합보다는 최근 지구화 추세에 따른 노동이주, 유럽 내 이주 등이 새로운 이민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현재 덴마크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06년 8.5%로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 2) 정책 및 문제점

노르웨이 이민정책은 노동사회부 산하 ‘이민다양성국’에서 관장한다. 그 목표는 통합과 다양성 촉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주민들이 그 배경에 상관없이 노르웨이 사회에 기여하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교육, 노동시장 및 전체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성장기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 가장 우선적인 교육은 일단 어어 교육이다. 4세 아동들의 언어 구사력을 조사하여 결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한다. 예컨대 오슬로 지역 모든 4-5세 유치원 아동들에게 하루 4시간 동안 무료로 언어교육을 실행한다.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난민을 비롯한 언어 소수자들이 3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강조하고 보장한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교육 및 지원은 노르웨이 어 및 모국어로 진행된다. 이중언어 정책이 그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도 탈락과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다. 그 결과 13세에 노르웨이 사회로 이주한 현 20-30세 사이 이주민들 중 45%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뿐 아니라 노르웨이 사회 특유의 자원봉사 조직을 활용한다. 포용과 참여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덴마크 역시 이주민 정책의 핵심은 언어와 교육이다. 이민자들 대부분 덴마크 현지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언어습득과 구사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비단 1세대 뿐 아니라 이민 2세대에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교육결손과 언어능력 부족은 학업, 취업 등 사회에 통합되고 정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덴마크 이민정책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출발한다. 덴마크는 세계최초로 지난 1999년 ‘사회통합법(Integration Act)’을 제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일단 18세 이상의 이주민들은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 아래 사회 입문 프로그램을 필수로 거친다. 그 내용은 주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보조 등이 거니와 언어 습득이 그 전제와 기초가 된다. 그 밖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정책 또한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이중 언어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언어 촉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유아교육부터 실행한다. 청소년들은 주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정착과 통합을 유도한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컨설턴트를 직업적으로나 봉사를 통해 장려하고 숙제 도우미, 직업훈련 상담 및 지원, 다양한 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상 살펴 본 스칸디나비아 모델로서의 이민정책은 한 마디로 적극적인 통합중심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들이 집중 유입되던 시기에 인도주의적인 이민 우호적 정책을 펴다가 이민자들의 실업을 증가나 복지예산 부담 등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민 억제 및 기왕 들어온 이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합, 실용적인 정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덴마크의 사회통합법의 제정이 그 신호탄이 된 것이다. 아무튼 이민은 억제하되 기왕 들어온 이민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나 배려를 통해 그 정착과 통합을 돕는 실용적 정책을 그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이중 언어 정책 등 아직도 이주관련 정책 중 선진적이며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아무튼 위에 함께 서술한 노르웨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발틱 국가들과 함께 선세계적으로 가장 인도주의적인 이민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이들 대부분 비서구권 이민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민은 곧 말 그대로 새로운 문화, 종교의 유입과 충돌, 갈등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이들을 다르지만 모두 동등한 사회문화적 집단,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가장 필수적인 언어교육에 집중하면서도 2중언어의 인정과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통합을 도모한다. 그밖에도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돋보인다. 무엇보다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부터,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 전반에 정착된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를 진작하여 쌍방향의 통합과 다문화 사회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점들이 특히 그렇다.

### 3. 전통적 이민사회 모델: 호주<sup>65)</sup>

#### 1) 배경 및 특징

호주는 잘 알다시피 미국과 캐나다와 더불어 전형적인 이민국가,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에 식민모국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만들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이민을 통해 성장한 국가다. 현재 2,100만을 조금 넘는 전체 인구 중에 45%가 해외 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외 태생이다. 그 중에 660만 정도는 한 세대 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45년 이후 이주해 왔고, 그 중에 69만 정도는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1968년까지만 해도 ‘백호주의’라고 해서 백인 중심의 이민사회였다가 이를 개방한 뒤로는 다양한 출신 국들에서 이민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경우 영국, 뉴질랜드, 인도, 중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65) 이하 호주 관련 내용은 Wallace(2008)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스리랑카, 수단 등에서 가장 많은 이민이 들어왔다.

호주 이민은 일단 두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기술능력을 갖추었거나, 기존 이민자 가족,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이민들인데 호주는 진작부터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전쟁이나 재난 등에 따른 난민들을 수용해 왔다. 너른 땅에 비해 인구가 원래부터 모자란 호주는 최근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의 상황을 볼 때 머지않아 노동 인구의 자연성장은 멈추게 될 예정일만큼 인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이민만이 그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사회 전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저 수동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세금납부나 소비지출을 통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사고 또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이민정책이 국가에 이익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그들의 이민적, 문화적 삶의 일상적 요소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Wallace, 2008: 34). 그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호주정부는 약 19만의 기술이민, 가족결합을 통한 이주민, 그리고 1만 3천 정도의 난민 등 20만 이상의 이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이민사회인 호주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다른 사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예컨대 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실업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의 취업기회가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이민 전통에 따라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정착과 통합에 관해서는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까지는 다양한 정착관련 정책이 요구되었고, 또한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 그 결실을 맺기도 하여 풍부한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과 조치, 문화의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 2) 정책 및 문제점

이렇게 본질적인 이민사회인 호주에서 특히 이주 청소년 및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정착 및 통합관련 정책은 어떤지 알아보자.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 중에 이민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 입안되고 펼쳐지고 있다. 아무튼 다른 나라들이나 마찬가지로 초기 정책단계에 자생력을 기르고 언어 능력을 갖추며 주요 관련 서비스들을 연관 짓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컨대 난민들을 위해서는 호주 도착 이전에 지원 프로그램 시작한다. 언어습득 등 가장 필수적인 기초단계의 준비를 위해 정착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언어습득을 호주 도착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 ‘호주문화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호주 도착을 위한 여정, 도착 후 당장 맞닥뜨리게 될, 정치체제나 법체제, 건물관리 및 교육체제, 고용 및 돈 관리 체제 등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성인, 그중에서도 문맹자 그리고 어린이(5-12세) 청소년(13-18세 기준)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호주 도착 이후에는 ‘통합된 인도적 정착 전략’을 통하여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내용은 주거문제부터 다양한 사회보장 체제 안내 등을 포함한 말 그대로 호주 사회에 안착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들이다. 특이할만한 내용은 이민 초기에 흔히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상처에 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착한 이민들은 향후 5년 간 정착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운전교육부터 숙제클럽, 스포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타의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비교적 체계를 갖추고 세심한 배려를 담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난민들의 교육문제다. 언어문제, 학교 중도탈락, 직업훈련 등 어디서나 나타나는 문제들은 호주라고 예외가 아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어집중교육, 숙제 클럽, 중도 탈락 시 직업훈련, 스포츠 문화의 중요성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스포츠 활동을 중시하는 호주 사회 전통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정착과 통합, 그리고 미래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연중무휴 가동하는 통번역 시스템을 통해 비영어권 출신 청소년 및 이민들에 대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무엇보다도 그 효율성이 중요해서 관련 정책기관들의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체제를 강조한다. 예컨대 이민청 국제 인도적 정착지원부 같은 정부 기구가 이를 위한 기구이며, 여타 지방정부, 시민사회들과 연계를 통해 다양하면서도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모든 이민들이 호주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시민이 되는 것이다. 본질적인 이민 사회답게 호주 시민권은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 일반적 가치 외에도 ‘타인에 대한 인정, 상호존중, 공평한 자에 대한 긍휼심’ 등을 포괄한다. 한 마디로 호주의 이민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한 이민사회’ 건설이며, 그 문화적 다양성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여 더 나은 사회”를 목표로, 그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다양성 외에도 통일성, 권리 외에도 책임, 그리고 호주의 민주적 가치 옹호에 관한 결의”를 지키는 데 중점들 두지만, “아직 낮은 상태의 사회분열과 긴장”등의 문제 등 과제도 많은 것이 호주의 이민정책이다(Wallace, 2008: 40).

이렇게 볼 때 호주는 그 처음이 이민사회였던 만큼 가장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시절 ‘백호주의’와 같은 인종주의적이며 폐쇄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으나, 21세기 지구화된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한 이민사회 건설을 목표로 이해와 포용의 자세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는 한편 그만큼 이민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주어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더욱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견인해 나가려는 노력 자체는 돋보인다. 배경이나 특징이 다른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통일성과 다양성’과 같은 근본정신이나 정책의 기저, 그리고 다양한 구체적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가려 배울 만하다.<sup>66)</sup>

66) 호주에서는 3월 21일 인종차별의 날, 세계화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 날을 맞아 관민 합동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공생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행사도 하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2008년 6월 25일 열린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의 종합토론 결과 보고서 및 녹취록 참조). 이런

호주는 이렇게 본질적인 이민국가로서 일단 그 이민자의 존재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노동력 자원으로거나 경제 기여 측면 등 추동력이 된다는 데서 출발한다. 곧 이민자들이 사회적인 자원이며 문화적인 풍요와 확산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며 그만한 인식 또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한 실재적이다. 예컨대 일반 이주와 난민 이주와 같은 상이한 배경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문화 정착 프로그램, 보조금 제도, 스포츠클럽을 통한 다문화 인식 제고, 24시간 통번역 서비스, 시민권 획득 지원제도 등 다양한 내용들이 이민사회 모두에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될 만하다.

#### 4. 소규모 특정 이민사회 모델: 대만<sup>67)</sup>

##### 1) 배경 및 특징

마지막으로 대만의 사례를 보자. 사실 지난 1992년 중반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전통적으로 긴밀했던 관계가 중단되어 한국의 대만 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대만이 일찍부터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다문화 사회 구성과 진행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한국으로서는 대만 사회의 경험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중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대만은 한국처럼 분단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농촌의 공동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지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되면서 결혼 이주문제가 최근 20년 사이에 급격하게 대두했다. 지난 20년 간 외국 및 대륙 배우자(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의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그중 34%가 외국,

---

행사라도 한 번 받아들여 해보았으면 한다.

67) 이하 대만관련 내용은 주로 Lee(2008)에 의존하고 있다.

66% 정도가 대륙 배우자들이다. 대만의 다문화 결혼은 2003년에 최고조에 달해 전체 결혼에 31.9%를 기록해 3.1쌍 당 1쌍이 다문화 가족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5.5쌍 당 1쌍 정도로 그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들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언어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생활 부적응, 경제나 연령 등의 범주에서 비교적 취약계층의 남성들의 배우자로 외국 여성들이 오면서 생기는 가정문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자녀 양육 문제 등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 2) 정책 및 문제점

대만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 중 어찌 보면 특수하면서도 왜곡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지금까지 다룬 해외사례들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이주민, 이민사회의 문제점과는 그 성격과 배경도 다를뿐더러 정책과 문제점 또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정책은 아직 시기적으로도 본격화되기 전이라 그다지 체계화되지 않은 편이다.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 정책은 여전히 대체로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기획되거나 진행되는 중이다. 이 또한 결혼 이주문제가 본격화된 지난 2003년 도입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보호 상담정책’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것들이다.

대만에서는 이주관련 정책을 내정부 출입국과 이민서(移民署)가 총괄하여 담당한다. 이 또한 이주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한 지난 2007년부터의 일이다. 이민서는 중앙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총괄할 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25개 서비스 센터를 둔다. 여기서 외국인과 대륙 배우자 및 그 자녀 교육계획을 강화하여, 다문화 교육과정 교사를 양성하고 가정교육 활동을 계획하여 양성평등 관념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에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등 실제적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체제 아래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 또한 집중적이고 활발하게 제공된다. 영유아 건강보건 시스템의 지원, 국제결혼 가족 자녀의 언어 및 사회문화 학습 강화, 방과 후

학습, 다국어 유아 부모교육 책자 발행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교육 지원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비단 위에 열거한 학습지원 뿐 아니라 당사자들을 위한 보조교재, 상담 시책 등을 제공하여 환경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에 노력한다. 또 자녀들의 자아개념 및 자아효능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자료 풀을 형성한다, 아직 국제결혼 자녀들이 청소년 단계 정도인 바, 향후 중요한 부분이 될 취업관련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취업 지원 서비스 또한 마련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주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대만의 이주민 정책은 일단 결혼 이주여성의 정착, 그리고 이들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통한 통합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민서’라는 통합적인 정책 수립, 실행기관을 설립하고 이주민들의 정착, 통합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뿌리 (너무) 깊은 동질적 문화전통에다 이주라는 사안 자체가 결혼을 통해 주로 여성들로 시작된 점, 이들이 구성한 다문화 가정이 사회계층의 약자인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 다문화 가정 출신 어린이들에 대한 주변화나 낙인(烙印)의 경향까지 보인다니 말 그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더불어 안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대만의 사례는 주로 결혼 이주와 같은 한국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하여 서로 배울 것이 많은 경우다. 결혼 이주문제는 비단 그 당사자인 외국이나 대륙에서 온 여성문제일 뿐 아니라, 교육문제와 가족문제와 직결된다. 그동안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다루고 또 정책을 펴 적잖이 혼선을 빚었던 이주민 정책을 최근 들어 통합하고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 아직 입국 전 상담 프로그램이 없거나 취업 프로그램들의 부족 등은 상대적으로 그 특수성에서 출발한 결손일 것이다. 다만 한국과 관련하여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들, 예컨대 여성 주류화나 성매매

관련 규정, 결혼 주선 과정에 대한 점검 등은 서로 배우고 고쳐야 할 부분이다.

## 5. 결론

이상 다양한 지역, 문화권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사회에 주는 일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 문화 간 소통, 초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 형성이 절실하다. 이미 현상으로서의 다문화 사회에 들어선 지 오래인 한국사회에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00만이 넘는 이주민들과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수준의 담론부터 궁극적인, 아니 하다못해 중장기적인 전망조차 없다. 정부 수준 뿐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의 활발하고 다양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적 연구, 현장과의 교류 등을 통해 일종의 ‘사회협약’이나 ‘선언’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

둘째, 정책수립, 기획, 입안, 실행 등의 차원에서 이를 조율하고 종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어떤 배경과 특징을 가졌건 복잡하면서도 까다로운 이민 문제를 감당하고, 이를 적극적인 사회통합과 새로운 정체성으로까지 이끌어가려면 적어도 중앙정부에 통합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서가 되었든,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위원회가 되었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고 떠나갈 주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민(그리고 이주배경 가정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절실한 만큼 이를 아우르는 따로, 또 같이 노력하는 체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된다.

셋째, 당장 시급한 실재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배경,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고 꾸준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대부분 주류사회에서 오는 만큼 이른바 ‘주인문화(host culture)’에 속하는 집단에 대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교육의 중요성이다. 지금 학교 교육 등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 등이 초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인 어른 집단에 대한 교육은 아직 시작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교육, 무엇보다도 생활과 체험을 나누는 교육이 당장 시급한 형편이다.

이는 모든 것은 좀 더 많은 학문적 논의와, 시민사회의 토론, 그리고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실험 등을 거쳐 장기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애써야 할 일이다. 그 이전에 아직도 가장 부족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성찰로 결론을 갈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여기 한국사회는 다른 사회들처럼 제법 지구화된, 그리고 다문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양한 음식문화가 펼쳐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도 빠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 중이다. 겉으로는 모두들 지구화 시대,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예견하고 또 인정한다. 하지만 정작 이웃으로,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거나 무관심하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폐쇄성과 배타성이 뿌리 깊고, 널리 퍼진 사회에서는 그 이중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어찌 보면 다문화 사회의 대두는 우리가 ‘당신들의 대한민국(박노자, 2001; 2006)’으로 지탄받는 못나고 못된 삶터나 사람에서 벗어나 멋지고 뜻있는 삶터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그러려면 그런 폐쇄적인 민족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아직도 안팎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인종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문화들 사이, 문화들 속에서 다양성과 역동성, 그러니까 Bauman(2000)의 말대로 ‘흐르는 현대성(liquid modernity)’ 속에 크고 작은 흐름이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청소년들이 살아갈 앞날, 아니 이미 시작된 미래의 지향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단순히 ‘다문화’라는 일종의 현상을 설명하고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간 소통을 통해 결국 범- 또는 ‘초-문화적(transcultural)’인 상생(相生)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지구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철두철미한 지구화(globalitarianism)’로만 제대로 준비하고 마주할 수 있다는 등,<sup>68)</sup> 그 공동의 과제를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

68) 바우만(Bauman, 2002: 236)의 독특한 주장이다. 지구화란 양날의 칼에 대응하여 요컨대 ‘지구촌적(global)’인 차원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피하자는 뜻이다. 저간의 문명변화에 걸맞은 지구화된 제도와 개인의 삶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다. “지구화에 대한 대응은 바로 ‘지구촌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19). 그러려면 기존의 제도나 체제의 변화는 물론이고, 개인마다 고착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상을 품을 수 있는 활달한 상상력의 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222-241). 나아가 ‘지구화’는 이제 무엇보다도 ‘윤리적’ 과제이다. 지구화를 통해 압축된 시공에서 서로 가깝게 살게 된 인간은 서로 문제와 고통마저 즉각적으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저 ‘구경꾼(bystander)’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행동하는 인간(actor)’으로 ‘인간성’의 실현을 위해 나설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01-221).

## VI. 정책 방안

1.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단계
2. 학교 취학 후 지원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4. 미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예방
5. 일반 학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6.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7. '보호' 기간 또는 '청소년' 시혜 시한 후의 지원



## VI. 정책 방안

### □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 지원 정책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각도에서 강구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직접 적용되어야 할 마땅한 지원 서비스를 찾아내려는 시각,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처하게 되는 조직이나 환경을 그들의 적응과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키려는 시각, 그리고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나 서비스의 제도(정책) 등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체계화하려는 시각이다. 첫 번째 시각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일반적으로 거쳐 가게 되는 적응(생활) 과정을 쫓아가며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을 강구하였고, 두 번째 시각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대체로 속하게 되는 학교의 환경과 문화를 그들에게 대해 수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각에서는 기존 제도나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런 모색은 이미 앞에서 이루어진 관련 조사와 분석의 결과 그리고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조언 등에 힘입은 것이다.

#### 1.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단계

한국 사회에서 원만한 적응과 성장을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입국 초기에 적어도 세 가지 기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입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상흔들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학교 교육을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학교 안팎에서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세 측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 1) 심리적 치유를 위한 지원

### (1) 안정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별화

초기 적응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정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좀 더 개별적인 상담(진단)과 치유(치치)가 가능하도록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이며 표준(획일)적인 조사와 해석 그리고 조언 등으로는 실질적인 안정과 치유 효과를 얻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개별화를 위하여 적응교육 기관에 전문 심리상담 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의구와 경원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사회에 이미 안정되게 정착한 새터민의 리에종(liaison) 서비스도 강구할 만하다. 자유사회에서의 심리 서비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 (2) 대외적 소통을 위한 대리인(후견인) 결연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서서 사적인 문제를 호소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적으로 의논하고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입국 초기부터 결연해주는 방안이다.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학습하고 적응하여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사적인 문제들을 더불어 걱정하고 풀어줄 후견인을 결연해주는 것이다. 초기 적응 교육 기관의 교원이나 직원들이 ‘담임제’의 형태로 2-3명의 청소년들을 나누어 ‘입양’할 수 있을 것이고, 자원 봉사자나 새터민 지원 단체 전문가 등도 결연에 초빙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이 후견인들과 일차적인 래포를 형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해 개방적인 소통의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연고나 가족이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 2) 학교 교육 지속을 위한 지원

### (1) 학습 준비도 진단 체계 구축

북한이탈 청소년이 어떤 수준과 단계의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는 상태인지 타당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체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것은 진단의 준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력을 교육과정에 비추어 평가할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성취표준(performance standards)으로 변환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학년과 교과에 따라 어떤 성취를 보여야 하는지 조작적으로(operationally) 정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취표준 설정은 주요 필수 교과(예컨대,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등)에 국한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성취표준에 상응하는 표준 평가도구를 구안한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준비도 평가는 더욱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주요 학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력진단 평가 문항들을 좀 더 확장하여 그런 평가도구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할 것이다.

### (2) 사회적 적응을 우선 고려하는 취학 학년 결정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취학 학년은 학업준비도에 맞추기보다 연령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지적 적응보다 ‘사회적’ 적응을 중시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취학 학년과 학업 성취 수준 진단 결과에 비추어 본 취학 가능 학년 수준 차이가 지나치게 클(예컨대 3년 이상) 경우, 정규 학교 취학보다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우선 취학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학교에서 연령에 준한 정규 학교 취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이다. 이때 북한이탈 청소년이 취학하게 되는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능은 정규 학교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안학교 등에서의 부분적인 이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학습 준비도 진단’의 체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학교 학력의 보장

중학교 졸업(우리 사회에서의 의무교육 이수) 연령 이상인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적응 교육 후 정규 학교 취학 여부를 막론하고 중학교 졸업 수준에 합당한 학력(學力)과 고등학교 입학자격(學歷)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의무 교육을 완성한다는 견지에서 필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보충학습과 검정고시 합격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 (4) 진로 지원의 지속적 체계 구축

중학교 취학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응 교육 초기부터 적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생애 진로에 대한 계획을 지니도록 안내할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적성 검사와 상담이 가능한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원이나 한겨레 중고등학교 등에 진로 상담의 직무를 수행할 전임 전문 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된 진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검사, 진단, 상담, 보충 학습 등의 과정과 결과들은 개인별 ‘포트폴리오’(portfolio)에 망라하여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체계를 강구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지도나 안내 등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자료와 정보를 누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인별 진로 포트폴리오를 안정되고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는 적응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

생학습계좌’ 개설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계좌에는 북한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직업 등의 이력을 포함하여 입국 이전의 모든 학습 이력이나 기술 역량을 가능한대로 ‘공증<sup>69)</sup>’하여 기록하고, 입국 이후 거치게 되는 유의미한 학습 과정과 결과(학원 수강, 직업 훈련, 대안학교 취학 등 포함)도 추가 기록하여 입증하게 된다. 이 계좌의 기록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가면서 계속해서 학습이나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며, 취학이나 취업 전업을 위해 이력과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때 활용에서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생학습계좌에 등록된 기록 내용(즉,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계좌의 주인이 목적에 따라 공개할 범위나 항목을 결정하여 발췌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 2. 학교 취학 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초기 적응 교육을 마치고 일반 학교로 옮겨갔을 때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진한 학습을 만회하고, 진학과 직업 진로를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9) 이때 공증은 해당 이력이나 교육 훈련 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미 정직한 새터민 전문가나 북한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이 공증을 요청하는 새터민들을 면담하거나 평가하고 이 면담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 특수하게 관련된 이력이나 교육 훈련이 아니고 그 실적을 객관적이고 경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나 단체가 공증을 대행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학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보충학습 기회 지속적으로 지원

### (1) 실질적인 학습기회 지원

일반 학교로 전학/입학하였을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 부진 만회를 돕기 위한 방안은 현실적이게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학교 내 보충학습 기회, 학교 밖 학원 수강,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이용, 공공 또는 민간 지원 단체나 조직이 결연해주는 멘토의 도움 등 모든 가능한 서비스를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식적인 확인이나 관리 통제가 가능한 학습 지원 서비스에 국한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 (2) 학습 바우처제도 강구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학습 지원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학부모) 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개인 학습 도우미나 자원 봉사자에게도 지불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바우처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중학교 학력 보장 지속

연령이 중학교 취학 학령을 넘어섰지만 학력이 중학교 과정 수준에 미달한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적응 교육 단계에서 완성되지 못한 경우, 학교 취학 후 그 완성을 위한 지원 역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 (4) 대학에서의 중도 탈락 예방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대학생활 적응과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은 일반 학생들

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지원 방안으로는 성공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새터민 ‘선배’와 결연하거나 교수, 대학원생, 새터민 지원 시민단체 자원 봉사단 등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대학생) 스스로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 안에서 유료인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진로 지도 체계화와 타당화

### (1) 누적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학년 진급에 따라 필요한 진로 관련 검사와 진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회가 생산하는 결과들을 ‘평생학습 계좌’에 기록 누적시키며, 이러한 기록에 근거한 진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특례 입학’ 기회에 편승한 무모한 진학이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좀 더 충실한 진로 지도가 필요하며, 학습 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충 학습 기회 역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력심의위원회’ 등의 학력 인정도 선심성 ‘부풀리기’ 결정이 되지 않고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결정이 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학력을 판정하고 판정으로 확인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만회’(catch-up)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학력 판정을 위하여 ‘성취표준’의 준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다.

### (2) 실질적인 진로의식 배양과 적응 지원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직업 영역에서 직간접의 관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관련 업종

의 자원 인사들을 멘토로 연계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해당 직종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일종의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멘토와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인 적응의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직업 체험이나 진로에 반드시 관련시키지 않더라도, 일상적 적응과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의형제 자매(big brother/sister) 결연을 주선하는 것도 필요한 방안일 것이다. 민간 자원 봉사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봉사자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보조교사’(para-educator) 양성 배치

북한이탈 아동이나 청소년이 밀집한 지역 학교 등을 중심으로 그들의 배경과 경험/문제에 정통한 보조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보조교사들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개별적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부/대모 역할을 해줄 수도 있도록 운영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역할모범(role model)이 되어 줄 북한이탈 보조(자원)교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만하다.

## 4)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 과정 지원.

### (1) 정규학교 취학을 위한 과도적 준비 과정의 지원

정규 학교에 취학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적으로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형식의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형식의 장기적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나 대안 프로그램(학교) 등이 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특화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북한이

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정도에 맞춘 재정 지원(바우처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 (2) 대안 과정에 대한 인정

정규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준비로, 또는 정규학교에 취학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교육’(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그리고 이 선택이 교육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이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점은행제’와 상응하게, 정규학교가 제공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대안학교 등의) 특정한 교과 과정에 대하여 그 담당 교원과 교육 내용, 평가 준거와 양식 등을 평가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정을 이수한 결과를 정규 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공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 단위 이수를 통한 학력 취득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체제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존 대안학교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

## 5)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학교 설립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 지체와 문화 격차를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립 기숙형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전국 지역에 산재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한 방안(기숙제)이다. 기숙형 학교는 정규 학교일 수도 있고, 입국 초기의 적응 교육만으로 정규 학교 취학 준비가 부족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과도적으로 수용 교육적으로 적응을 돕고 학습 준비도도 갖추어 주는 대안학교일 수도 있을 것이다.

###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학교에 취학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일탈하여 학교 밖에 머문다.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학력을 갖추어주기 위한 지원과 사회 적응과 생존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1)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지원

공식적인 전일제 양식의 학교 취학이 아니더라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학력은 우리 사회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고 있다.

대안학교,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의 공부방, 학원 등에서의 학습 과정을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계좌제’를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한 결과를 계좌에 등록시키고 그 결과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식적인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점은행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경우에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 2) 무연고 청소년, 단독세대 청소년 등을 위한 결연 또는 후원 입양 주선

성인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북한이탈 청소년들 학교 밖에 있을 때 그들의 진로는 더욱 불안해진다. 이 경우 청소년들을 위하여 후견인이나 멘토 등을 결연해줄 필요가 있다. 인턴십의 형태를 띌 수 있도록 장인(master)과

결연하여 도제적 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 결연을 위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 개인의 진로 희망, 출신지역, 성장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원 관계를 확산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새터민을 문화적으로 포용(이해)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 3)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토탈(total) 민원 창구’ 운영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제한된 정보와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서 생존해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문제 사태에 직면하게 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길이 거의 없고, 진로를 정상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필요한 요건을 갖출 방안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황에 도움을 받을 길이 뻗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하면 어떤 민원이든 해결의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일 수 있다.

민원창구는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모든 접속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이나 취업은 물론 일상적 문제 해결까지 지원하는 총체적이며 늘 ‘가까이 있는’ 민원 해결 창구가 되어야 한다. 사이버 및 전화 창구와 함께 전국 주요 지역에 ‘현장’ 민원 창구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진로나 취업 설계를 돕고, 정착한 새터민들의 경험과 지혜도 공유할 수 있는 창구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창구는 공적 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공적 조직이나 기부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의 민활함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창구 운영에는 민간 자원 단체들의 참여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 4. 미래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의 예방

청소년 문제의 싹은 유아시기에 발아한다. 이 점에서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유아 단계에서 성장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새터민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은 중층적인 어려움에 간헐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는 이런 가정에서 계속 자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 초래될 수 있는 청소년 문제를 현재 유아 양육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1) 북한이탈 청소년 또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기회 확대

적어도 3세 이후 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 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방문 부모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습교구나 교재 등을 제공하고 ‘순회 부모 교육 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저학년 아동들의 교육 지원

학업 격차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해 강도 높은 보충학습 기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학습 기회로는 학교의 보충학습, 지역이나 민간 지원의 공부방 이용 기회 등만 아니라, ‘방문 교사’를 통한 보충 학습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5. 일반 학교/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와 적응은 그들 자신의 노력과 변화만으로 보장 되지 않는다. 그들이 속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공간이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변화와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 환경이나 문화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순조로운 적응과 진로 추구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점에서 일반 학교 사회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보는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일반 학교 사회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 해소

북한이탈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학교 재량 교육과정의 일부로 개설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연구비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자료나 강사 등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극한적이며 영웅적인 개인사와 함께 입국 후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좌절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서클 활동을 통한 다문화적 이해 증진 도모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고 전파하기 위한 청소년 서클/특별 활동을 학교에 조직하고 운영할 것을 권장 지원한다. 청소년 스스로 우리 문화나 관습과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을 탐구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배경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있는 정서적 바탕을 갖추게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학생들이 예컨대, ‘청소년 글로벌 인터넷 방송’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서클 등이 학교마다 조직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 학교 단위 방송국들이나 서클 조직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은 지구적인 시각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문화나 행태에 대하여 관용적이게 변할 수 있다.

### 3) 교원 양성 과정에 다문화적 시각 반영

교원 양성 과정에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삽입한다. 최근에 교원 양성 과정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과정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안내하는 과정을 추가한다. 이런 과정 안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수한 사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에서 다문화 단체나 기관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하다.

## 6. 북한이탈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새터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다각적으로 강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안된 제도나 방안들은 관장 부서의 다양함이나 혼선으로 인해 취지에 합당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도하여 온 지원과 서비스들도 서로 효율적인 연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의 공조에서도 원활하지 못하다. 정책 체제 자체를 재구조화하고 정책이나 서비스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현실의 극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1) 새터민 정부 정책의 총괄 지휘 기구 설치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정책 부서들 사이의 업무/기능이 혼재하여 중복되며 그들 사이의 일관된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책 전반을 검토하며 효율적으로 시행을 주관할 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정책의 일관된 수립 집행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우리 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관련된 정책 행위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고, 이 조직 안에 새터민 정책의 총괄 기능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정부 정책의 총괄 기구를 설치하면서 각 실무 부처들의 실무진 협의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실무진들이 정례적으로 정책 집행을 검토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 2)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민관 조직과 기구의 연대 구축

새터민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다양한 지원 주체들은 정보 공유나 협동을 위한 연대 없이 독자적이며 영세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구안과 집행,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원하는

주체들은 정부 부서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조직까지도 함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무지개청소년센터와 같은 전담 기관이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 집적하고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일종의 ‘정보센터’(clearing house)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이 연대 네트워크의 틀 안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평생학습계좌’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관이나 조직들이 북한이탈 청소년 가정이 동의하는 경우 그들에 관한 정보를 인계하고 공유하며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 3) 서비스의 관료성이나 형식성 완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일회적이며 행사에 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서비스나 홍보를 의식한 서비스를 벗어나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실지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구상과 집행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 부문의 ‘보호 담당관’ 서비스를 포함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의 주체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민관의 구분 없이 어떤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건,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바우처제도로 서비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을 통하여 공공 기관의 서비스가 민간 자원 서비스와 경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7. ‘보호’ 기간 또는 ‘청소년’ 시혜 시한 후의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보호 기간의 만료나 법적 청소년연령의 초과와 함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적응은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우리 사회의 일반 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회 집단들에 대하여 정책이나 제도의 시혜 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 1) 추수(follow-up) 지원 체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시한이 지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 복지 정책 또는 사회 안전망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안내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터민 가정이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도 추수(follow-up)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때 수혜 가능한 사회적 보장 혜택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안내는 새터민을 위한 ‘토탈 민원 창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에 대한 법적 연령 규정의 유연한 적용

자연 연령의 초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상응하는 교육 또는 진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 상응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자연 연령과 합치된 교육이나 취업 진로를 추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하여 연령 기준이 아닌 필요 기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복지 정책 관련 법제(규정)와 관련해서 항상 이런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상위의 법 조항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권찬(2005).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분석. 민족연구, 14, pp.35-63.
- 강성록(2003).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 연구. 육사논문집, 59(3), pp.249-271.
- 강일규·김중우(2006). 새터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주현(2008). 해외 다문화사회 통합 사례 연구: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2007). 노원구 새터민 청소년 교육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새터민정착지원센터.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pp.29-43.
- 곽해룡(2005).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사례와 지원 방안.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 청소년백서.
- 금명자·권혜수·이자영·이희우(2004).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김동민·권혜수·이소영·이희우(2003). 통일대비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길은배·문성호(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2002). 사회문화 변동에 따른 북한청소년의 변화 전망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귀근(2002. 3. 14.). 중국내 탈북자 규모와 파장. 조선일보.
- 김미숙(2004).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남한학교 다니기. 교육사회학연구. 15-2. pp.23-44.
- 김선화(2007). 새터민 정착지원 제도 및 지원기관. 무지개청소년센터. 새터민·다문화 전문가 양성교육(초급) 교재.
- 김영수(2003). 국내탈북동포들의 정착지원과정 및 살아가는 모습. 제5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문화일보.
- 김영우(2006).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청소년의 생애사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나(2007).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윤영(2005). 남한학교 생활과 적응전략.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pp.218-242).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김정미(1999).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 김지수 외(2008a). 새터민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지수 외(2008b). 새터민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활수(2006). 탈북 청소년의 진로 선택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북문화통합교육원(2005).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서울: (사) 남북문화통합교육원.
- 남북문화통합교육원(2006). 통일의 길목에서 지방거주 새터민 청소년을 만나다. 서울: 2006 아동학교·순회교육 자료집.
- 노공순(2004).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교육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독고순(2000).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독고순(2001). 탈북주민의 가치 정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pp.149-174.
- 독일연방의회문서(1984). Deutscher Bundestag 문서기록 NR. 10/2412. Bonn.
- 동승철(2005).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2002). 청소년의 신체상, 자존감 및 대인불안 간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선(1996).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0(4), pp.873-906.
- 박서연(2007). 북한 이주 청년들의 진로 모색 과정을 통해 본 생애 전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선경(1998a). 북한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선경(1998b).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영(2005). 성장발육-생물인류학적 연구.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243-259.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박윤숙·윤인진(2006).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미발표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일권(2005). 탈북 청소년 적응과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찬석(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의 쟁점과 방향.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 박하나(2006).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 이해 - 초입(初入) 중학생의 평가 경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혜정 외(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6-R04. 한국청소년개발원.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2008). 2009년도 하나원 교육운영계획 검토(안).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아젠더 11: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정책제안서.
- 북한인권정보센터(2005). 2005년도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2005). 새터민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서교연 2006-14. 2005특별과제 연구 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학교통일교육연구팀.
- 서윤환(20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망 크기 구축. 국정원 사보.
- 선한승(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완(2001).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제3섹터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혜숙·백승남(2003). 정상체중과 과체중 여대생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pp.331-338.
- 심혜숙(1994).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서울대학교출판부.
- 안승용(2001).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 양계민·정진경(2005). 북한이탈주민과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특집호, pp.97-115.
- 연합뉴스(2000). 2000년 북한연감.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덕룡·강태규(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2), pp.169-220.
- 윤여상(1998a).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p.172.
- 윤여상(1998b). 중국동북지역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북한인권시민연합 학술토론회 발표문.
- 윤여상(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의 지역화 방안과 민간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심포지움 논문집, pp.1-16.
- 윤여상(2002). 재중 탈북청소년 인권 실태와 대처방안. 통일부 주최 제1회 북한인권 전문가 워크숍(비공개).
- 윤인진(1999).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33, pp.511-549.
- 윤인진(2000a).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pp.123-184.
- 윤인진(2000b). 탈북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텔-자영업 기반형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3(2), pp.143-183.
- 윤인진(2004a).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2004b).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출판사. 제19장, pp.401-423.
- 윤창규(2001). 탈북이주자의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독정부의 구동독이주민관계 대책 및 지원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금순 외(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금순 외(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금순(1999).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이기영(2000).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통일부.
- 이기영(2001). 탈북 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 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pp.175-224.
- 이기영(2005). 소수자로서의 북한이주민의 문제와 사회복지의 과제. 통일연구, 9(2).
- 이돈희 외(2001). 남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및 구조비교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보고서.
- 이민규(2006). 긍정의 심리학. 서울: 원앤원북스.
- 이새롭(2003).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 자료.
- 이소래(1997). 북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2005). 새터민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반차별-반억압 관점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지정토론문.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65.
- 이영란(2004). 통일 이후 동독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경제와 사회, 63, pp.172-195.
- 이영란(2005). 통일 이전 탈동독자의 서독사회 적응실태에 대한 연구: 1984년 서독에 정착한 탈동독자를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121, pp.197-225.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연구. 통일연구원.
- 이장호(1996). 북한출신주민(탈북자포함) 심리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pp.739-789.
- 이지연(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선우인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춘재·오가실·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pp.89-101.
- 이향규(2006).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 및 과제. 무지개청소년센터세미나2006. 한국사회학, 33, 가을호, pp.511-549.
- 이향규(2008).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 교육.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민순(199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능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한국통일연구, 4, pp.149-168.

- 임원혁(1998). 북한경제의 몰락과 대북정책의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임인숙(2004). 다이어트의 사회문화적 환경:여대생의 외모차별 경험과 대중매체의 몸 이미지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8(2), pp.165-187.
- 장덕수(2006). 삼죽초등학교 새터민 학생 적응교육 사례. 무지개청소년센터세미나 2006. 만남과 외로움 보도자료.
- 장문강(2006).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창호(2001).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창호(2001). 탈북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pp.203-235.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우택·민성길(1991).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통일연구. 창간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 전우택·유시은·조영아·엄진섭·서승원·홍창형(2005). 의식과 생활만족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440-466.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pp.109-167.
- 전우택(2000a).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전우택(2000b).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 정경자(2003). 중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분석. 영남대 교육대학원.
- 정병호·정진경·이향규(2005). 교육지원체제 수립방안.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365-398.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정병호 외(2003a).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 설립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병호 외(2003b).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병호 외(2004). 탈북 학생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개발연구 보고서
- 정병호 외(2007).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경기도 교육청.
- 정유선(1998).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 서울 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논문.
- 정진경·정병호·양계민(2005).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 (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263-282.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진경 외(2004).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 통일연구. 45, pp. 209-329.
- 정진경(2001). 북한 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21, 2, pp.163-177.
- 정진경(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pp.163-177.
- 정진경·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pp.101-136.
- 정진웅(2004). 탈북 청소년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웰컴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진웅(2005). 탈북 청소년의 적응교육의 의미와 한계. 웰컴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283-297.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조명숙(2008).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지정토론문. 새터민의 학력인정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p.48.
- 조상호(2003).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정착센터 프로그램 개발. 정부출연용역보고서.
- 조영아·전우택·유시은·엄진섭(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pp.467-484.
- 조영아(2002).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 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논문.
- 조영아(2008a). 새터민 청소년 교육 방향 모색. 이명박 정부의 새터민정책 방향모색. 한반도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 조영아(2008b). 새터민 청소년 교육방향 모색. 이명박정부의 새터민정책방향 모색. 제8회 한반도 평화포럼 자료집.
- 조정아 외(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 조정아(2005).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중등통일교육 직무연수 교재.
- 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좋은벗들 엮음(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서울: 정토출판.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논문.
- 최동선 외(2008). 새터민 청소년의 진로의식 및 진로현황 실태조사. 고등학교·중학교·청소년용 설문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승주·전우택·정우진(2005). 종교성향과 우울정도. 정병호, 전우택, 정진경(편). 웰컴 투코리아: 북조선사람들의 남한살이, pp.568-584.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통일부(2002). 무연고 탈북 청소년 정착지원 업무지침.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05a) <http://www.unikorea.go.kr/index.jsp>.
- 통일부(2005b). 통계자료(대북인도사업).
- 통일부(2006). 200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2007). 북한이탈 청소년 현황.
- 통일연구원(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하늘샘터(2006). 탈북대학생 민간지지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의 탐색. 제3회 탈북 포럼자료.
- 한겨레 중·고등학교(2008). 『학교운영현황』.
-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기획단 편(2003). 탈북자문제의 이해. 한국방송.
- 한국사회조사연구소(2004). 200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편(1996).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대구대학교 출판부.
- 한만길 외(1999).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교육 적응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1999).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서울: 우리교육.
- 홍순혜·박윤숙·원미순(2001).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통일부 용역 연구보고서.
- 홍순혜·정익중·박윤숙·원미순(2003).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사회적 향상을 위한 연구. 통일부 용역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2008. 1/1. pp.105-134.

박노자(2001). 당신들의 대한민국. 서울: 한겨레신문사.

박노자(2006). 당신들의 대한민국 2. 서울: 한겨레출판.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영상물 & 도서물>

기나긴 여정 1(2005). 셋넷학교 영상자료.

기나긴 여정 2(2006). 셋넷학교 영상자료.

영옥이의 부재중 통화(2007). 셋넷학교 영상자료.

최금희(2007). 금희의 일기 -아오지에서 서울까지 7,000km. 민들레.

<인터넷자료>

<http://www.acf.dhhs.gov/programs/orr/>

<http://www.refugees.org>

<http://www.refugees.org/world/articles/wrs02-easia2.cfm#northkorea>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537/immigration#IntroductionWorldwideImmigrantsStatistics>

<http://www.unikorea.go.kr/index.jsp>.

- Agoma e.V.(1989). Arbeitsgemeinschaft ost- und mitteldeutscher Aus- und Übersiedler. Bonn.
- Agoma e.V.(1990). Umfrageergebnisse der Erhebung zur Situation von Aus- und Übersiedlerkindern. Berlin. Hier nach Goldbeck, Lutz(1994). Übersiedlerfamilie aus der DDR. Eine qualitative psychologische Untersuchung zu den Aspekten DDR-Sozialisation, Migration und Familiendynamik. Ulm.
- Atali, J.(2005). Homo Nomade. 서울: 지식하우스.
-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CA: McGraw-Hill.
- Bauman, Z.(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Bauman, Z.(2002). Society Under Siege. Cambridge: Polity.
- Bauman, Z.(2003). Liquid Love. Cambridge: Polity.
- Bauman, Z.(2005). Liquid Life. Cambridge: Polity.
- Bauman, Z.(2006). Liquid Fear. Cambridge: Polity.
- Bauman, Z.(2007). Liquid Times. Cambridge: Polity.
- Behnken, I./Krüger, H./Lindner, A./Zinnecker, H.(1991). Shuelerstudie 1990. Jugendliche im Prozess der Vereinigung. Weinheim und Muenchen.
- Berry, B.(1965). Ethnic and race relations. Boston: Houghton Mifflin.
- Berry, B.(1970). Marginality, stress and identification in an acculturating aboriginal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 pp.239-252.
- Berry, B.(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Berry, B.(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B.(1986). The acculturation process and refugee behavior. In C. L. Williams & J. Westermeyer, J.(Eds.). Refugee mental health in resettlement countries, pp.25-37. Washington, D. C.: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Berry, B.(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 Dreidger(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opp Clark Pitman.
- Berry, B.(1990). Cultural variations in cognitive style. In S. Wapner(Ed.), Bio-psycho-social factors in cognitive style. pp.289-308. Hillsdale, NJ: Erlbaum.

- Berry, B.(1991). Managing the process of acculturation for problem prevention. In *Mental health services for refuge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IMH.
- Berry, B.(1994).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n overview. In A. M. Bouvy, F. J. R. vander Vijver, P. Boski, & P. Schmitz(Eds.), *Journey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Amsterdam, Holland: Swets & Zeitlinger.
- Berry, B.(1998). Acculturative stress. In P. Organista, K. Chun, & G. Martin (Eds.). *Readings in ethnic psychology*. New York: Routledge.
- Berry, J. W. & Kim, U.(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pp.207-236.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2002).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man, D. & Tyler, F. B. (1994).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of Soviet Jewish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0(1), pp.101-115.
- Brüesewitz-Zentrum(1986), *Dokumentation. Jugend im geteilten Deutschland*. Bonn, Bundeshaus.
-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1982, 1986). *Wegweiser fuer Fluechtlinge und Übersiedler aus der DDR*. Bonn.
- Bundesminister des Innern (Hg.). (1988). *Projekt VtK I 4-933 900- 2/3*.
- Caplan, N., Whitmore, J. K., & Choy, M. H.(1989). *The boat people and achievement in America: a study of family life, hard work, and cultural valu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eng, R. C. & Kagawa-Singer, M.(1993).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6(5), pp.631-639.
- Chua, L.(2002). *Psycho-social adaptation and the meaning of achievement for Chinese immigrants*.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s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Jossey-Boss.
- Datta, A.(2005). *Transkulturalität und Identität*. Frankfurt am Main & London: IKO.
- Dumas, J. E. & Nilsen, W. J.(2003).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임영식, 김혜원, 성인자, 조아미, 한상철 역(2005). *청소년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Dürckheim, E.(1972). Erziehung und Soziologie. Düsseldorf.(Original Paris 1922).
- Elias, N/Scotson, J. L.(1990). Etablierte und Außenseiter. Frankfurt.
- Esser, H.(1980). Aspekte der Wanderungssoziologie. Assimilation und Integration von Wandern, ethnischen Gruppen und Minderheiten. Eine Handlungstheoretische Analyse. Darmstadt Neuwied.
- Fantino, A. M., & Colak, A.(2001). Refugee children in Canada: searching for identity.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Förster, P/Friedrich, W.(1996). Jugendlich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gebnisse einer empirischen Studie zum Wandel der Meinungen, Einstellungen und Werte von Jugendlichen in Sachsen 1990 bis 1994, in: APUZ. B19.
- Gärtner, C.(1990). Die anderen Deutschen. Zur Lebenssituation ehemaliger DDR-Bürger in der BRD. Düsseldorf.
- Geulen, D.(1998). Politische Sozialisation in der DDR. Autobiographische Gruppengespräche mit Angehörigen der Intelligenz. Leske und Budrich.
- Gibson, M. A.(1997). Complicating the immigrant/involuntary minority typology.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28(3), pp.431-454.
- Gibson, M. A.(2001).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pp.19-23.
- Gillock, K. L., & Reyes, O.(1999). Stress,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of urban, low-income, Mexican-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 pp.259-282.
- Gold, S.(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Gold, S.(1994). Chinese-Vietnamese entrepreneurs in California. in P. Ong, E. Bonacich, & L. Cheng.(Eds.). The new Asian immigration in Los Angeles and global restructuring(Chapter 7).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Goldbeck, L.(1994). Übersiedlerfamilie aus der DDR. Eine qualitative psychologische Untersuchung zu den Aspekten DDR-Sozialisation, Migration und Familiendynamik. Ulm.
- Gorden, M. M.(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äf, D.(1987). Ausreise aus der DDR. Übersiedlung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inweise, Dokumente, Amhang. Kierst Verlag, Meersbusch.
- Gysi, J.(1990). Die Zukunft von Familie und Ehe, Familienpolitik und Familienforschung.

- in Burkart, G.(Hg.). Sozialisatation im Sozialismus. Weinheim. pp.30-41.
- Haberland, J.(1983). Eingliederung von Aussiedlern und Zuwanderern. Sammlung von Texten, 3. Auflage, Leverkusen.Haines, D., Rutherford, D., &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pp.310-319.
- Haines, D.(1997). Case studies in diversity: refugees in America in the 1990s. Westport: Praeger.
- Haines, D., Rutherford, D., & Thomas, P.(1981). "Family and community among Vietnamese refuge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5(1), pp.310-219.
- Helsper, W./Bertram. M./Stelmaszyk, B.(1991). Jugendlicher Übersiedler zwischen vordergründiger Integration und Ausschlußerfahrung. in Büchner, P.(Hg.) Aufwachsen hüben und drüben. deutsche-deutsche Kindheit und Jugend vor und nach der Vereinigung. Opladen, pp.267-285.
- Hermansson, A. C., Timpka, T. & Thyberg, M.(2002). The mental health of war-wounded refugees; an 8-year follow-up.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2), pp.374-380.
- Igoa, C. (1995). *The Inner World of the Immigrant Child*.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Inc.
- James, D. C.(1997). Psychosocial risks of immigrant students: knowing where they live is essential to alleviating them. *Education Digest* 63, pp.51-75.
- Jiobu, R.(1988). Ethnic hegemony and the Japanese of Californ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pp.353-367.
- Kierschow, A.(2008). 이주민 및 난민출신 아동 청소년을 위한 노르웨이 국가정책.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8년 6월 15일. 자료집. pp.40-47.
- Köhler, A/Ronge, V.(1984). Einmal BRD-einfach. Die DDR-Ausreisewelle im Frühjahr. in *Deutschland Archiv*, 17. pp.1280-1286.
- Koser, K.(1997). Social networks and the asylum cycle: The case of Iranians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2, pp.591-611.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New York: McGraw-Hill.
- Lee, L.P.(2008). 타이완의 결혼이민자 보호(상담)의 현황과 과제.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8년 6월 15일. 자료집. pp.65-80.
- Lee, S. C.(1993).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mong refugee

- adul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ight, I. H.(1972). *Ethnic enterprises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derberg, T.(2004). “구동독의 사회와 문화.” 역사문제연구소 2004년 국제학술대회. <분단의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과 구동독의 역사비교>
- Looney, J. G.(1979). “Adolescents as refugees.” *Adolescent Psychiatry*, 7, pp.199-208.
- Marlene, B. S. & Kelly, D. B.(2004). Obesity and body image. *Body Image*, 1(1), pp.43-56.
- Mayer, A./Trappe, H.(1995) die ostdeutschen eschäftigungssysteme.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erufsforschung*, 2, 242-260. Frankfurt.
- Meredith, L. S., Wenger, N., Liu, H., & Harada, N.(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pp.103-113.
- Mirsky, L.(1997).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immigrants from adolescents: culture-specific factors in the case of immigrant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pp.221-230.
- Morgan, D. L. (198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 Nguyen, S. D.(1982).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nd the mental health needs of Southeast Asian refugees.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7(1), pp.26-35.
- Nwadiora, E. & McAdoo, H.(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 pp.478-490.
- Park, J. S.(1975). A three generational study: traditional Korean value system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Unpublished PhD. thesis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Portes, A. & Bach, R. L.(1985). *Latin journey: Cuban and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rtes, A.(1996). *The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Portes, A., & Rumbaut, R. G.(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atsch, K /Ronge, V. (1985a). “So einer wartet nicht auf das Arbeitsamt. Die Integration der DDR-Uebersiedler in die westdeutsche Gesellschaft” pp.159-169 in *Deutschland Archiv*, 18.

- Pratsch, K /Ronge, V. (1985b). "Arbeit finden sie leichter als Freunde. DDR-Uebersiedler der 84er-Welle nach einem Jahr im Westen" pp.716-725. in Deutschland Archiv, 18.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s*, 37, pp.149-152.
- Rumbaut, R. G.(1993). A legacy of war: Americans from Vietnam, Laos, and Cambodia. in P. G. Min(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Chapter. 9).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s.
- Rumbaut, R. G.(1994). The crucible within: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segmented assimil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 pp.748-794.
- Sam, D. L., Berry, J. W., Phinney, J. S., & Vedder, P.(2006).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Schmitz, C.(2008). 독일의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08년 6월 15일. 자료집. pp.51-61.
- Suarez-Orozco, C. & Suarez-Orozco, M. M.(2002). *Children of immigr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Vollbrecht, R.(1993). Ost-westdeutsche Widersprüche. Ostdeutsche Jugendlichenach der Wende und Integrationserfahrungen jugendlicher Übersiedlungen im Wesren. Leske und Budrich, Opladen.
- Wallace, K.(2008). 국가정책으로서의 호주의 다문화주의.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8년 6월 15일. 자료집. pp.26-36.
- Waters, M.(1996). The intersections of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identity development of Caribbean American teens. In B. Leadbeater and N. Way(Eds.). *Urban girls: Resisting stereotypes, creating identities*, pp.65-8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right, M. B.(1980). Indochinese. in S. Thernstrom(Ed.). *Harvard encyclopedia of ethnic groups*, pp. 222-234.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Yoon, I.(1997).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hou, M.(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s,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pp.975-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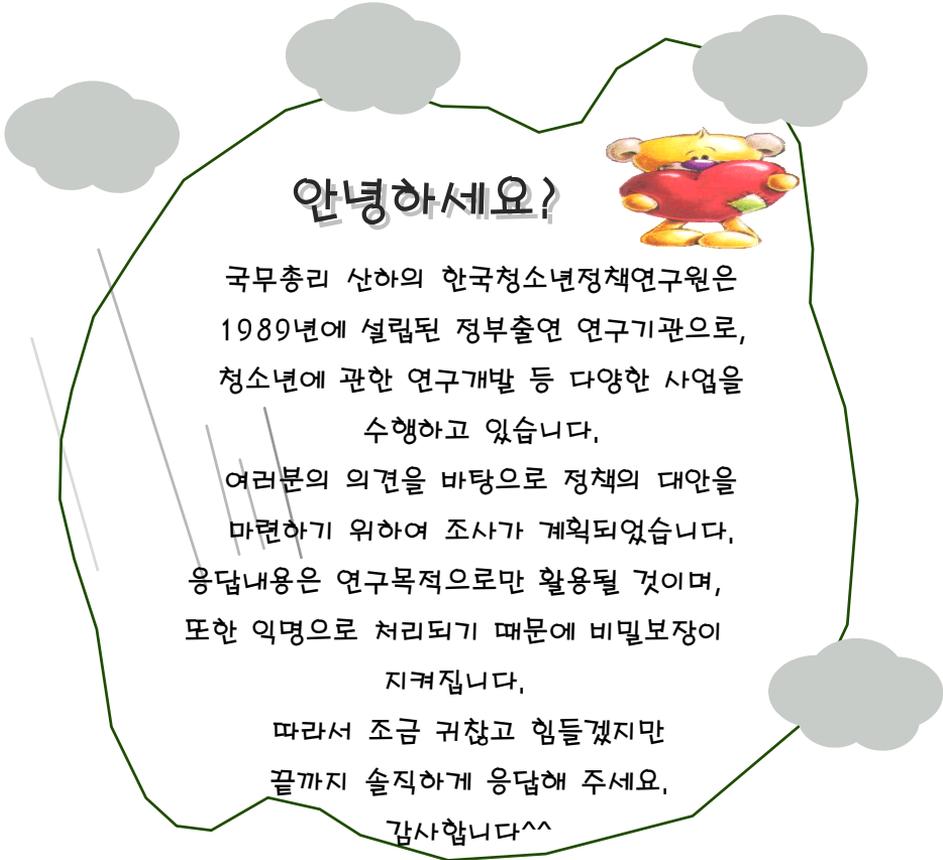
## 부 록

1. 청소년용 설문지
2. 현장전문가용 설문지



## 1. 청소년용 설문지

설문지 NO.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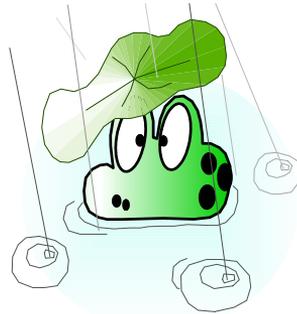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137-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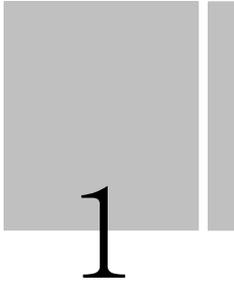
공동연구원: 김경준, 오성배

(TEL: 02.2188.8832, 8803)

2008.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러분의 학교생활 및 진학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_\_\_ ① 예

①-1. 어떠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_\_\_ ① 중학교    \_\_\_ ② 고등학교    \_\_\_ ③ 대학교  
 \_\_\_ ④ 대안학교    \_\_\_ ⑤ 한겨레학교    \_\_\_ ⑥ 기타

\_\_\_ ② 아니오

②-1.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_\_\_ ① 검정고시 준비    \_\_\_ ② 직장생활  
 \_\_\_ ③ 가끔씩 아르바이트    \_\_\_ ④ 취업준비  
 \_\_\_ ⑤ 아무 것도 하지 않음    \_\_\_ ⑥ 기타

②-2.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희망하는 진로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_\_\_ ②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_\_\_ ③ 같은 반 학생보다 나이가 많아서  
 \_\_\_ ④ 돈을 벌기 위해서  
 \_\_\_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_\_\_ ⑥ 기타

2. 현재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배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
- ② 같은 반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다
- ③ 내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
- ④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생활비, 교재비 등)
- 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
- ⑥ 기타

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교육기관)에서의 평균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59점 이하(F학점)       ② 60-69점(D학점)       ③ 70-79점(C학점)
- ④ 80-89점(B학점)       ⑤ 90점 이상(A학점)

4. 여러분이 만약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싶습니까?

- ① 남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 ② 검정고시 학원
- ③ 북한출신끼리 공부하는 학교
- ④ 처음에는 우리끼리 공부하고, 나중에는 남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5. 처음 남한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①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 ② 내 실력에 맞는 학년으로
- ③ 북한에서 다녔던 학년에 맞추어
- ④ 기타



# 2

##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직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9. 지난 1년간 돈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아니오

\_\_\_ ② 예



②-1. 지난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일을 얼마동안 하였으며, 일을 구한 경로와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예를 참고하여 **모두** 적어주십시오.

	일의 종류	일한 기간	일을 한 이유	일자리를 찾은 경로	일을 그만둔 이유
예)	주유원	3개월	학비마련, 취업 경험 등	친구소개, 인터넷검색	힘들어서, 보수가 적어서
1					
2					
3					

10. 북한에 있을 때 그리고 남한에 온 이후 희망하게 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기에서 각각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북한에 있을 때 희망했던 직업? ( \_\_\_\_\_, \_\_\_\_\_ )

2) 남한에 온 이후 희망하는 직업? ( \_\_\_\_\_, \_\_\_\_\_ )

< 보 기 >					
1) 교사	2) 교수	3) 과학자	4) 공무원	5) 정치인 (국회의원)	6) 간호사
7) 판사, 변호사, 검사	8) 의사, 약사	9) 자영업자	10) 기술자	11) 스텐디스	
12) 농 · 축 · 수산업자	13) 사업가 · 전문경영인	14) 회사원, 은행원	15) 건축가		
16) 경찰	17) 군인	18) 파일럿(비행기조종사)	19) 방송관계자 (작가, PD, 기자, 아나운서 등)		
20) 만화가	21) 연예인	22) 요리사	23) 영화감독	24) 컴퓨터 프로그래머	25) 운동선수
26) 판사, 변호사, 검사	27) 의상디자이너	28) 헤어디자이너	29) 사회복지사	30) 기타	

# 3

## 여러분의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진학 또는 취업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안다	5	4	3	2	1
2) 나는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4	3	2	1
3) 나는 직업을 결정하는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안다	5	4	3	2	1
4) 나는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5	4	3	2	1
5) 나는 나의 직업능력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	5	4	3	2	1

12. 여러분의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해 상상해 본다	5	4	3	2	1
2)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지를 알아보는데 관심이 많다	5	4	3	2	1
3) 나는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5	4	3	2	1
4) 나는 책이나 신문 등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본다	5	4	3	2	1
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한다.	5	4	3	2	1

13. 여러분의 진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져 있다	5	4	3	2	1
2)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5	4	3	2	1
3)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5	4	3	2	1
4)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5	4	3	2	1
5)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5	4	3	2	1

14.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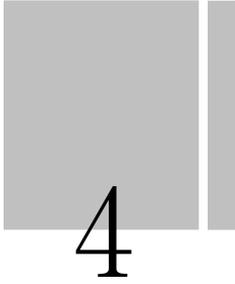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5	4	3	2	1
2)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있다	5	4	3	2	1
3) 내가 선택한 진로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5	4	3	2	1
4)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의 상사로부터 인정 받을 자신이 있다	5	4	3	2	1
5)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5	4	3	2	1

15. 여러분은 취학, 취업 등 향후 진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나는 희망하는 직업의 연봉을 알아낼 자신이 있다	5	4	3	2	1
2) 흥미와 관심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자신이 있다	5	4	3	2	1
3)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낼 자신이 있다	5	4	3	2	1
4)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5년간 전망에 대해 찾아낼 자신이 있다	5	4	3	2	1
5) 관심 있는 직업들 중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낼 자신이 있다	5	4	3	2	1
6) 관심분야의 직업인과 이야기를 나눌 자신이 있다	5	4	3	2	1
7)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낼 자신이 있다	5	4	3	2	1

16. 여러분은 진로 결정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___ ① 경제적인 면   | ___ ② 사회적인 공헌            |
| ___ ③ 발전가능성    | ___ ④ 적성                 |
| ___ ⑤ 안정성      | ___ ⑥ 잘하는 일 또는 잘할 수 있는 일 |
| ___ ⑦ 기타 _____ |                          |



## 여러분의 진로정보 및 진로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7. 여러분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_\_\_ ① 전혀 모른다      \_\_\_ ② 모르는 편이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어느 정도 안다      \_\_\_ ⑤ 매우 잘 안다

18. 여러분은 진로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 \_\_\_ ① 신문·벽보 등의 매체      \_\_\_ ② 가족이나 친지  
 \_\_\_ ③ 북한이탈청소년 선후배 및 친구      \_\_\_ ④ 인터넷 등  
 \_\_\_ ⑤ 학교      \_\_\_ ⑥ 청소년단체 및 복지관  
 \_\_\_ ⑦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정착도우미      \_\_\_ ⑧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_\_\_ ⑨ 교회 및 종교기관      \_\_\_ ⑩ 기타 \_\_\_\_\_

19. 여러분은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아니요

②-1.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주로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까?

- \_\_\_ ① 학교(대안학교 포함) \_\_\_ 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나 복지관  
 \_\_\_ ③ 상담센터      \_\_\_ ④ 가정  
 \_\_\_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_\_\_ ⑥ 종교단체  
 \_\_\_ ⑦ 기타 \_\_\_\_\_

\_\_\_ ② 예



②-2.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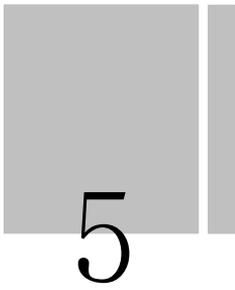
-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하는 편이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_\_\_ ⑤ 매우 불만이다

②-3. 진로교육에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필요한 정보가 없다      \_\_\_ ② 체험기회가 없다  
 \_\_\_ ③ 이해하기 어려웠다      \_\_\_ ④ 기타 \_\_\_\_\_

20. 진로교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진학정보      \_\_\_ ② 취업정보      \_\_\_ ③ 직업전망      \_\_\_ ④ 자격증  
 \_\_\_ ⑤ 직업생활의 어려운 점      \_\_\_ ⑥ 직업체험 기회  
 \_\_\_ ⑦ 문제해결방법      \_\_\_ ⑧ 기타 \_\_\_\_\_



# 5

## 여러분의 개인적인 특성 및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성별은?    \_\_\_ ① 남성    \_\_\_ ② 여성
22. 태어난 연도는?    \_\_\_\_\_ 년
23. 북한에 있을 때의 거주지는? (            )시·도    (            )시·군·구
24. 현재 거주지는? (            )시·도    (            )시·군·구
25. 북한을 떠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 월
26. 남한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_\_\_\_\_ 년    \_\_\_ 월
27. 남한사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실감(고향, 친구, 가족 등에 대한)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떻습니까?  
\_\_\_ ① 매우 크다            \_\_\_ ② 크다                    \_\_\_ ③ 그저 그렇다  
\_\_\_ ④ 거의 없다            \_\_\_ ⑤ 전혀 없다
28. 북한에서는 학교를 몇 학년까지 다녔습니까? 해당하는 학교의 (    )안에 수학연한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_\_\_ ① 인민학교(소학교)    (            )년  
\_\_\_ ② 고등중학교(중학교)    (            )년  
\_\_\_ ③ 대학교                    (            )년  
\_\_\_ ④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29. 여러분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 그 번호를 적어주세요.

- 1)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        )  
 2)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        )

< 보 기 >		
① 인민학교(소학교) 중퇴	② 인민학교(소학교) 졸업	③ 고등중학교(중학교) 중퇴
④ 고등중학교(중학교) 졸업	⑤ 대학 중퇴	⑥ 대학졸업
⑦ 학교를 다니지 않았음	⑧ 잘 모르겠음	

30.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친구, 친척, 형제의 경우에는 몇 명인지 그 수를 적어주세요)

- \_\_\_ ① 아버지 \_\_\_ ② 어머니 \_\_\_ ③ 새아버지 \_\_\_ ④ 새어머니 \_\_\_ ⑤ 배우자  
 \_\_\_ ⑥ 할아버지 \_\_\_ ⑦ 할머니 \_\_\_ ⑧ 남자형제( 명) \_\_\_ ⑨ 여자형제( 명)  
 \_\_\_ ⑩ 친척( 명) \_\_\_ ⑪ 남자친구( 명) \_\_\_ ⑫ 이성친구 \_\_\_ ⑬ 기타 \_\_\_

31. 북한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친구, 친척, 형제의 경우에는 몇 명인지 그 수를 적어주세요)

- \_\_\_ ① 아버지 \_\_\_ ② 어머니 \_\_\_ ③ 새아버지 \_\_\_ ④ 새어머니 \_\_\_ ⑤ 배우자  
 \_\_\_ ⑥ 할아버지 \_\_\_ ⑦ 할머니 \_\_\_ ⑧ 남자형제( 명) \_\_\_ ⑨ 여자형제( 명)  
 \_\_\_ ⑩ 친척( 명) \_\_\_ ⑪ 남자친구( 명) \_\_\_ ⑫ 이성친구 \_\_\_ ⑬ 기타 \_\_\_

32. 남한과 북한에서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예 : 교원, 철도공무원, 농민, 무직, 군관(군대), 노동자 등)

	아버지	어머니
북한에서의 직업		
남한에서의 직업		

33. 현재 남한에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 \_\_\_ ① 99만원 이하                      \_\_\_ ② 100-149만원                      \_\_\_ ③ 150-199만원  
 \_\_\_ ④ 200-249만원                      \_\_\_ ⑤ 250-299만원                      \_\_\_ ⑥ 300만원 이상

34. 북한에 있을 때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_\_\_ ① 상 \_\_\_ ② 중상 \_\_\_ ③ 중 \_\_\_ ④ 중하 \_\_\_ ⑤ 하

35.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해당하는 번호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남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5	4	3	2	1
2) 남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3) 현재 내 말투가 남한 청소년들의 말투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4) 나의 외모는 남한 청소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5	4	3	2	1

♣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 현장전문가용 설문지

현장전문가용

NO.

###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인식 및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항상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어떠한 진로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청소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에서 올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어떠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데 **약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설문지는 단순히 여러분 개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한 것으로, 문항별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설문지 작성에 할애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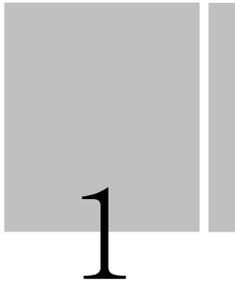
2008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종 태  
연구진 김경준·오성배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오로지 집합적으로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02-2188-8832), 오성배(02-2188-8803)  
(우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교총빌딩) 10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업 및 취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또는 학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예

②-1.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_\_\_ ① 학업부진으로

\_\_\_ ② 교우관계가 나빠서

\_\_\_ ③ 오랜 난민생활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_\_\_ ④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_\_\_ ⑤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_\_\_ ⑥ 남기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로

\_\_\_ ⑦ 기타 \_\_\_\_\_

\_\_\_ ② 아니오 

2. 학교생활 또는 학업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 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예 

①-1. 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_\_\_ ① 학습능력      \_\_\_ ② 사회적응능력

\_\_\_ ③ 심리적 문제(자존감, 정서불안 등)      \_\_\_ ④ 언어능력

\_\_\_ ⑤ 사고방식      \_\_\_ ⑥ 기타 \_\_\_\_\_

\_\_\_ ② 아니오

3.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checkmark$  표 하시기 바랍니다.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은 편이다	전 혀 그렇지 않 다
1) 특성화 학교(한겨레학교 등)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5	4	3	2	1
2) 대안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5	4	3	2	1
3) 정규학교에서의 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5	4	3	2	1
4) 실무자(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5	4	3	2	1
5)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5	4	3	2	1

3-1.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학업 개선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지원 이외에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4. 현재 선생님이 계신 기관(학교)에서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5.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아르바이트                      \_\_\_ ② 정규직 고용  
\_\_\_ ③ 취업정보                      \_\_\_ ④ 창업정보  
\_\_\_ ⑤ 직업체험                      \_\_\_ ⑥ 기타 \_\_\_\_\_

6. 취업정보 제공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일자리정보 부족
- \_\_\_ ② 정보의 부정확성
- \_\_\_ ③ 좋은 일자리 부족
- \_\_\_ ④ 구인정보와 구직자의 눈높이 불일치
- \_\_\_ ⑤ 채용업체(기관) 사람들의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 \_\_\_ ⑥ 산업현장과의 연계 부족
- \_\_\_ ⑦ 기타 \_\_\_\_\_

7. 취업정보 제공에 가장 적합한 기관은 어느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교
- \_\_\_ ② 북한이탈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복지관 등
- \_\_\_ ③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_\_\_ ④ 기타 \_\_\_\_\_

8. 북한이탈 청소년의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직업능력 함양
- \_\_\_ ② 사회적응능력 향상
- \_\_\_ ③ 상담 전문가 참여
- \_\_\_ ④ 특성화 교육기관 확대
- \_\_\_ ⑤ 부모와의 적극적인 협조
- \_\_\_ ⑥ 취업지도 프로그램 개선
- \_\_\_ ⑦ 교사 연수 확대
- \_\_\_ ⑧ 기타 \_\_\_\_\_

9.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 \_\_\_ ①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
- \_\_\_ ② 인간관계
- \_\_\_ ③ 갈등해결능력
- \_\_\_ ④ 사회예절
- \_\_\_ ⑤ 기타 \_\_\_\_\_

# 2

##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0.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11. 현재 선생님이 계신 기관(학교)에서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_\_\_ ① 예  ①-1.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골라주세요.
- \_\_\_ ① 진로심리검사      \_\_\_ ② 진로 및 진학상담
- \_\_\_ ③ 진로특강            \_\_\_ ④ 직업체험
- \_\_\_ ⑤ 기타 \_\_\_\_\_

- \_\_\_ ② 아니오 
- ②-1. 현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교과지도에 통합되어 있다
- \_\_\_ ② 생활지도에 통합되어 있다
- \_\_\_ ③ 인력이 부족하다
- \_\_\_ ④ 예산이 부족하다
- \_\_\_ ⑤ 기타 \_\_\_\_\_

12.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 \_\_\_ ① 꿈이나 목표 부재                      \_\_\_ ② 진로전망 불투명
- \_\_\_ ③ 능력부족                                  \_\_\_ ④ 진로지도의 부족
- \_\_\_ ⑤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_\_\_ ⑥ 기타 \_\_\_\_\_

13. 진로지도 시 북한이탈 청소년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②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진다  
 ③ 마음을 열기 어렵다       ④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⑤ 부모의 협조가 어렵다       ⑥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⑦ 수시로 진로를 바꾼다       ⑧ 동기가 부족하다  
 ⑨ 기타 \_\_\_\_\_

14.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자기이해(적성 및 흥미 등)  
 ② 남한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③ 취업정보 및 안내  
 ④ 진학정보 및 안내  
 ⑤ 창업정보 및 지원  
 ⑥ 동기부여  
 ⑦ 기타 \_\_\_\_\_

15.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관련해서 기관(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정보 부족  
 ② 시간 부족  
 ③ 전문적인 능력 부족  
 ④ 예산 부족  
 ⑤ 프로그램 부족  
 ⑥ 기타 \_\_\_\_\_

16.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 ① 가족              | ___ ② 교사                |
| ___ ③ 신변보호담당관이나 정착도우미 | ___ ④ 친구                |
| ___ ⑤ 북한이탈 청소년 선후배    | ___ ⑥ 청소년 관련 활동가(NGO 등) |
| ___ ⑦ 사회복지사           | ___ ⑧ 기타 _____          |

17. 북한이탈 청소년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취업능력(기능) 향상
- \_\_\_ ② 취업알선 지원
- \_\_\_ ③ 진학제도 개선
- \_\_\_ ④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
- \_\_\_ ⑤ 사회적응력 향상
- \_\_\_ ⑥ 청소년 동기유발
- \_\_\_ ⑦ 직업능력 평가
- \_\_\_ ⑧ 기타 \_\_\_\_\_

# 3

##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선생님의 성별은 ?

\_\_\_ ① 남                      \_\_\_ ② 여

19. 선생님의 연령대는(만으로)?

\_\_\_ ① 20대    \_\_\_ ② 30대    \_\_\_ ③ 40대    \_\_\_ ④ 50대 이상

20. 현재 어느 기관(학교)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_\_\_ ① 정규학교(중·고·대)    \_\_\_ ② 대안학교                      \_\_\_ ③ 한겨레학교  
\_\_\_ ④ NGO단체                      \_\_\_ ⑤ 사회복지관                      \_\_\_ ⑥ 기타 \_\_\_\_\_

21. 현재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_\_\_ ① 대도시                      \_\_\_ ② 중소도시                      \_\_\_ ③ 농어촌

22. 북한이탈 청소년을 지도한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년 (                      )개월

♣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제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윤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윤숙·이춘화·유익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북섬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강태중·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김영한·박철웅·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김지연·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김영지·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김경준·김영지·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김경준·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 08-S21 「아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니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재년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Ⅲ**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경성 전화 (02)503-3223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3-6(93330)